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연구

2021. 12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7
제2장.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분석	
제1절.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기본 현황	8
제2절. 청소년 정책의 현황	20
제3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조사	
제1절.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42
제2절.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43
1. 일반적 특성	43
2.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상태	46
3.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실태	62
4.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가족관계	80
5.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학업 및 온라인 수업	85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로	96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활동	99
7.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인식	130
제4장. 제언	
제1절. 충남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41
제2절. 전문가 제언	151
참고문헌	186
부록	187

표 차례

<표 1-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표 2-1> 충청남도 총인구	10
<표 2-2> 연도 및 행정구역별 총 인구 변화	11
<표 2-3>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11
<표 2-4>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13
<표 2-5> 행정동별 청소년 수	15
<표 2-6>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인구 변화	17
<표 2-7>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18
<표 2-8> 학업중단 학생 현황	19
<표 2-9>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
<표 2-10>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자치법규 현황	39
<표 2-11> 충청남도 시군별 청소년 활동시설 현황	41
<표 2-12> 충남청소년환경 swot분석	42
<표 3-1> 성별, 학교급, 권역별 응답자 수	46
<표 3-2> 권역별 가족 유형	47
<표 3-3> 권역별 가족문화적 배경	47
<표 3-4> 충남청소년진흥원 인지 여부	48
<표 3-5>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49
<표 3-6>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50
<표 3-7>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50
<표 3-8>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51
<표 3-9>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52
<표 3-10>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53
<표 3-11>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53
<표 3-12>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54
<표 3-1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55

<표 3-14>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56
<표 3-15>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56
<표 3-16>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57
<표 3-17>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57
<표 3-1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58
<표 3-19>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59
<표 3-20>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60
<표 3-21>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60
<표 3-22>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61
<표 3-23>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62
<표 3-24>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63
<표 3-25>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활용	64
<표 3-26>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66
<표 3-27> 성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67
<표 3-28>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67
<표 3-29>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69
<표 3-30>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70
<표 3-31> 성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71
<표 3-32>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72
<표 3-33>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73
<표 3-34>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삶의 변화	74
<표 3-35> 성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75
<표 3-36> 학교급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76
<표 3-37>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77
<표 3-38>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78
<표 3-39> 성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79
<표 3-40>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79
<표 3-41>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80
<표 3-4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	81
<표 3-43> 코로나19 이후 생활만족도	82

<표 3-4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83
<표 3-45> 성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84
<표 3-46> 교급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84
<표 3-47> 권역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85
<표 3-48>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86
<표 3-49>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86
<표 3-5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이전/이후의 정서적 지원	87
<표 3-5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88
<표 3-52> 성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89
<표 3-53> 교급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89
<표 3-54> 권역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90
<표 3-55> 온라인 비대면 수업 만족도	90
<표 3-56>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91
<표 3-57> 성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92
<표 3-58> 교급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93
<표 3-59> 권역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93
<표 3-60>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94
<표 3-61> 성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95
<표 3-62> 교급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96
<표 3-63> 권역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96
<표 3-64> 온라인 비대면 수업 스트레스	97
<표 3-65>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구	98
<표 3-66>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99
<표 3-67> 코로나19가 미래 직업(진로)에 미치는 영향	100
<표 3-68> 코로나19의 미래 직업(진로)의 영향 여부	100
<표 3-69> 미래 직업(진로)의 영향 정도	101
<표 3-70>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102
<표 3-71> 성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101
<표 3-72>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103
<표 3-73>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104

<표 3-74>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105
<표 3-75>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105
<표 3-76> 학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106
<표 3-77>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106
<표 3-78>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107
<표 3-79>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107
<표 3-80> 학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108
<표 3-81>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109
<표 3-82>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109
<표 3-83> 성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110
<표 3-84> 학교급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110
<표 3-85> 권역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111
<표 3-86>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112
<표 3-87>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113
<표 3-88> 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113
<표 3-89>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114
<표 3-90>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115
<표 3-91>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116
<표 3-92> 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116
<표 3-93>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117
<표 3-94>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118
<표 3-95> 성별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119
<표 3-96> 교급별 포스트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120
<표 3-97> 권역별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121
<표 3-98>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121
<표 3-99> 성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122
<표 3-100> 교급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123
<표 3-101> 권역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124
<표 3-102>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124
<표 3-103> 성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125

<표 3-104> 교급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126
<표 3-105> 권역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127
<표 3-106>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128
<표 3-107> 성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128
<표 3-108> 교급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129
<표 3-109> 권역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129
<표 3-110>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130
<표 3-111> 성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131
<표 3-112> 교급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131
<표 3-113> 권역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132
<표 3-114>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133
<표 3-115> 성급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133
<표 3-116>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134
<표 3-117>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136
<표 3-118>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138
<표 3-119> 성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139
<표 3-120>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140
<표 3-121>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142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 및 행정구역별 총 인구 변화	12
<그림 2-2>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13
<그림 2-3> 연령별 청소년인구 변화	14
<그림 2-4>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14
<그림 2-5> 행정동별 청소년 수	16
<그림 2-6>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구 변화	17
<그림 2-7>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19
<그림 2-8>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행정조직도	40
<그림 3-1>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49
<그림 3-2>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50
<그림 3-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55
<그림 3-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59
<그림 3-5>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삶의 변화	74
<그림 3-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78
<그림 3-7>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83
<그림 3-8>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88
<그림 3-9>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91
<그림 3-10>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94
<그림 3-11>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118
<그림 3-12>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122
<그림 3-12>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125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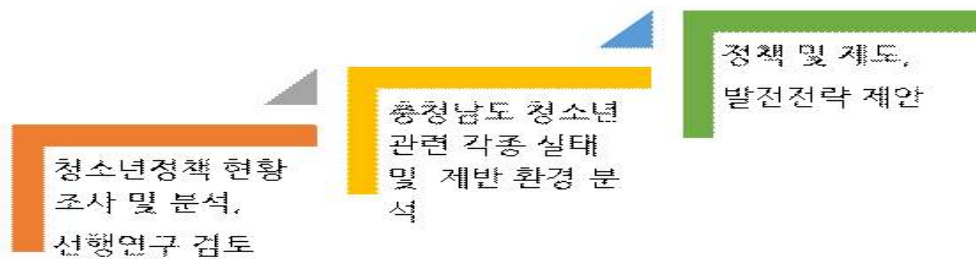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음. 그동안 지구촌을 지배한 획일적인 관행과 틀이 깨졌고,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음(Roger, David, 2004). 특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음.
- 청소년기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역동의 시기임.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좌현숙, 2014; 조현정, 2017).
- 충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코로나19상황에서 충남 청소년의 삶을 확인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면 충남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정책의 동향을 종합하면 청소년시설의 기능 개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활동 중심에서 활동 이외의 다양하고(상담, 복지 등)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능 확대가 필요함. 이에 코로나19확대와 위드코로나 환경에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시설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여 청소년관련 사업의 동향과 정책의 동향을 모

색하고자 함. 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활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운영방향 및 수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청소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청소년 정책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검토

-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각종 실태 및 제반 환경 분석
 -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실태조사(청소년 인구, 생활여건, 교육참여, 복지시설, 청소년기관 및 프로그램, 청소년복지실태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정서상태, 생활실태, 가족관계, 학업 및 온라인 수업 실태, 진로, 청소년활동 등)
 - 충청남도 청소년의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등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및 제도 발전전략 제안
 - 경영환경 분석
 - 중·장기 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2. 충청남도 청소년환경분석

1)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환경 분석

- 최근 3년간(2018~2020)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9~14세 청소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5~19세와 20~24세 청소년의 수는 계속 감소하였음.
- 2020년 기준, 충청남도 9~24세 청소년 인구는 344,365명으로 충청남도 총 인구(2,121,029명)의 16.20%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17.0%, 2019년 16.6%, 2020년 16.2%로 감소추세임.
- 초등학교로서 58.2%, 중학교 25.7%, 고등학교 16.1% 순으로 나타남.

2)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

(1) 법적 추진기반과 근거 마련

-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수요와 도민의 관심 증가로 최근 1년간 조례 4건이 제·개정되었음.

<표 2-1-5>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법규	제/개정일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0-02-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017-06-07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2018-02-20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2019-07-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5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 전담기관 설립·운영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충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상, 보호,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청소년 상담 및 활동 전문기관임

(2) 청소년참여활동 조직 및 기관 인프라

- 충청남도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분야에 대해 타 시도 대비 충분한 인프라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구분	합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51	11	15	13	3	9

3.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구분	내용
조사 일시	2021년 10월 10일 ~ 2021년 11월 30일
조사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 중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 각 교급별로 1,000부씩(중학교 1,000부, 고등학교 1,000부) 2,000부를 배포함. - 충남을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남부권(계룡·논산·금산) 등 4개 권역으로 구 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음.
분석 대상	총 1,925부(응답률 96.3%)
조사 방법	충남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분석 방법	SPSS 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

2) 설문 내용

정서상태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이슈변화와 유형별 변화요인, 코로나19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
생활실태	코로나19이후 여가시간, 주로 하는 활동, 어려움, 삶의 변화, 필요한 도움, 어려운 경험, 생활만족도 등
가족관계	코로나 19 전후의 부모님과의 대화, 가족관계 변화,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여부 등
학업 및 온라인 수업	집에 갖추어져 있는 온라인 수업 기기,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 온라인 수업 스트레스 등

진로	장래희망의 변화,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미래 직업에 대한 영향 여부 등
청소년활동	대면 및 비대면 활동 참여 여부, 충남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방문-만족도 여부,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로, 목적, 도움, 만족도,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진행방식, 진행시간대, 운영시간 등
인구사회학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역, 가족유형, 가족문화적 배경 등

4.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1) 연구참여자

- 총 조사대상자 2,000명은 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 25.4%,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15.5%,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39.5%, 남부권(계룡·논산·금산) 19.6%임.
 - 홍성군이 14.3%로 가장 많고, 서산시 7.5%, 부여군 7.3%, 당진시 7.1% 등으로 나타남.
 - 중학생 49.7%, 고등학생 40.1%로 구분됨.
 - 남자 34.4%, 여자 59.6%로 구분됨.
- 가족유형은 부모가족유형이 72.0%로 가장 많음.
 - 조부모/부모가족유형은 6.6%였고, 한부모가족유형은 7.8%를 차지했으며 조손가족유형은 1.0%로 나타남.
- 가족문화적배경은 부모 모두 한국국적인 유형이 91.9%로 가장 많음.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국적인 경우는 5.2%, 부모님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0.7%로 나타남.

2)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충남청소년의 정서상태

(1)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 코로나19로 인해 “짜증/분노”(30.6%)를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리낌없음/아무렇지않음이라는 응답이 25.4%였음. 반면에 안심(0.8%)되거나 행복(3.2%), 침착함/평온/차분함(5.4%)을 느꼈다는 응답은 적었음.

(2)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외출(여행)이 자유롭지 못함(50.6%),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24.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5.2%), 학교에 가지 않음(5.2%)으로 나타남. 기타의견은 8.7%였는데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제시하였음.

(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은 학교에 가지 않아서(27.5%), 내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23.6%),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의 증가(16.8%),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7.6%)에서 기인함. 로 나타남.
 - 기타의견(24.6%)은 대체적으로 코로나19가 2년 정도 지속되면서 위험이나 불안감 등에 익숙해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등의 응답이 많았음.

(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이슈가 변화했다는 58.4%, 변화가 없다는 41.6%로 나타나 청소년들 중 과반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삶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5)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및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 수준은 3.17(SD=.96)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6)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정서적인 지원의 필요에 대해 2.00(SD=.95)의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3)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실태

(1)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활용

-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활용은 3.25(SD=1.17)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2)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 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의 스마트폰과 PC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낮잠과 TV시청이라는 응답도 많았음.

(3) 코로나19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

- 개인위생관리, 외부활동제한,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등이었음.

(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스마트기기 사용, 위생에 대한 인식, 친구-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임.

(5)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

- 심리상담, 다양한 활동참여, 학습지원,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이 필요함.

(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3.30(SD=.92)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내륙권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였음.

(7) 코로나19 이후 생활만족도

- 코로나19로 생활만족도는 2.90(SD=.98)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4)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가족관계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30분-1시간이 많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주목할 점은,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에 30분-1시간, 1-2시간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30분 미만과 2시간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한 것임.

(2)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 코로나19로 가족과의 대화내용,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 간의 사랑과 상호존중, 가족의 일상생활, 가족의 친밀도는 3.13(SD=.55)임.

(3) 코로나19 전과 후의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 코로나 전과 후에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은 3.71(SD=.98)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보호자로부터 관심, 칭찬, 대화 등의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지원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5)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학업 및 온라인 수업

(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준비

-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자기기, 인터넷 연결, 독립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전자기기와 인터넷 연결 환경에 비해 독립된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2)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만족도

- 온라인(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3.05(SD=1.16)였음.

(3)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통학시간 절약된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등이었음.

(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 일방적 방식의 수업, 부실한 학습 내용, 친구와의 만남 감소 등임.

(5)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스트레스

- 학습스트레스는 2.92(SD=.74)였음.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습스트레스가 약간 높았음.

6)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진로

(1) 코로나19로 인한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는 2.33(SD=1.28)이었음.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하였음.

(2)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는 2.34(SD=1.21)이었음.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내륙권역 > 남부권역의 순서였음.

(3) 코로나19가 직업(진로)에 미칠 영향

- 코로나19는 미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54.2%)라는 응답이 많았음.
- 코로나19가 미래 직업(진로)에 미칠 부정-긍정 영향은 2.71(SD=.98)임.
 - 남부권역 > 내륙권역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의 순임.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활동

(1)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코로나19 이후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 코로나19 이후 부모님 추천 > 기타 > SNS > 친구추천 > 홈페이지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 SNS와 홈페이지로 인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기획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

(3)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타 > 재미 > 자기계발 > 부모님의 권유 > 봉사활동 > 친구권유임.

(4)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둘다 비슷 > 대면프로그램 > 비대면 프로그램임.

(2)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이 대면활동보다 좋았던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3)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 네트워크 문제, 참여하는 느낌 부족 등이었음.

(4)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 포스트19에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은 진로직업프로그램,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심리상담임.

(5)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유형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가장 참여하고 활동은 진로활동임.
- 진로활동 > 문화예술활동 > 참여활동 > 모험탐사활동의 순서임.

(6)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순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7)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 주말(오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주말(오후) > 평일(오후) > 평일(오전) > 주말(오전)

(8)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 적절한 시간대는 1-2시간이 가장 많았음.
- 1-2시간 > 1시간 미만 > 30분 미만 > 2-3시간

(9)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의 인지도는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의 순서로 나타남.

(10)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 방문(대면) 활동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교육복지센터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모든 기관의 이용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았음. 특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참여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에서 이용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모든 기관의 온라인(비대면)이용경험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음.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낮은 만족도로 확인되었음.

5. 결론 및 제언

1) 정책 및 서비스 제언

(1)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함,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부정적 감정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무기력함, 불안 및 우울등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것임.

(2)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위원회 구성과 시스템 마련

- 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

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충남 코로나19 운영위원회는 교육 및 청소년활동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의 역할 다각화가 추진되어야 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감정과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제안함.

(4)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충남 청소년활동 정책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청소년활동의 변화 양상과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을 토대로 기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청소년활동의 개념 확장이 요구됨

구분	기존	확장과 혁신
목적	균형 있는 성장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지향점 (목표)	교육을 보완하는 수단	청소년 주도성 강화
지향점 (목표)	비교과 영역, 보조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을 실천(수련활동) • 공동체 의식 함양(교류활동) •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문화활동) 	적극적인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체험-활동을 넘나들 • 비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 • 청소년 중심(youth-focused)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제공 방식	공급자 중심(수동적)	청소년 중심(능동적)
사업 방식	정형화된 프로그램 중심	청소년 중심(능동적)
지도자 속성	지시자(Director) 시범(Initiatives)	비정형의 프로젝트 중심
청소년과 지도자 관계	지시-과업 수행	안내자(Guidance) 촉진자(Facilitator) 협력자(Collaborator)
수단	아날로그, 대면, 시설 중심	디지털, 온택트(블렌디드), 지역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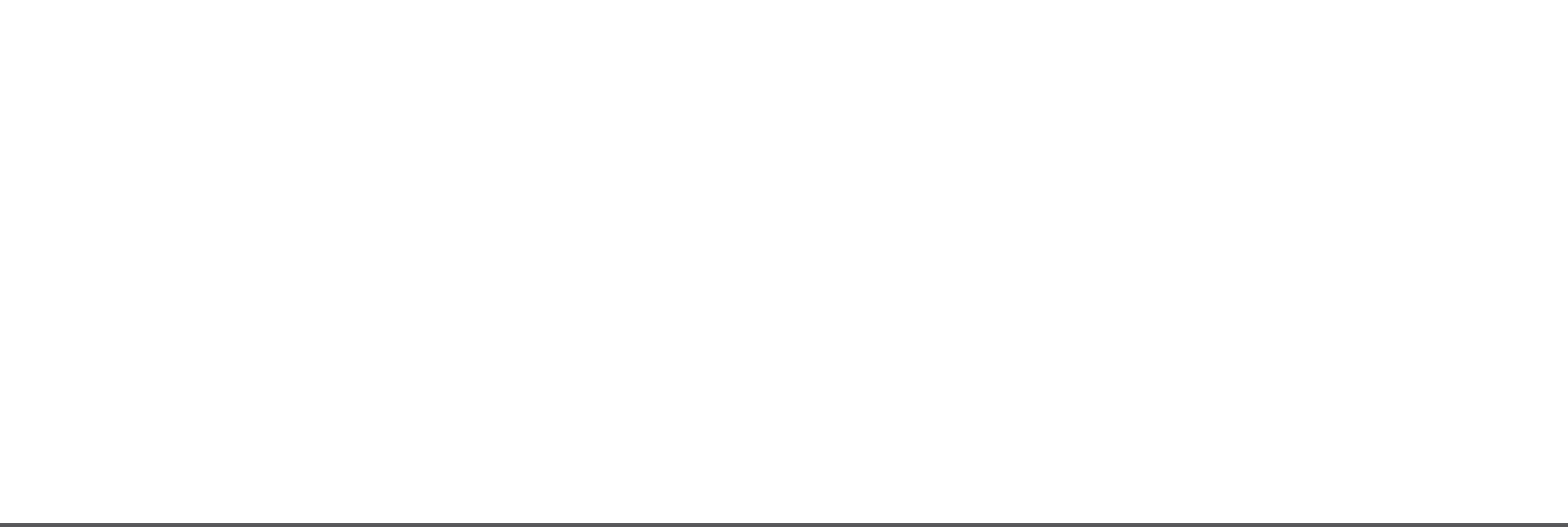
- 코로나19와 관련한 충남의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전달체계를 재편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의 기능분화와 전문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같은 신종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충남 청소년 관련 기관의 맞춤형 전염병 예방정책을 확립해야 함.

(5)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비대면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비대면 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활동에 필요한 체험키트를 상호 배송하여 활동이 진행되는 딜리버리 모델,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 스스로 활동주제 맞는 활동과 결과를 공유하는 비접촉 랜선 모델, 대면 활동의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활동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스말로그(Smart+Analogue)모델,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의 장점만을 결합한 블렌디드(Blended)모델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남의 청소년시설 홍보 방안

- 청소년,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도 충남의 청소년시설을 홍보하여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홍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 또한 청소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유관기관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단순 SNS에 홍보글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 언택트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함. 유튜브는 음악, 뉴스 검색 등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충남구 청소년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연구

I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하, 코로나19)은 비말(침방울)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평균 1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질병관리청, 2020).
- 전 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에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음(질병관리본부, 2020; 김현우, 2020 재인용). 2021년 11월까지 전세계 감염자는 253,266,560명(사망 5,105,309명)으로 치명률은 약 2.02%(WHO, 3.5 기준)정도임(질병관리청, 2021).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시작되어 2월 23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진지역이 확대되고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전염병 재난 위기 경고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질병관리본부, 2020), 광범위한 속도와 규모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격리하였으며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음. 그동안 지구촌을 지배한 획일적인 관행과 틀이 깨졌고,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음(Roger, David, 2004). 코로나 뉴노멀은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비일상성 경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음(경기연구원, 2020). 사람들은 감염, 사망 등 절망적인 예측과 흥미 위

주의 뉴스 보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박한선, 2015), 개인 방역 장비나 비상식량 등에 대한 사재기를 하기도 함. 감염의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피하거나(박한선, 2020), 의심이 많아져서 주위사람들을 경계하고 외출과 외부활동을 줄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개인 및 공적 일정을 취소하기도 함(Lee-Baggley et al., 2004; Main et al., 2011).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재인용),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보다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함(이동훈 외, 2016 재인용).

-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비대면 언택트(untact)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고(이미정, 2020),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 정책은 사회활동의 위축과 함께 사회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켰다(손현일, 김기욱, 허중배, 박충훈, 2020).
-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김홍중, 2020). 전통적 사회 공간들(학교, 학원, 극장, 교회, 병원, 군대, 공연장, 피트니스 클럽, 술집, 스포츠 경기장, 식당 등)이 부분적으로 섯다운되었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면대면 상호작용이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되면서 언컨택트(unco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김홍중, 2020).
- 코로나19는 학업과 관련한 학교환경도 변화시켰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교령으로 전세계 18개국의 15억 7,6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교실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받고 있음(UNICEF, 2020).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온라인 수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이용상, 신동광, 2020).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부족, 제한적인 쌍방향 의사소통, 학습성과 확인을 위한 과도한 과제물 부여로 인한 학습부담 초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평가체계,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등은 학습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습격차를 유발함. 특히,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되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0), 학습 집중도 및 효율 저하와 학습량 증가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기도 함(이용상, 신동광, 2020). 또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음. 스트레스는 마음의 안정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인 긴장 또는 그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것들을 의미함(김은희 외, 2009).

- 코로나19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청소년기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역동의 시기임.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좌현숙, 2014; 조현정, 2017),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로 인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에서 조사를 진행한 2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이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중된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감염에 대한 실제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낙인찍기, 차별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와도 이어진다(Bagcchi, 2020; Pappas, et al., 2009; Ramalingaswami,2001).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는 코로나19 발생 후 진행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2차 조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1.59로 1차 조사 1.78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두려움에 쌓여 있음을 확인하였음. 청소년들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고양시청소년재단(2020)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짜증, 우울, 고립감 등(57%)을 경험하고 있었음. 수원시청소년재단(202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행복감은 21.9%(55.6%→33.7%) 감소하였고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24.1% (26.3%→50.4%), 29.4%(17.6%→47%) 증가하였음.

- 충청남도(忠淸南道)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접하고, 서쪽은 황해(서해)가 있고, 남쪽으로 전라북도, 북쪽으로는 경기도와 접하고 있음. 8시 7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됨.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2037년 추계기간 동안 충남 총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하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 전망됨.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시군에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 현상이 두드러져 인구 자연 감소가 확산되고, 동시에 인구의 사회적 변동(전입, 전출)이 시군별 인구 증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2037년까지 9개 시군(천안 · 아산 · 서산 · 계룡 · 당진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이 증가하고 6개 시군(공주 · 보령 · 논산 · 금산 · 부여 · 서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출산 기조에 따라 인구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특히, 2037년에 천안은 +109천명이 늘며 760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홍성은 2017년 대비 1.2배(+18천명) 늘어나 121천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시군별 중위연령은 2017년 대비 2037년에 평균 10세 안팎 증가하여, 2037년에는 천안, 아산, 계룡은 40대, 서산, 당진, 홍성은 50대, 그 외 지역은 6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 2037년간 중위연령은 천안, 아산 등은 낮고 청양, 서천, 부여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2017년 대비 2037년 공주(+14.4세), 금산(+13.3세)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예측됨
 - 인구피라미드는 모든 시군에서 2017년에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2037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점차 변화할 전망되고 있음.
 - 청소년과 청년인구감소가 지속되어 206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은 단 10%로 예측되고 있음. 초고령화 심화 및 인구 감소로 인

한 세수 부족, 사회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 증가,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악화, 인구감소의 악순환 고착화가 예상된다.

- 충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2. 연구의 목적

- 최근 정책의 동향을 종합하면 청소년시설의 기능 개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활동 중심에서 활동 이외의 다양하고(상담, 복지 등)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능 확대가 필요함. 이에 코로나19확대와 위드코로나 환경에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시설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사업의 동향과 정책의 동향을 모색하고자 함. 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활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운영방향 및 수행과제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청소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청소년 정책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검토
 -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각종 실태 및 제반 환경 분석
 -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실태조사(청소년 인구, 생활여건, 교육참여, 복지시설, 청소년기관 및 프로그램, 청소년복지실태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정서상태, 생활실태, 가족관계, 학업 및 온라인 수업 실태, 진로, 청소년활동 등)
 - 충청남도 청소년의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등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및 제도 발전전략 제안
 - 경영환경 분석
 - 중·장기 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2-1>와 같음.

<표1-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문헌연구	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환경분석
2. 설문조사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 조사대상 : 충청남도 청소년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장기발전전략에 적용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안 제시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청소년정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창출 기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연구

II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분석



제2장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분석

제1절 충청남도 청소년관련 기본 현황

1. 청소년인구 현황 및 전망

1) 총 인구 현황

-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전, 세종 등과 인접해있으며, 인구는 약 212만명, 면적은 8,245.5km²임.
 - 도청 소재지는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져 있는 내포신도시며, 산하에 8시 7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 대전이 1989년도 충남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에는 천안시가 최대 도시가 되었고, 현재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도시 특례 지위까지 얻어 충남 최대 도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경기와 인구 교류가 가장 많으며, 대전, 세종으로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음.
- 2021년 10월 기준 충청남도 총 인구는 2,118,977명으로, 천안시에 가장 많은 충청남도민이 거주하고 있음(<표 2-1-1> 참조).
 - 행정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658,107명으로 충청남도 총 인구의 31.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 15.3%(323,789명), 서산시 8.3%(176,595명), 당진시 7.9%(166,802명), 논산시 5.4%(114,769명), 공주시 4.9%(103,321명) 등의 순임.
 - 총 세대수 999,286세대로 천안이 297,031세대로 가장 많고, 아산시 145,338세대, 서산시 81,158세대, 당진시 79,244세대 등 이었음.
 - 세대 당 인구수 2.12명이었고 계룡시가 2.55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2.23명 천안시 2.22명, 홍성군 2.13명, 당진시 2.10명, 보령시 2.00명 등으로 나타남. 남자 총인구는 1,083,133명, 여자 총인구는 1,035,844명으로 남자가 약 5만명 정도 많았음.

<표 2-1> 충청남도 총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비율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2,118,977	100.0%	999,286	2.12	1,083,133	1,035,844
천안시	658,107	31.1%	297,013	2.22	336,326	321,781
동남구	255,504	12.1%	116,752	2.19	129,471	126,033
서북구	402,603	19.0%	180,261	2.23	206,855	195,748
공주시	103,321	4.9%	51,442	2.01	51,613	51,708
보령시	98,535	4.7%	49,364	2.00	49,996	48,539
아산시	323,789	15.3%	145,338	2.23	168,355	155,434
서산시	176,595	8.3%	81,158	2.18	92,067	84,528
논산시	114,769	5.4%	57,990	1.98	57,304	57,465
계룡시	43,093	2.0%	16,915	2.55	21,469	21,624
당진시	166,802	7.9%	79,244	2.10	88,773	78,029
금산군	50,597	2.4%	25,882	1.95	25,545	25,052
부여군	63,923	3.0%	33,255	1.92	31,754	32,169
서천군	50,884	2.4%	26,676	1.91	25,136	25,748
청양군	30,399	1.4%	16,359	1.86	15,450	14,949
홍성군	99,407	4.7%	46,699	2.13	49,522	49,885
예산군	76,974	3.6%	39,004	1.97	38,671	38,303
태안군	61,782	2.9%	32,947	1.88	31,152	30,63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 2019년 대비 2020년 행정시·군구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천안시 1.0%, 아산시 0.6%, 서산시 0.5%가 증가한 반면, 청양군 2.4%, 부여군 2.1%, 논산시 1.8%, 서천군 1.8%, 금산군 1.6% 예산군 1.5% 등은 감소함(<표 2-1-2> 참조).
- 최근 충청남도 총 인구변화 추세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2천명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은

2016년부터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임.

-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은 2016년까지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감소하였음.
- 천안시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 10월 기준은 약 7백명이 감소하였음. 특히, 천안의 경우, 동남구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북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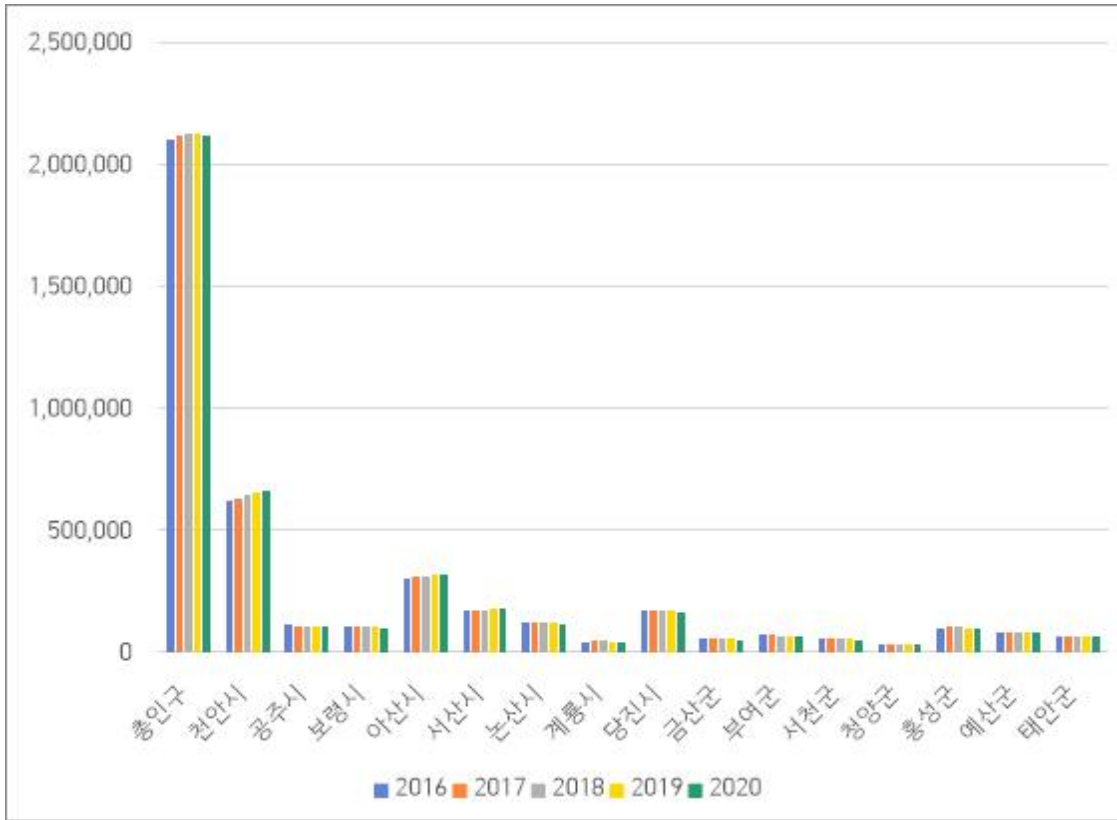
<표 2-2> 연도 및 행정구역별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총인구	2,096,727	2,116,770	2,126,282	2,123,709	2,121,029	2,118,977
천안시	617,955	631,531	646,075	652,258	658,808	658,107
동남구	258,919	255,878	257,978	259,411	258,009	255,504
서북구	359,036	375,653	388,097	392,847	400,799	402,603
공주시	109,931	108,432	107,581	106,474	104,545	103,321
보령시	103,873	103,198	101,990	101,114	100,229	98,535
아산시	302,929	311,453	312,822	314,395	316,129	323,789
서산시	170,788	171,678	174,162	174,690	175,591	176,595
논산시	123,213	122,240	120,230	118,842	116,675	114,769
계룡시	42,634	43,967	43,731	42,971	42,822	43,093
당진시	166,630	167,439	167,770	167,042	166,249	166,802
금산군	54,612	53,894	53,222	52,257	51,413	50,597
부여군	70,187	69,086	68,078	66,740	65,354	63,923
서천군	56,012	55,175	53,922	52,805	51,866	50,884
청양군	32,753	32,837	32,296	31,717	30,948	30,399
홍성군	99,971	101,570	101,082	100,423	100,102	99,407
예산군	81,339	80,338	80,083	79,238	78,084	76,974
태안군	63,900	63,932	63,238	62,743	62,214	61,78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1> 연도 및 행정구역별 총 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 충청남도는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북부권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 포함되고, 서해안권은 보령, 태안, 서천이 포함됨. 내륙권은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남부권은 계룡, 논산, 금산이 포함됨. 인구수는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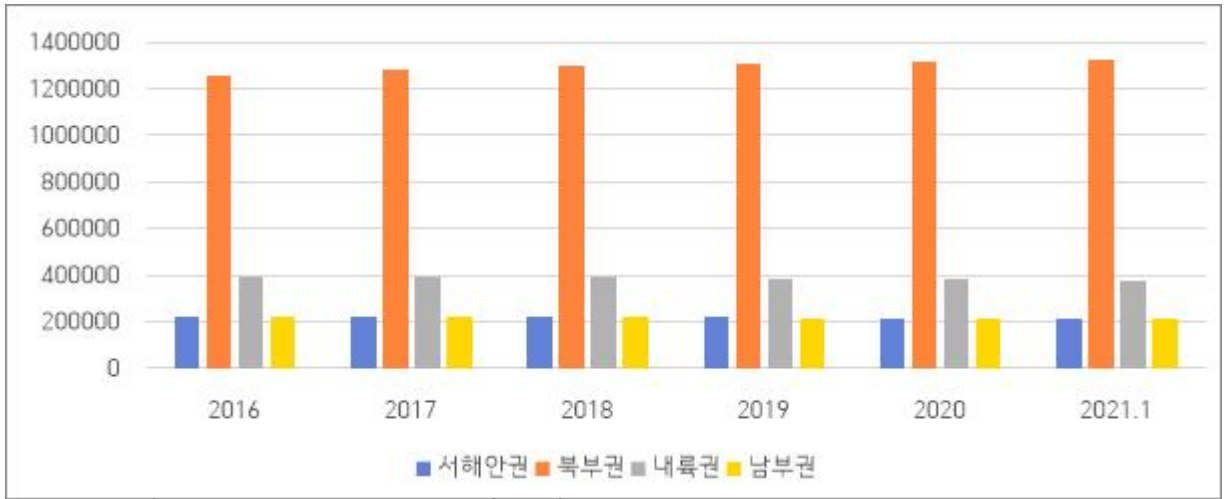
<표 2-3>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북부권	1,258,302	1,282,101	1,300,829	1,308,385	1,316,777	1,325,293
서해안권	223,785	222,305	219,150	216,662	214,309	211,201
내륙권	394,181	392,263	389,120	384,592	379,033	374,024
남부권	220,459	220,101	217,183	214,070	210,910	208,45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2>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2) 청소년인구 현황

- 최근 3년간(2018~2020)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표 2-1-3> 참조).
 - 연령별로 살펴보면, 9~14세 청소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5~19세와 20~24세 청소년의 수는 계속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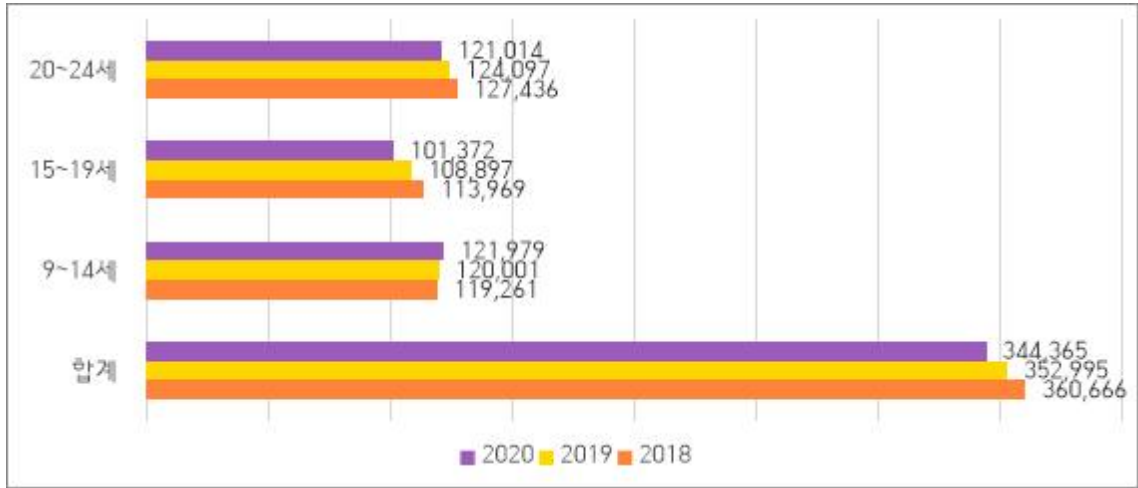
<표 2-4>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9~14세	15~19세	20~24세
2018	남	190,196	61,644	59,456	69,096
	여	170,470	57,617	54,513	58,340
	계	360,666	119,261	113,969	127,436
2019	남	186,096	62,128	56,699	67,269
	여	166,899	57,873	52,198	56,828
	계	352,995	120,001	108,897	124,097
2020	남	181,797	63,254	52,700	65,843
	여	162,568	58,725	48,672	55,171
	계	344,365	121,979	101,372	12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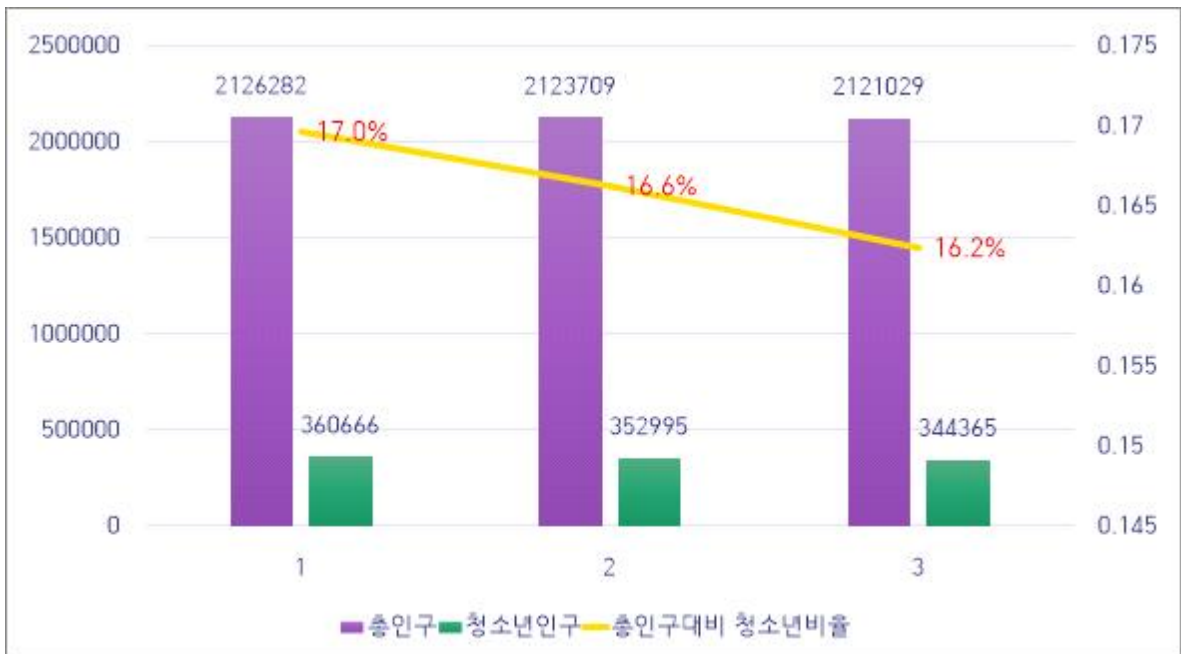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3> 연령별 청소년인구 변화



- 2020년 기준, 충청남도 9~24세 청소년 인구는 344,365명으로 충청남도 총 인구(2,121,029명)의 16.2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2-1-3> 참조).
- 충청남도 총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중은 2018년 17.0%, 2019년 16.6%, 2020년 16.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4>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 2020년 청소년인구(9~24세)는 854만 2천 명으로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982년 1,420만 9천명이었던 청소년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20년 854만 2천명, 2021년 830만 6천명임. 통계청의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2030년 654만명, 2060년 44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까지는 청소년인구가 약 20명씩 감소하는 것임.
 - 전체인구에서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에는 36.8%로 인구의 3/1이 넘었으나, 2021년 16.0%로 1980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2060년 1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충청남도 행정동별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천안시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음.
 - 시군별로 구체적 수치를 비교해보면, 청소년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동은 천안시(35.25%; 동남구 13.5%, 서북구 21.7%)이며, 다음으로 아산시(16.3%), 서산시(8.2%), 당진시(7.4%), 논산시(4.9%), 홍성군(4.6%), 공주시(4.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였음. 그 외 지역은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2-5> 행정동별 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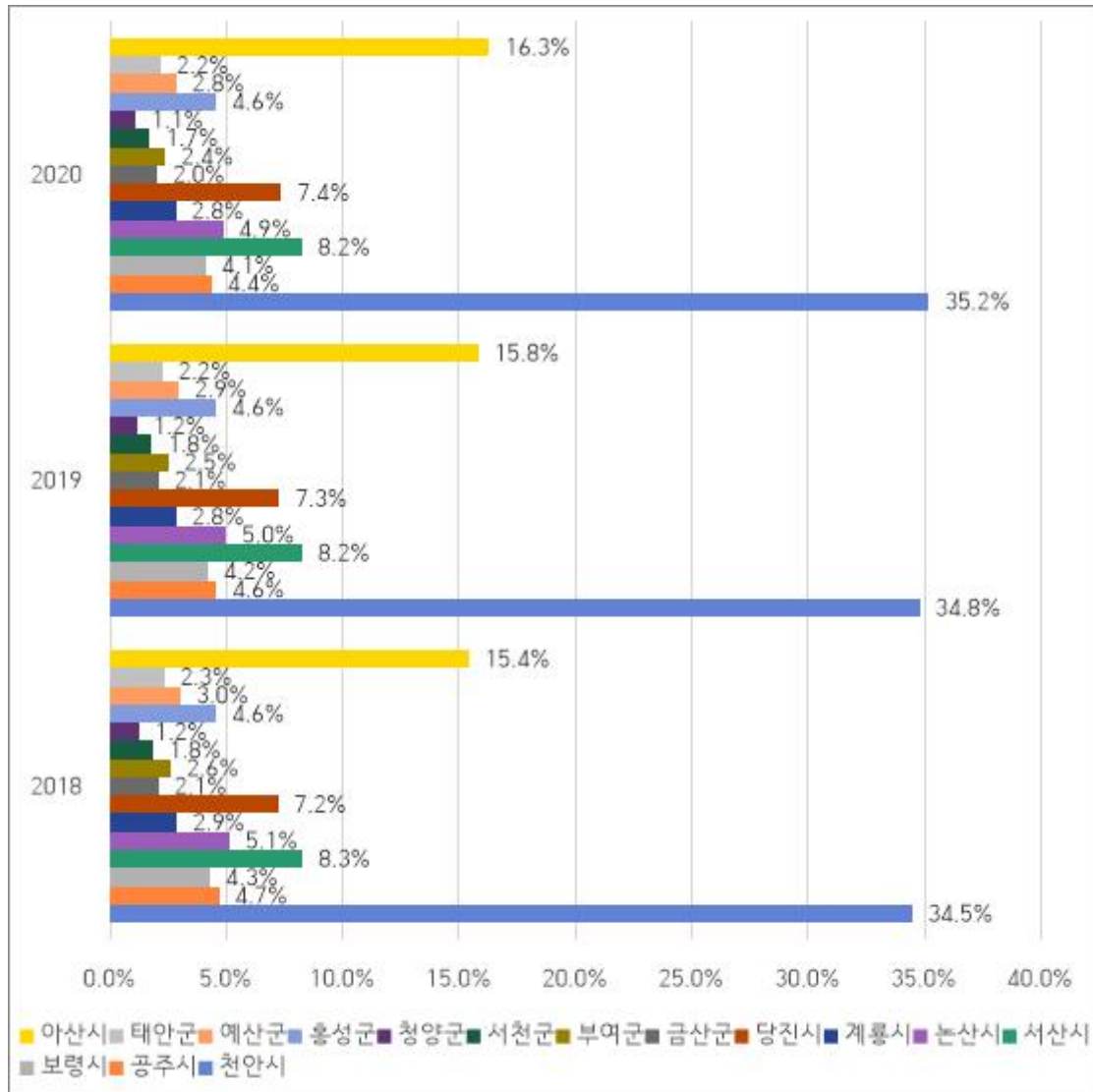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청소년 총인구	360,666	352,995	344,365
천안시	124,272	122,805	121,200
동남구	48,597	47,828	46,546
서북구	75,675	74,977	74,654
공주시	16,891	16,145	15,034
보령시	15,481	14,813	14,204
아산시	55,603	55,854	56,108
서산시	29,816	29,101	28,404
논산시	18,519	17,626	16,714
계룡시	10,336	10,006	9,702

당진시	26,066	25,671	25,347
금산군	7,498	7,290	6,888
부여군	9,374	8,802	8,169
서천군	6,669	6,334	5,898
청양군	4,447	4,100	3,757
홍성군	16,443	16,134	15,702
예산군	10,893	10,394	9,785
태안군	8,358	7,920	7,453

자료: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연말기준.

<그림 2-5> 행정동별 청소년 수



○ 2020년 충청남도 행정동을 권역에 따라 구분한 청소년 인구는 다음 표와 같음.

- 권역에 따른 청소년의 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가 포함되는 북부권에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포함되는 내륙권, 보령, 서천, 태안군이 포함된 서해안권, 계룡, 논산, 금산이 포함된 남부권의 순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인구는 전체 권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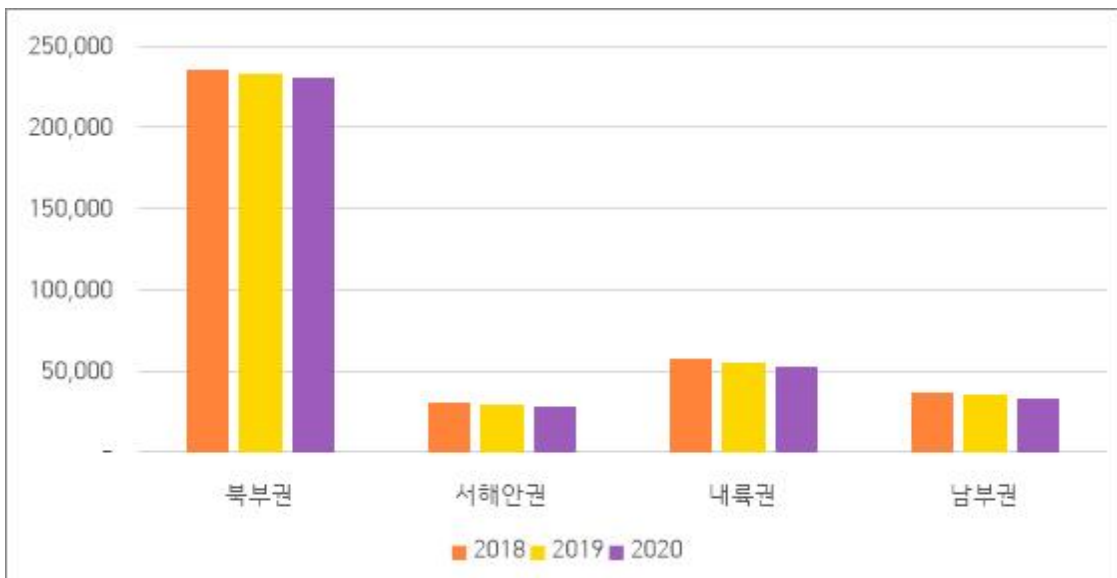
<표 2-6>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북부권	235,757	233,431	231,059
서해안권	30,508	29,067	27,555
내륙권	58,048	55,575	52,447
남부권	36,353	34,922	33,304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6>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3)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 2021년 충청남도 학교급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급은 초등학교로서 58.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25.7%, 고등학교 16.1% 순으로 나타남(<표 2-1-4> 참조).
- 최근 4개년 동안 충청남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를 학교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2018년 120,203명에서 2019년 122,02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중학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7,390명, 2021년 59,389명으로 증가하였음. 고등학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2-7>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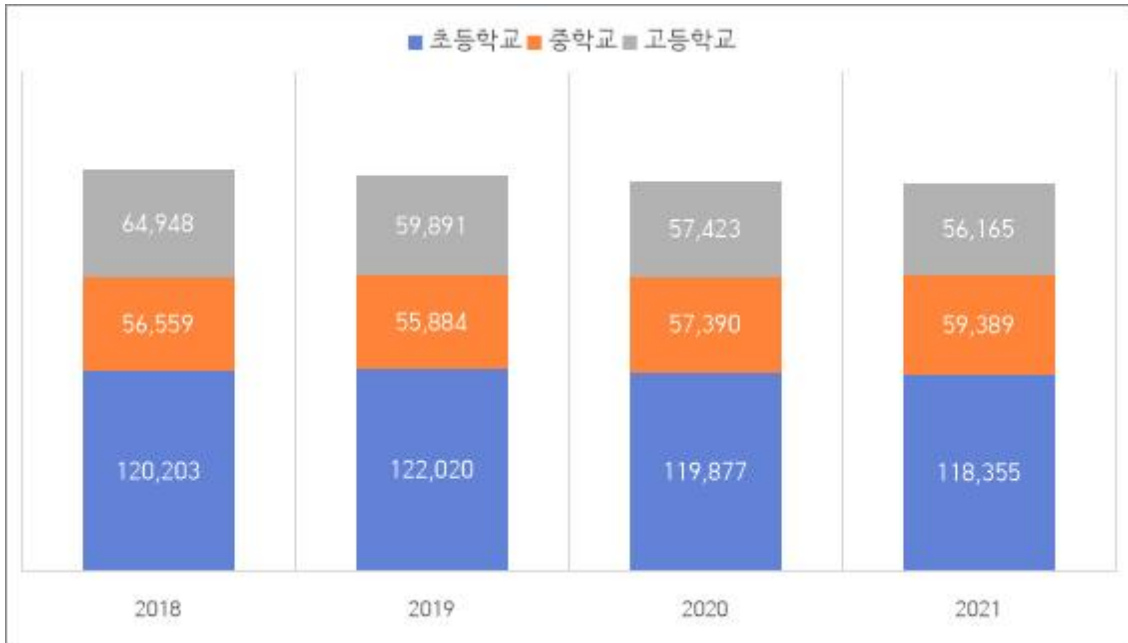
단위: 명

년도	구분	개교	학급수	학생수
2018. 9	초등학교	420	5,931	120,203
	중학교	189	2,249	56,559
	고등학교	117	2,462	64,948
	소계	726	10,642	241,710
2019. 9	초등학교	420	6,020	122,020
	중학교	188	2,228	55,884
	고등학교	117	2,436	59,891
	소계	725	10,684	237,795
2020. 9	초등학교	422	5,978	119,877
	중학교	186	2,252	57,390
	고등학교	117	2,417	57,423
	소계	725	10,647	234,690
2021. 9	초등학교	422	118,555	118,355
	중학교	186	59,389	59,389
	고등학교	117	56,165	56,165
	소계	725	234,109	233,909

자료: 충남교육청 각급 학교현황 알림, 각 연도.

<그림 2-7>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단위: 명



4) 학교밖 청소년 현황

- 충청남도의 학교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1,800명에서 2018년 1,85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000명으로 나타남. 2020년에는 2,006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음. 이는 전체 학생수 대비 3.8%에 해당되는 것임.

<표 2-8>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명

시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남	여	계
전국	5,452,805	26,199	26,062	52,261
충청남도	238,888	1,017	989	2,006
비율	4.4%	3.9%	3.8%	3.8%

5) 다문화 청소년 현황

- 핵가족화, 가족구성의 단순화, 다문화/ 조손/ 한부모가족 등 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돌봄, 교육, 정서적지지 등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되어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는 최근 10년간 2.3배 증가하였음.
- 2019년 충남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4,590명으로 고등학교 743명, 중학교 2,856명, 초등학교 11,824명임.

<표 2-9> 다문화 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다문화 가족 자녀	13,021	13,868	14,590

제2절 청소년 정책의 현황

1. 청소년관련법(충청남도 중심, 적용가능성 검토)¹⁾

1) 청소년기본법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기본적 인권: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
- 권리: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 책임: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1)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중심으로 검토함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 ‘청소년기본법’과 ‘아동의 권리의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 교육.
 -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 시장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함.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함.
 - 청소년특별회의 참석대상: 지역회의(특별회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13조(기본계획수립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기본방향, 추진목표, 기능의 조정, 분야별 주요 시책, 재원의 조달방법,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청소년의 달),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및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

- 제23조(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배치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두 있음.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함.
-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음.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증표를 발급,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기회 제공 등 지원
-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1)청소년활동,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주택단지의 청소년 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
 -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함.

-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대상: 신고의무대상 기관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위무대상 기관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상담전화·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주의사항: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님 됨.

2)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 :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신고제도 운영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함.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 제9조(학교와의 협력)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함.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숙박형 청소년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종합안전·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 다음과 같은 사고 발생시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학대 등)가 발생한 경우

○ 제30조(민간의 참여 유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음.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시행규칙(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

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35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함.

○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음.
-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3)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2조2(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실태조사의 내용: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청소년의 우대)
 -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 우대: 대상 종류) : 1)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이용시설.
- 제4조(청소년증)
 - 지방자치단체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3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3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 (동법 시행령 제3조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함

○ 제13조(상담과 교육)

-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특별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

원, 필요시 금전의 형태로 제공가능

○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청소년보호법

- 제4조(사회의 책임)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조례로 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함. 다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음

-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동법 시행령 제32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지원
 -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관리
 -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음
 - 민간의 감시·고발 단체(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함

- 제49조(신고)
 -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포함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성교육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위탁: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 실적이 있는 청소년단체,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실적이 있는 단체

2.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

1) 법적 추진기반과 근거 마련

-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수요와 국민의 관심 증가로 최근 1년간 조례 4건 제·개정

<표 2-10>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법규	제/개정일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0-02-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017-06-07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2018-02-20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2019-07-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5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전담기관 설립·운영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충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상, 보호,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청소년 상담 및 활동 전문기관임
 -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법률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조례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7조 법인의 기능, 규칙 :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임.
 - 진흥원은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는 사업을 운영함.



<그림 2-8>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행정조직도

2) 청소년참여활동 조직 및 기관 인프라

- 충청남도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분야에 대해 타 시도 대비 충분한 인프라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청소년참여위원회 16개, 청소년운영위원회 30개가 운영 중임
(청소년 인구 전국대비 4.4%, 청소년 참여활동 기구 전국대비 8.9%)

<표 2-11> 충청남도 시군별 청소년 활동시설 현황

구분	합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51	11	15	13	3	9
천안시	6	2	1	1	-	2
공주시	4	-	2	-	-	2
보령시	3	1	1	1	-	-
아산시	3	1	1	1	-	-
서산시	4	1	1	2	-	-
논산시	2	1	-	1	-	-
계룡시	-	-	-	-	-	-
당진시	3	-	3	-	-	-
금산군	3	1	1	1	-	-
부여군	4	-	1	1	-	2
서천군	3	1	1	-	-	1
청양군	4	-	1	2	1	-
홍성군	2	1	1	-	-	-
예산군	2	1	1	-	-	-
태안군	8	1	-	3	2	2

※ 운영중 46개소, 휴지 5개소

- 가족형태의 변화, 인구 수 감소, 청소년 사회참여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요구, 이를 위한 종합 적인 청소년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함.

3) 충청남도 청소년관련 SWOT분석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청소년정책 3개년계획안을 통해 충청남도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의 기회요인, 위협요인, 강점요인, 약점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표 2-12> 충남청소년환경 swot분석²⁾

외부요인		기회요인 (O)	위험요인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회의 확대 자기주도적 직업체험활동 정책의 한계 다문화 및 위기 청소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학교폭력, 다양한 유해요인 등 통제 어려운 환경 심화 학교 밖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 취약 참여 및 권리증진 기회부족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저해
내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 청소년 전문 서비스 기관의 인프라 및 기능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의지 	S-O 성장전략	S-T 경쟁력 강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 특성을 반영한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 하는 주도적진로개발 ✓ 충남도 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직업체험 활성화 ✓ 미래를대비한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체계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방안 마련 ✓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증진 ✓ 지속적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 강화 ✓ 청소년민주시민역량강
강점요인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에 대한 도·관련 기관의 대응력 미약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한 부모 가정 증가 추세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및 인프라, 전문성의 상대적 빈약 	W-O 혁신전략	W-T 회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 여건을 고려한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개선 ✓ 효과성 극대화 위한 정책추진체계 고도화 ✓ 충남형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 청소년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 청소년 최소화를 위한 자립및보호체계강화 ✓ 충남청소년안전환경강화 ✓ 대상별맞춤형보호, 지원고도화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약점요인 (W)			

2)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2021). 충남청소년정책3개년계획안 에서 추출



II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삶의 질 조사



제3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

제1절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 조사 일시: 2021년 10월 10일 ~ 2021년 11월 30일
- 조사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 중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 각 교급별로 1,000부씩(중학교 1,000부, 고등학교 1,000부) 2,000부를 배포함.
 - 충남을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남부권(계룡·논산·금산)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총 1,925부(응답률 96.3%)

2)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 조사 방법: 충남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 분석 방법: SPSS 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

3) 설문지의 주 내용

- 정서상태 :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이슈변화와 유형별 변화요인, 코로나19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

- 생활실태 : 코로나19이후 여가시간, 주로 하는 활동, 어려움, 삶의 변화, 필요한 도움, 어려운 경험, 생활만족도 등
- 가족관계 : 코로나 19 전후의 부모님과의 대화, 가족관계 변화,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여부 등
- 학업 및 온라인 수업 : 집에 갖추어져 있는 온라인 수업 기기,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 온라인 수업 스트레스 등
- 진로 : 코로나19로 인한 장래희망의 변화,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미래 직업에 대한 영향 여부 등
- 청소년활동 : 대면 및 비대면 활동 참여 여부, 충남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방문-만족도 여부,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로, 목적, 도움, 만족도,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진행방식, 진행시간대, 운영시간 등
- 인구사회학적 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역, 가족유형, 가족문화적 배경 등

제2절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2,000명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1,925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표 3-1> 참조).
 -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 25.4%,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15.5%,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39.5%, 남부권(계룡·논산·금산) 19.6%의 응답분포를 보임.
 - 거주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성군이 14.3%로 가장 많고, 서산시

7.5%, 부여군 7.3%, 당진시 7.1% 등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중학생 994명(49.7%), 고등학생 801명(40.1%)으로 구분됨.
- 성별로 남자 687명(34.4%), 여자 1,191명(59.6%)으로 구분됨.

<표 3-1> 권역별 학교급, 성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중학교	남자	103 (31.2)	37 (11.2)	131 (39.7)	59 (17.9)	330 (100.0)
	여자	106 (16.1)	106 (16.1)	282 (42.9)	164 (24.9)	658 (100.0)
	합계	209 (21.1)	143 (14.4)	415 (41.9)	224 (22.6)	991 (100.0)
고등학교	남자	135 (41.4)	73 (22.4)	39 (12.0)	79 (24.2)	326 (100.0)
	여자	103 (21.8)	56 (11.9)	249 (52.8)	64 (13.6)	472 (100.0)
	합계	238 (29.8)	129 (16.2)	288 (36.1)	143 (17.9)	798 (100.0)
전체 ¹⁾		475 (100.0)	291 (100.0)	740 (100.0)	367 (100.0)	1,873 (100.0)

주 1) 이하 본 연구의 모든 수치는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임

- 가족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 부모가족유형이 1,440명(72.0%)으로 가장 많음.
 - 조부모/부모가족유형은 132명으로 6.6%였고, 한부모가족유형은 155명으로 7.8%를 차지했으며 조손가족유형은 19명으로 1.0%로 나타남.
- 권역별로 구분했을 때, 부모가족유형은 4개 권역 중 서해안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적은 비중을 보였고, 한부모가족유형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참조).
 - 부모가족유형의 경우, 남부권역은 80.4%, 북부권역에서는 78.3%, 내륙권역에서는 77.6%였으나 서해안권역은 67.4%의 비중을 차지했음.
 - 이에 비해 한부모가족유형의 경우, 내륙권역과 남부권역, 북부권역에서는 9%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서해안권역에서는 1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은 남부권역이 1.9%, 내륙권역이 1.1%였음.
 - 형제/자매와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은 북부권역이 2.5%, 서해안권역이

2.4%로 나타남.

<표 3-2> 권역별 가족 유형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부모가족	372 (78.3)	196 (67.4)	574 (77.6)	295 (80.4)	1,437 (76.7)
한부모가족	42 (8.8)	36 (12.4)	46 (6.2)	30 (8.2)	154 (8.2)
조손가족	3 (0.6)	1 (0.3)	8 (1.1)	7 (1.9)	19 (1.0)
조부모&부모가족	31 (6.5)	13 (4.5)	71 (9.6)	17 (4.6)	132 (7.0)
친척	- (0.0)	2 (0.7)	- (0.0)	- (0.0)	2 (0.1)
혼자	3 (0.6)	1 (0.3)	2 (0.3)	2 (0.5)	8 (0.4)
형제/자매가족	12 (2.5)	7 (2.4)	4 (0.5)	1 (0.3)	24 (1.30)
기타	12 (2.5)	21 (7.2)	13 (1.8)	15 (4.1)	61 (3.3)
전체	475 (100.0)	291 (100.0)	740 (100.0)	367 (100.0)	1,873 (100.0)

- 가족문화적배경을 확인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 부모 모두 한국국적인 유형이 1,722명(91.9%)으로 가장 많음(<표 3-3> 참조).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국적인 경우는 5.2%, 부모님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0.7%로 나타남.
- 가족문화적배경을 권역별로 구분했을 때, 서해안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부모님이 모두 한국국적인 경우가 가장 적었음.
 - 내륙권역이 부모님 모두 외국국적이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님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부모님 한분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응답한 사례 다른 권역에 비해 많았음.

<표 3-3> 권역별 가족문화적 배경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	444 (93.5)	264 (90.7)	672 (90.8)	342 (93.2)	1,722 (91.9)
부모님 모두 외국국적	4 (0.8)	2 (0.7)	8 (1.1)	- (0.0)	14 (0.7)

부모님 한분 외국국적	14 (2.9)	13 (4.5)	47 (6.4)	23 (6.3)	97 (5.2)
부모님 모두 북한이탈주민	2 (0.4)	1 (0.3)	4 (0.5)	- (0.0)	7 (0.4)
부모님 한분 북한이탈주민	- (0.0)	- (0.0)	2 (0.3)	- (0.0)	2 (0.2)
기타	- (0.0)	4 (1.4)	2 (0.3)	1 (0.3)	7 (0.4)
전체	475 (100.0)	291 (100.0)	740 (100.0)	367 (100.0)	1,873 (100.0)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알고 있다가 11.5%, 모른다가 88.0%로 나타남(<표 3-4> 참조).
 - 권역별로 확인해보면 내륙권역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1%로 가장 많았고, 남부권역이 6.8%로 가장 적었음.

<표 3-4> 충남청소년진흥원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알고 있다	44 (9.3)	35 (12.0)	112 (15.1)	25 (6.8)	216 (11.5)
모른다	430 (90.5)	254 (87.3)	623 (84.2)	342 (93.2)	1,649 (88.0)
전체	475 (100.0)	291 (100.0)	740 (100.0)	367 (100.0)	1,873 (100.0)

2.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상태

1)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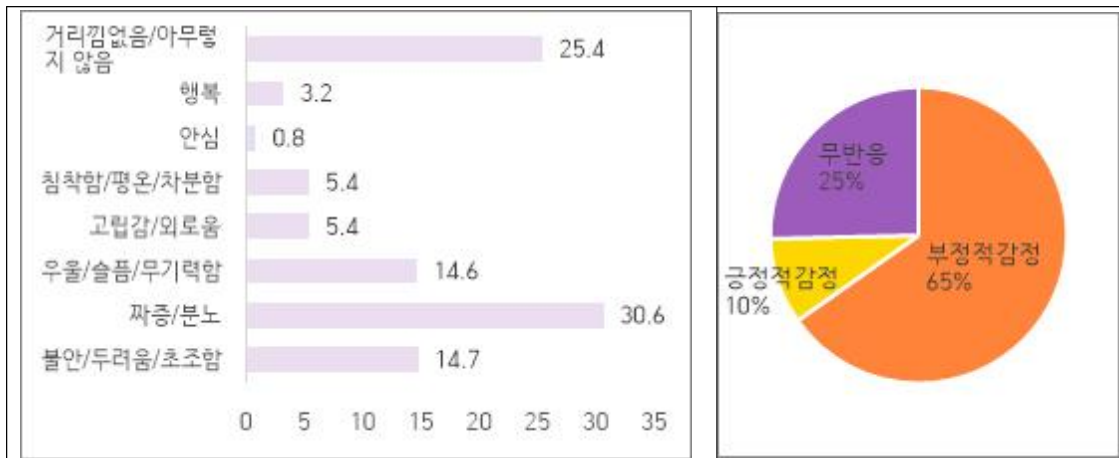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짜증/분노, 불안/두려움/초조함, 우울/슬픔/무기력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3-5>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짜증/분노”라고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거리낌없음/아무렇지않음이라는 응답이 25.4%로 많았음. 반면에 안심(0.8%)되거나 행복(3.2%), 침착함/평온/차분함(5.4%)을 느꼈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음(<표 3-1-5> 참조).
 - 반면, 거리낌없음/아무렇지않음이라는 응답도 많아서 코로나19의 장기

화로 인해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수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음.

<표 3-5>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구분	n	%	정서상태	%
불안/두려움/초조함	385	14.7	부정감정	65.3
짜증/분노	802	30.6		
우울/슬픔/무기력함	384	14.6		
고립감/외로움	142	5.4		
침착함/평온/차분함	142	5.4	긍정감정	9.4
안심	21	0.8		
행복	83	3.2	무반응	25.4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	666	25.4		
전체	2,625	100.0		100.0

<그림 3-1>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짜증과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6> 참조).
 - 남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짜증/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이 30.6%, 불안/두려움/초조함 11.3%, 우울/슬픔/무기력함 9.0% 등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안심 1.0%, 행복 3.6%, 침착함/평온/차분함 5.7%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음.
 - 여학생은 짜증/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이 22.6%, 우울/슬픔/무기력함 17.5%, 불안/

두려움/초조함 16.4% 등으로 나타남.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6>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구분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불안/두려움/초조함	98	11.3	287	16.4	385	14.7
짜증/분노	285	32.9	516	29.4	801	30.6
우울/슬픔/무기력함	78	9.0	306	17.5	384	14.7
고립감/외로움	50	5.8	92	5.2	142	5.4
침착함/평온/차분함	49	5.7	93	5.3	142	5.4
안심	9	1.0	12	0.7	21	0.8
행복	31	3.6	51	2.9	82	3.1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	265	30.6	396	22.6	661	25.2
전체	865	100.0	1,753	100.0	2,618	100.0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은 거리낌없이 아무렇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짜증과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7> 참조).
 - 중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이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짜증/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27.4%, 불안/두려움/초조함 16.1%, 우울/슬픔/무기력함 12.7% 등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안심(0.8%), 행복(3.2%), 침착함/평온/차분함(5.8%)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음.
 - 고등학생은 짜증/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이 22.6%, 우울/슬픔/무기력함 17.8%, 불안/두려움/초조함 13.8% 등으로 나타남. 안심(0.8%), 행복(3.2%), 침착함/평온/차분함(5.4%)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적었음.
 -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7>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불안/두려움/초조함	217	16.1	164	13.8	381	15.0
짜증/분노	370	27.4	354	29.9	724	28.6
우울/슬픔/무기력함	171	12.7	211	17.8	382	15.1
고립감/외로움	66	4.9	76	6.4	142	5.6
침착함/평온/차분함	78	5.8	64	5.4	142	5.6
안심	11	0.8	10	0.8	21	0.8
행복	43	3.2	38	3.2	81	3.2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	393	29.1	268	22.6	661	26.1
전체	989	100.0	799	100.0	1,788	100.0

- 코로나19로 느끼는 감정을 권역별로 확인한 결과, 4개의 권역 모두 짜증/분노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불안/두려움/초조함이 많았고, 우울/슬픔/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많았음. 반면에 안심되거나 행복, 침착함/평온/차분을 느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표 3-8> 참조).

<표 3-8>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불안/두려움/초조함	87 (18.4)	56 (19.4)	167 (22.7)	75 (20.5)	385 (20.6)
짜증/분노	205 (43.2)	125 (43.3)	311 (42.3)	155 (42.3)	796 (42.7)
우울/슬픔/무기력함	80 (16.9)	46 (15.9)	164 (22.3)	93 (25.4)	383 (20.5)
고립감/외로움	28 (5.9)	17 (5.9)	70 (9.5)	27 (7.4)	142 (7.6)
침착함/평온/차분함	37 (7.8)	22 (7.6)	58 (7.9)	25 (6.8)	142 (7.6)
안심	1 (0.2)	5 (1.7)	11 (1.5)	3 (0.8)	20 (1.1)
행복	23 (4.9)	13 (4.5)	35 (4.8)	12 (3.3)	83 (4.5)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	187 (39.5)	114 (39.4)	240 (32.6)	123 (33.6)	664 (35.6)
전체	474 (100.0)	289 (100.0)	736 (100.0)	366 (100.0)	1,865 (100.0)

- 사회의 변화는 사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불러왔음. 이런 변화 가운데 부정적 변화에는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라고 하는데,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에 우울감(blue)이 더해진 신조어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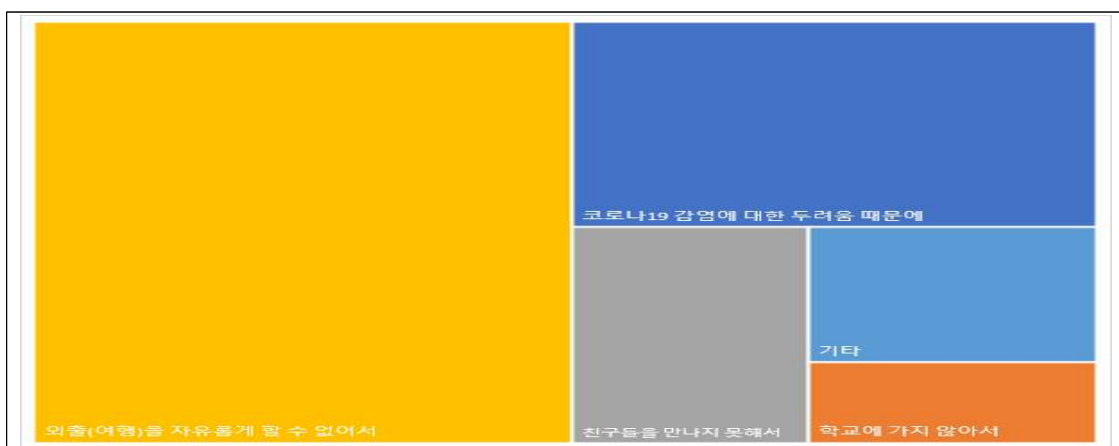
적 거리두기에 의한 고립감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 취업률 하락이 불러온 경제적 위기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용어임. 특히 청소년은 감정 발달 미숙으로 인해 보호자보다 '화·분노'를 2배 이상 많이 표출함에 따라 불안·우울장애 방지를 위해 조기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외출(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가 50.6%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4.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5.2%, 학교에 가지 않아서 5.2%로 나타남. 기타의견은 8.7%였는데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이야기하였음(<표 3-9>, <그림 3-2> 참조).

<표 3-9>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구분	n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43	24.1
학교에 가지 않아서	74	5.2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162	11.4
외출(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719	50.6
기타	124	8.7
전체	1,422	100.0



<그림 3-2>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성별로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외출(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남(<표 3-10> 참조).
 - 성별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낌.

<표 3-10>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87(22.0)	255(30.8)	342(28.0)
학교에 가지 않아서	25(6.3)	49(5.9)	74(6.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44(11.1)	117(14.1)	161(13.2)
외출(여행)이 자유롭게 않음	221(55.9)	497(60.1)	718(58.8)
기타	56(14.2)	68(8.2)	124(10.1)
전체	395(100.0)	827(100.0)	1,222(100.0)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학교급별로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외출(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음, 중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고등학생들보다 많다는 것임.

<표 3-11>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77(29.2)	150(27.0)	327(28.2)
학교에 가지 않아서	14(2.3)	23(4.1)	37(3.2)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83(13.7)	57(10.3)	140(12.1)
외출(여행)이 자유롭게 않음	358(59.1)	351(63.2)	709(61.1)
기타	53(8.7)	62(11.2)	115(9.9)
전체	606(100.0)	555(100.0)	1,161(100.0)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권역별로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 모두 외출(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남(<표 3-12> 참조).
 - 내륙권역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는 응답이, 북부권역은 학교에 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3-12>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3 (25.4)	47 (26.1)	154 (30.9)	68 (27.0)	342 (28.1)
학교에 가지 않아서	23 (8.0)	11 (6.1)	30 (6.0)	9 (3.6)	73 (6.0)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47 (16.4)	28 (15.6)	59 (11.8)	28 (11.1)	162 (13.3)
외출(여행)이 자유롭게 않음	150 (52.3)	105 (58.3)	301 (60.4)	159 (63.1)	715 (58.8)
기타	33 (11.5)	21 (11.7)	41 (8.2)	28 (11.1)	123 (10.1)
전체	287 (100.0)	180 (100.0)	498 (100.0)	252 (100.0)	1,217 (100.0)

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한 결과 학교에 가지 않아서가 27.5%로 가장 많았고, 내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23.6%,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의 증가 16.8%,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7.6%로 나타남. 기타의견도 24.6%였음(<표 3-13>, <그림 3-3> 참조).
 - 기타의견은 대체적으로 코로나19가 2년 정도 지속되면서 위험이나 불안감 등에 익숙해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등의 응답이 많았음.

<표 3-1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구분	n	%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67	7.6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의 증가	148	16.8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208	23.6
학교에 가지 않아서	243	27.5
기타	217	24.6
전체	883	100.0



<그림 3-3>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성별로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에 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순서로 나타남(<표 3-14> 참조).
 - 성별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이 적었음. 이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코로나19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표 3-14>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38(11.5)	29(5.7)	67(7.9)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58(17.6)	86(16.8)	144(17.1)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69(20.9)	138(26.9)	207(24.6)
학교에 가지 않아서	91(27.6)	152(29.6)	243(28.8)
기타	86(26.1)	130(25.3)	216(25.6)
전체	330(100.0)	513(100.0)	843(100.0)

-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학교급별로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교에 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순서로 나타남(<표 3-15> 참조).
 - 학교급별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인지하고 있었음.

<표 3-15>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38(8.1)	18(5.6)	56(7.1)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88(18.6)	57(17.9)	145(18.3)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117(24.8)	83(26.0)	200(25.3)
학교에 가지 않아서	113(23.9)	88(27.6)	201(25.4)
기타	130(27.5)	82(25.7)	212(26.8)
전체	472(100.0)	319(100.0)	791(100.0)

-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권역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16> 참조).
 - 북부권역, 내륙권역은 학교에 가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기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순서로 나타남.
 - 서해안권역은 기타의견이 가장 많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

서, 학교에 가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순서로 응답함.

- 남부권역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기타, 학교에 가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순서였음.

<표 3-16>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의 요인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전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17 (7.1)	7 (5.0)	26 (8.3)	16 (10.5)	66 (7.8)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의 증가	44 (18.5)	30 (21.4)	52 (16.5)	22 (14.5)	148 (17.5)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49 (20.6)	39 (27.9)	76 (24.1)	44 (28.9)	208 (24.6)
학교에 가지 않아서	71 (29.8)	31 (22.1)	105 (33.3)	36 (23.7)	243 (28.8)
기타	63 (26.5)	43 (30.7)	68 (21.6)	41 (27.0)	215 (25.4)
전체	238 (100.0)	140 (100.0)	315 (100.0)	152 (100.0)	845 (100.0)

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삶의 이슈가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변화가 있다는 58.4%, 변화가 없다는 41.6%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과반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삶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표 3-17> 참조).

<표 3-17>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n	%	n	%
1,016	58.4	726	41.6



변화가 있다 58.4

변화가 없다 41.6

■ 변화가 없다 ■ 변화가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삶의 이슈가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54.4%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여자청소년은 60.5%가 변화했다고 응답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가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코로나로 인한 감정, 삶의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표 3-18> 참조).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56.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고등학생은 61.4%가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 권역별에 따라서는 북부권역 60.0%, 서해안권역 57.2%, 내륙권역 56.7%, 남부권역 60.4%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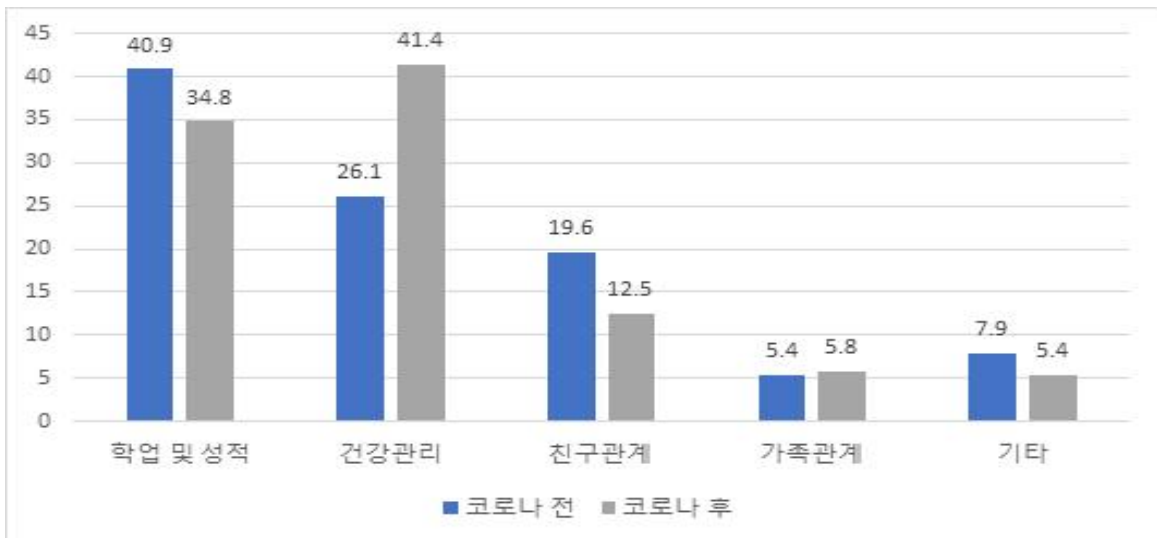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합계
성별	남자	345(54.6)	287(45.4)	632(100.0)
	여자	670(60.5)	438(39.5)	1,108(100.0)
학교급	중학생	530(56.0)	416(44.0)	946(100.0)
	고등학생	478(61.4)	301(38.6)	779(100.0)
권역	북부	262(60.0)	175(40.0)	437(100.0)
	서해안	151(57.2)	113(42.8)	264(100.0)
	내륙	387(56.7)	295(43.3)	682(100.0)
	남부	215(60.4)	141(39.6)	356(100.0)

-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의 가장 큰 이슈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19>, <그림 3-4> 참조).
 - 코로나19 전에는 학업 및 성적(40.9%)이 가장 중요했으나 코로나19 후에는 건강관리(41.4%)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변화했는데 코로나19 전에는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26.1%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41.4%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9>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구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증감률
	n	%	n	%	
학업 및 성적	413	40.9	323	34.8	-6.1
건강관리	264	26.1	384	41.4	15.3
친구관계	198	19.6	116	12.5	-7.1
가족관계	55	5.4	54	5.8	0.4
기타	80	7.9	50	5.4	-2.5
전체	1,010	100.0	927	100.0	



<그림 3-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이슈를 코로나19 전과 후로 비교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코로나19 전에는 학업 및 성적이 가장 중요했으나 코로나19 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3-20> 참조).
 - 남자청소년은 학업 및 성적이 36.1%→32.2%로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9.6%→47.7%로 증가하였음. 여자청소년은 학업 및 성적이 44.9%→37.1%로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5.0%→39.1%로 증가하였음.
 - 주목할 점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임.

<표 3-20>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학업 및 성적	128(36.1)	106(32.2)	284(44.9)	215(37.1)
건강관리	105(29.6)	157(47.7)	158(25.0)	227(39.1)
친구관계	72(20.3)	37(11.2)	125(19.7)	78(13.4)
가족관계	21(5.9)	12(3.6)	34(5.4)	42(7.2)
기타	35(9.9)	23(7.0)	45(7.1)	27(4.7)
전체	355(100.0)	329(100.0)	633(100.0)	580(100.0)

○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이슈를 코로나19 전과 후로 비교한 결과를 학교급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코로나19 전에는 학업 및 성적이 가장 중요했으나 코로나19 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었음(<표 3-21> 참조)..

- 중학생은 학업 및 성적이 35.9%→34.1%로 약간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6.2%→43.1%로 크게 증가하였음. 고등학생은 학업 및 성적이 45.2%→36.9%로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4.7%→41.2%로 증가하였음.
- 주목할 점은, 중학생이 코로나19 전과 후에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임.

<표 3-21> 학교급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여부

단위: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학업 및 성적	170(35.9)	159(34.1)	198(45.2)	163(36.9)
건강관리	124(26.2)	201(43.1)	108(24.7)	182(41.2)
친구관계	121(25.6)	66(14.2)	77(17.6)	49(11.1)
가족관계	27(5.7)	30(6.4)	25(5.7)	23(5.2)
기타	50(10.6)	25(5.4)	30(6.8)	25(5.7)
전체	473(100.0)	466(100.0)	438(100.0)	442(100.0)

-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이슈를 코로나19 전과 후로 비교한 결과를 권역별로 확인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학업 및 성적이 가장 중요했으나 코로나19 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었음 (<표 3-22> 참조)..
 - 북부권역은 학업 및 성적이 40.9%→29.4%로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6.1%→47.6%로 크게 증가하였고, 서해안권역은 학업 및 성적이 38.7%→25.7%로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5.2%→46.4%로 증가하였음. 내륙권역은 학업 및 성적이 43.7%→41.0%로 약간 감소하였고, 건강관리가 27.6%→37.0%로 증가하였으며, 남부권역은 학업 및 성적이 41.3%→41.5%로 약간 증가하였고, 건강관리가 26.6%→40.4%로 증가했음.
 - 내륙권과 남부권역은 코로나19 전과 후에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은 다른 권역과 유사했으나 코로나19 전과 후에 학업 및 성적이 중요하다는 응답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2> 권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이슈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학업 및 성적	108 (40.9)	74 (29.4)	63 (38.7)	36 (25.7)	163 (43.7)	132 (41.0)	76 (41.3)	80 (41.5)
건강관리	69 (26.1)	120 (47.6)	41 (25.2)	65 (46.4)	103 (27.6)	119 (37.0)	49 (26.6)	78 (40.4)
친구관계	59 (22.3)	36 (14.3)	32 (19.6)	22 (15.7)	62 (16.6)	37 (11.5)	44 (23.9)	20 (10.4)
가족관계	12 (4.5)	12 (4.8)	6 (3.7)	8 (5.7)	20 (5.4)	21 (6.5)	16 (8.7)	13 (6.7)
기타	21 (8.0)	16 (6.3)	21 (12.9)	9 (6.4)	28 (7.5)	15 (4.7)	10 (5.4)	9 (4.7)
전체	264 (100.0)	252 (100.0)	163 (100.0)	140 (100.0)	373 (100.0)	322 (100.0)	184 (100.0)	193 (100.0)

5)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감염, 사망 등 절망적인 예측과 흥미 위주의 뉴스 보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박한선, 2015), 개인 방역 장비나 비상식량 등에 대한 사재기를 하기도 함. 또한 감염의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피하거나(박한선, 2020), 의심이 많아져서 주위사람들을 경계하고 외출과 외부활동을 줄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개인 및 공적 일정을 취소하기도 함. 특히,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재인용),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보다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함(이동훈 외, 2016재인용).

- 본 연구에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확인한 결과,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3.17(SD=.96)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음(<표 3-23> 참조).
 - 남자청소년은 2.92(SD=1.03)고, 여자청소년은 3.31(SD=.89)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t=-8.400, p<.000$).
 - 중학생은 3.15(SD=.95)였고 고등학생은 3.19(SD=.98)로 학교급별 차이는 유사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 북부권역은 3.02(SD=.96), 서해안권역은 3.14(SD=.97), 내륙권역은 3.28(SD=.93), 남부권역은 3.16(SD=.98)으로 내륙권역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F=6.757, p<.000$).

<표 3-23>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92	1.03	-8.400***	
	여자	3.31	.89		
교급별	중학생	3.15	.95	-.757	
	고등학생	3.19	.98		
권역별	북부 A	3.02	.96	6.757***	A<C***
	서해안 B	3.14	.97		
	내륙 C	3.28	.93		
	남부 D	3.16	.98		
전체		3.17	.96		

*** $p<.000$

6)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검사’,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확인한 결과,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2.00(SD=.95)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음(<표 3-24> 참조).
 - 남자청소년은 1.83(SD=.92)였고, 여자청소년은 2.10(SD=.95)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t=-5.963, p<.000$).
 - 중학생은 1.91(SD=.90)였고 고등학생은 2.09(SD=1.01)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t=-3.757, p<.000$)
 - 북부권역 1.94(SD=.94), 서해안권역 1.94(SD=.90), 내륙권역 2.08(SD=.97), 남부권역 1.95(SD=.97)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3-24>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1.83	.92	-5.963***	
	여자	2.10	.95		
교급별	중학생	1.91	.90	-3.757***	
	고등학생	2.09	1.01		
권역별	북부 A	1.94	.94	3.161	N.S
	서해안 B	1.94	.90		
	내륙 C	2.08	.97		
	남부 D	1.95	.97		
전체		2.00	.95		

*** $p<.000$

3.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실태

1)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활용

-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으로 확인한 결과,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3.25(SD=1.17)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음(<표 3-25> 참조).
 - 남자청소년은 3.39(SD=1.20)였고, 여자청소년은 3.16(SD=1.15)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t=-4.170, p<.000$).
 - 중학생은 3.38(SD=1.10)이고 고등학생은 3.17(SD=1.2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t=-3.868, p<.000$)
 - 북부권역은 3.29(SD=1.21), 서해안권역은 3.27(SD=1.19), 내륙권역은 3.19(SD=1.15), 남부권역은 3.31(SD=1.14)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3-25>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활용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3.39	1.20	4.170***	
	여자	3.16	1.15		
교급별	중학생	3.38	1.10	3.868***	
	고등학생	3.17	1.21		
권역별	북부 A	3.29	1.21	1.159	N.S
	서해안 B	3.27	1.19		
	내륙 C	3.19	1.15		
	남부 D	3.31	1.14		
전체		3.25	1.17		

2)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에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1-3순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26> 참조).
 - 1순위에서는 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의 ‘스마트폰’이 53.8%로 가장 많았고 게임, 채팅, 인터넷 서핑 등의 ‘PC’도 21.1%로 많았음.
 - 2순위에서는 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의 ‘스마트폰’이 2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낮잠’이 13.5%로 나타남.
 - 3순위에서는 ‘낮잠’이 1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TV시청’이 12.1%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교류 활동·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임.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충남청소년들은 코로나19이후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활동에서 ‘청소년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활동과 같은 단체활동과 기관활동이 중단되었지만 비대면(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임.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효율성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도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 규칙적인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따라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즐거운 취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률, 이용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개인별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 대비 2.7시간 증가한 20.1시간(주 평균)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청소년은 지난해보다 13.2% 증가했음.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함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PC) 이용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3-26>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PC	393	21.1	165	9.4	84	4.8
스마트폰	1,000	53.8	439	24.9	95	5.4
TV시청	67	3.6	191	10.8	212	12.1
운동	79	4.2	98	5.6	159	9.1
영화 및 공연관람	46	2.5	72	4.1	81	4.6
독서	30	1.6	59	3.3	78	4.5
청소년활동	2	0.1	13	0.7	19	1.1
거리구경 및 쇼핑	3	0.2	16	0.9	33	1.9
낮잠	58	3.1	238	13.5	234	13.4
아르바이트	4	0.2	9	0.5	21	1.2
노래방	3	0.2	15	0.9	42	2.4
자원봉사		-	4	0.2	6	0.3
친구들과 대화	16	0.9	110	4.2	168	9.6
종교활동	1	0.1	1	0.1	19	1.1
온라인 학습	34	1.8	46	2.6	69	3.9
가족과 보내는 시간	47	2.5	130	7.4	159	9.1
취미활동	57	3.1	144	8.2	222	12.7
기타	19	1.0	14	0.8	50	2.9
전체	2,000	100.0	1,764	100.0	1,751	100.0

○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성별에 따라 확인하였음(<표 3-27> 참조).

- 남자청소년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의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3순위에서는 운동, 낮잠, 취미 활동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여자청소년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의 ‘스마트폰’ 이 가장 많았고 3순위에서는 낮잠이 가장 많았음.
- 여가시간에 청소년활동

<표 3-27> 성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구분	남자						여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PC	250	36.9	81	12.5	35	5.4	143	12.1	84	7.5	48	4.4
스마트폰	261	38.6	237	36.6	43	6.7	737	62.6	202	18.1	52	4.7
TV시청	26	3.8	50	7.7	68	10.5	41	3.5	141	12.7	144	13.1
운동	43	6.4	62	9.6	83	12.9	36	3.1	36	3.2	75	6.8
영화 및 공연 관람	20	3.0	26	4.0	37	5.7	26	2.2	46	4.1	44	4.0
독서	11	1.6	19	2.9	26	4.0	17	1.4	40	3.6	52	4.7
청소년활동	1	0.1	3	0.5	6	0.9	1	0.1	10	0.9	13	1.2
거리구경 및 쇼핑	1	1.8	4	0.6	10	1.6	2	0.2	11	1.0	23	2.1
낮잠	12	0.1	42	6.5	83	12.9	46	3.9	196	17.6	150	13.6
아르바이트	1	0.1	1	0.2	3	0.5	3	0.3	8	0.7	18	1.6
노래방	1	1.0	4	0.6	16	2.5	2	0.2	11	1.0	26	2.4
자원봉사	-	-	-	-	2	0.3	-	-	4	0.4	4	0.4
친구들과 대화	7	0.1	26	4.0	53	8.2	9	0.8	83	7.5	114	10.4
종교활동	1	2.1	-	-	7	1.1	-	-	1	0.1	12	1.1
온라인 학습	14	1.5	13	2.0	26	4.0	20	1.7	33	3.0	43	3.9
가족과 보는 시간	10	1.5	36	5.6	42	6.5	37	3.1	92	8.3	117	10.6
취미활동	12	1.8	39	6.0	83	12.9	45	3.8	105	9.4	138	12.5
기타	6	0.9	4	0.6	22	3.4	12	1.0	10	0.9	28	2.5
전체	677	100.0	647	100.0	645	100.0	1,177	100.0	1,113	100.0	1,101	100.0

-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음(<표 3-28> 참조).
 -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순위와 2순위에서 ‘스마트폰’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3순위에서는 낮잠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표 3-28>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PC	213	21.8	72	7.4	37	3.9	171	21.5	92	11.7	45	5.7

스마트폰	527	54.0	241	24.9	51	5.3	458	57.5	193	24.5	43	5.5
TV시청	26	2.7	103	10.6	110	11.5	18	2.3	88	11.2	102	13.0
운동	34	3.5	47	4.9	88	9.2	20	2.5	51	6.5	70	8.9
영화 및 공연 관람	16	1.6	32	3.3	38	4.0	18	2.3	40	5.1	43	5.5
독서	16	1.6	39	4.0	49	5.1	13	1.6	20	2.5	29	3.7
청소년활동	2	0.2	11	1.1	17	1.8	-	-	2	0.3	2	0.3
거리구경 및 쇼핑	1	0.1	5	0.5	20	2.1	2	0.3	10	1.3	13	1.7
낮잠	27	2.8	113	11.7	119	12.4	31	3.9	124	15.8	114	14.5
아르바이트	2	0.2	3	0.3	4	0.4	2	0.3	6	0.8	17	2.2
노래방	3	0.3	13	1.3	24	2.5	-	-	2	0.3	16	2.0
자원봉사	-	-	2	0.2	4	0.4	-	-	2	0.3	2	0.3
친구들과 대화	10	1.0	78	8.0	107	11.2	6	0.8	32	4.1	59	7.5
종교활동	1	0.1	1	0.1	15	1.6	-	-	-	-	4	0.5
온라인 학습	17	1.7	21	2.2	28	2.9	17	2.1	25	3.2	41	5.2
가족과 보는 시간	30	3.1	84	8.7	87	9.1	16	2.0	46	5.8	72	9.2
취미활동	41	4.2	94	9.7	130	13.6	16	2.0	50	6.4	92	11.7
기타	10	1.0	10	1.0	30	3.1	8	1.0	4	0.5	20	2.6
전체	677	100.0	969	100.0	958	100.0	796	100.0	787	100.0	784	100.0

○ 권역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음(<표 3-29> 참조).

- 북부권역과 내륙권역은 모두 1순위와 2순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3순위에서는 낮잠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서해안권역은 1순위와 2순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순위에서는 ‘TV시청’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남부권역은 1순위와 2순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순위에서는 ‘낮잠’과 ‘취미활동’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표 3-29>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PC	123	26.0	50	11.3	25	5.6	66	23.1	19	7.1	15	5.6	136	18.7	53	7.7	27	4.0	66	18.1	43	11.9	17	4.8
스마트폰	217	45.9	127	28.6	33	7.4	151	52.8	73	27.2	13	4.9	428	58.8	152	22.2	31	4.6	204	56.0	85	23.5	17	4.8
TV시청	18	3.8	49	11.0	42	9.5	6	2.1	39	14.6	39	14.6	29	4.0	70	10.2	85	12.5	13	3.6	33	9.1	44	12.3
운동	30	6.3	28	6.3	42	9.5	11	3.8	8	3.0	24	9.0	24	3.3	37	5.4	54	8.0	11	3.0	24	6.6	38	10.6
영화 및 공연 관람	17	3.6	19	4.3	21	4.7	9	3.1	12	4.5	14	5.2	14	1.9	29	4.2	33	4.9	6	1.6	12	3.3	13	3.6
독서	2	0.4	10	2.3	21	4.7	11	3.8	11	4.1	17	6.4	9	1.2	25	3.6	30	4.4	8	2.2	13	3.6	10	2.8
청소년활동	2	0.4	5	1.1	4	0.9	-	-	-	-	2	0.7	-	-	5	0.7	11	1.6	-	-	3	0.8	2	0.6
가정환경 및 쇼핑	1	0.2	5	1.1	8	1.8	-	-	1	0.4	5	1.9	1	0.1	8	1.2	12	1.8	1	0.3	2	0.6	8	2.2
낮잠	14	3.0	44	9.9	57	12.8	8	2.8	30	11.2	39	14.6	24	3.3	114	16.6	88	13.0	11	3.0	50	13.9	50	14.0
아르바이트	1	0.2	-	-	4	0.9	2	0.7	1	0.4	7	2.6	1	0.1	5	0.7	8	1.2	-	-	3	0.8	2	0.6
노래방	-	-	3	0.7	11	2.5	1	0.3	2	0.7	3	1.1	-	-	5	0.7	19	2.8	2	0.5	5	1.4	9	2.5
자원봉사	-	-	2	0.5	1	0.2	-	-	1	0.4	1	0.4	-	-	1	0.1	4	0.6	-	-	-	-	-	-
친구들과 대화	3	0.6	25	5.6	39	8.8	2	0.7	16	6.0	27	10.1	6	0.8	47	6.9	68	10.0	5	1.4	21	5.8	34	9.5
종교활동	1	0.2	1	0.2	3	0.7	-	-	-	-	2	0.7	-	-	-	-	12	1.8	-	-	-	-	2	0.6
온라인 학습	14	3.0	15	3.4	23	5.2	1	0.3	4	1.5	5	1.9	11	1.5	15	2.2	27	4.0	7	1.9	12	3.3	14	3.9
가족과 보내는 시간	12	2.5	33	7.4	41	9.2	5	1.7	18	6.7	16	6.0	20	2.7	56	8.2	68	10.0	10	2.7	22	6.1	34	9.5
취미활동	13	2.7	26	5.9	59	13.3	10	3.5	26	9.7	31	11.6	19	2.6	61	8.9	81	11.9	15	4.1	31	8.6	50	14.0
기타	5	1.1	2	0.5	10	2.3	3	1.0	7	2.6	7	2.6	6	0.8	3	0.4	20	2.9	5	1.4	2	0.6	13	3.6
전체	473	100.0	444	100.0	444	100.0	286	100.0	268	100.0	267	100.0	728	100.0	686	100.0	678	100.0	364	100.0	361	100.0	357	100.0

3) 코로나19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1-3순위로 확인하였음(<표 3-30> 참조).
 - 1순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관리’라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외부활동제한’이 23.9%로 많았음.
 - 2순위에서는 ‘외부활동제한’이 25.0%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관리’라는 응답이 15.5%로 나타남.
 - 3순위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20.8%로 가장 많았고, ‘외부활동제한’이 16.9%로 많았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음. 코로나와 연관된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에 대한 외로움 등이 영향을 미침.

<표 3-30>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온라인 비대면 교육	150	8.1	56	3.1	78	4.5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착용 등)	612	33.0	275	15.5	155	9.0
외부활동 제한	444	23.9	444	25.0	292	16.9
친구를 만나지 못함	182	9.8	233	13.1	143	8.3
생활패턴 불규칙	134	7.2	199	11.2	193	11.2
막연한 걱정과 불안	28	1.5	54	3.0	64	3.7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성 및 경계	86	4.6	210	11.8	215	12.5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126	6.8	217	12.2	359	20.8
학업/진로의 불확실성	28	1.5	34	1.9	56	3.2
가정내 갈등	20	1.1	14	0.8	44	2.6
없음	42	2.3	38	2.1	121	7.0
기타	2	0.1	5	0.3	4	0.2
합계	1,854	100.0	1,779	100.0	1,724	100.0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음(<표 3-31> 참조).
 -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1순위에서 '개인위생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외부활동제한', 3순위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음.

<표 3-31> 성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구분	남자						여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온라인 비대면 교육	59	8.7	16	2.5	33	5.3	91	7.8	39	3.5	45	4.1
개인위생관리	272	40.2	103	15.9	46	7.4	339	28.9	172	15.3	109	10.0
외부활동 제한	122	18.0	178	27.5	119	19.0	322	27.5	264	23.4	173	15.8
친구를 만나지 못함	57	8.4	79	12.2	56	9.0	125	10.7	153	13.6	87	8.0
생활패턴 불규칙 막연한	50	7.4	76	11.7	74	11.8	83	7.1	1223	10.9	118	10.8
걱정과 불안 감염 위험성 및 경계	6	0.9	19	2.9	12	1.9	22	1.9	34	3.0	52	4.8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26	3.8	70	10.8	60	9.6	59	5.0	140	12.4	154	14.1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44	6.5	77	11.9	123	19.7	82	7.0	140	12.4	234	21.4
학업/진로의 불확실성	6	0.9	9	1.4	21	3.4	22	1.9	25	2.2	35	3.2
가정내 갈등	5	0.7	4	0.6	17	2.7	14	1.2	10	0.9	27	2.5
없음	27	4.0	14	2.2	60	9.6	14	1.2	24	2.1	60	5.5
기타	2	0.3	2	0.3	4	0.6	-	-	3	0.3	-	-
합계	676	100.0	647	100.0	625	100.0	1,173	100.0	1,127	100.0	1,094	100.0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교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음(<표 3-32> 참조).
 -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순위에서 '개인위생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외부활동제한', 3순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음.

<표 3-32>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온라인 비대면 교육	75	7.7	21	2.2	28	3.1	66	8.3	27	3.5	42	5.5
개인위생관리	308	31.6	141	15.1	79	8.7	247	31.0	119	15.2	71	9.3
외부활동 제한	224	23.0	220	23.5	144	15.8	218	27.4	213	27.3	140	18.4
친구를 만나지 못함	107	11.0	123	13.1	82	9.0	75	9.4	104	13.3	61	8.0
생활패턴 불규칙 막연한	76	7.8	110	11.8	92	10.1	56	7.0	82	10.5	96	12.6
걱정과 불안 감염 위험성 및 경계	13	1.3	35	3.7	26	2.9	13	1.6	18	2.3	33	4.3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47	4.8	116	12.4	119	13.1	39	4.9	94	12.0	95	12.5
학업/진로의 불확실성	67	6.9	116	12.4	201	22.1	59	7.4	97	12.4	156	20.5
가정내 갈등	12	1.2	14	1.5	19	2.1	9	1.1	12	1.5	22	2.9
없음	14	1.4	7	0.7	24	2.6	5	0.6	7	0.9	19	2.5
없음	30	3.1	29	3.1	94	10.3	10	1.0	7	0.9	24	3.2
기타	2	0.2	4	0.4	3	0.3	-	-	1	0.1	1	0.1
합계	975	1000	936	1000	911	1000	797	1000	781	1000	760	1000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권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음(<표 3-33> 참조).
 -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 모두 1순위에서 '개인위생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외부활동제한', 3순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음.

<표 3-33>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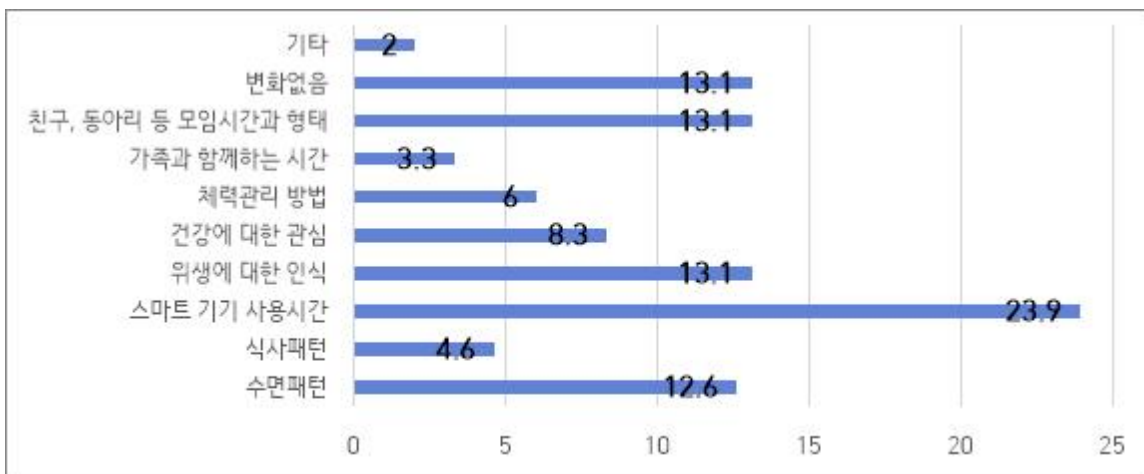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온라인 비대면 교육	53	11.3	17	3.8	25	5.7	18	6.3	12	4.4	11	4.1	50	6.9	19	2.8	27	4.0	29	8.0	8	2.2	15	4.3
개인위생관리	152	32.4	71	15.7	31	7.1	97	33.9	39	14.2	28	10.5	226	31.0	110	16.0	63	9.4	133	36.6	54	15.1	32	9.2
외부활동 제한	101	21.5	106	23.5	81	18.5	77	26.9	61	22.2	43	16.2	194	26.6	174	25.3	108	16.2	70	19.3	102	28.6	58	16.8
친구를 만나지 못함	51	10.9	62	13.7	40	9.1	24	8.4	38	13.8	25	9.4	71	9.8	84	12.2	50	7.5	35	9.6	49	13.7	26	7.5
생활패턴 불규칙 막연한	38	8.1	55	12.2	48	11.0	18	6.3	33	12.0	38	14.3	44	6.0	70	10.2	64	9.6	33	9.1	38	10.6	43	12.4
걱정과 불안 감염 및 위험성 경계	4	0.9	17	3.8	16	3.7	3	1.0	4	1.5	9	3.4	11	1.5	24	3.5	28	4.2	10	2.8	9	2.5	11	3.2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31	6.6	47	10.4	86	19.6	18	6.3	41	14.9	46	17.3	55	7.6	83	12.0	156	23.4	22	6.1	45	12.6	71	20.5
학업/진로의 불확실성	5	1.1	8	1.8	17	3.9	4	1.4	5	1.8	8	3.0	12	1.6	14	2.0	25	3.7	7	1.9	7	2.0	6	1.7
가정내 갈등	3	0.6	3	0.7	17	3.9	5	1.7	3	1.1	2	0.8	11	1.5	5	0.7	14	2.1	1	0.3	3	0.8	10	2.9
없음	13	2.8	11	2.4	37	8.4	8	2.8	7	2.5	25	9.4	16	2.2	15	2.2	35	5.2	5	1.4	5	1.4	24	6.9
기타	-	-	1	0.2	1	0.2	2	0.7	1	0.4	1	0.4	-	-	1	0.1	2	0.3	-	-	2	0.6	-	-
합계	469	100.0	451	100.0	438	100.0	286	100.0	275	100.0	266	100.0	728	100.0	689	100.0	668	100.0	363	100.0	357	100.0	346	100.0

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코로나19로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이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음(<표 3-34> 참조).
-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3.9%), 위생에 대한 인식(13.1%),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3.1%)가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3.1%로 나타남.

<표 3-34>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삶의 변화

구분	n	%
수면패턴	261	12.6
식사패턴	95	4.6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495	23.9
위생에 대한 인식	272	13.1
건강에 대한 관심	173	8.3
체력관리 방법	125	6.0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68	3.3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	271	13.1
변화없음	272	13.1
기타	42	2.0
합계	2,074	100.0



<그림 3-5>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삶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스마트 기기 사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35> 참조).
 - 남자청소년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4.6%), 수면패턴(15.7%), 위생에 대한 인식(11.7%),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1.6%)가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8.8%였음
 - 여자청소년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위생에 대한 인식(16.5%),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6.5%), 수면패턴(13.3%)이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2.3%로 나타남.

<표 3-35> 성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구분	남자		여자	
	n	%	n	%
수면패턴	106	15.7	155	13.3
식사패턴	29	4.3	66	5.7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166	24.6	328	28.1
위생에 대한 인식	79	11.7	193	16.5
건강에 대한 관심	63	9.3	110	9.4
체력관리 방법	51	7.6	73	6.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27	4.0	41	3.5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	78	11.6	192	16.5
변화없음	127	18.8	143	12.3
기타	17	2.5	25	2.1
합계	675	100.0	1,167	100.0

-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스마트 기기 사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36> 참조).
 - 중학생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7.6%), 수면패턴(12.5%), 위생에 대한 인식(12.2%),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2.1%)가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6.6%로 나타남.

- 고등학생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면패턴(16.3%), 위생에 대한 인식(16.1%),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5.8%)이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3.3%였음.

<표 3-36> 학교급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수면패턴	121	12.5	130	16.3
식사패턴	33	3.4	20	2.5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267	27.6	180	22.6
위생에 대한 인식	118	12.2	128	16.1
건강에 대한 관심	78	8.1	67	8.4
체력관리 방법	64	6.6	51	6.4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33	3.4	15	1.9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	117	12.1	126	15.8
변화없음	161	16.6	106	13.3
기타	18	2.0	15	1.9
합계	967	100.0	797	100.0

-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를 권역에 따라 확인한, 모든 권역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장 많았음(<표 3-37> 참조).
 - 북부권역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8.9%), 수면패턴(17.8%),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4.0%), 위생에 대한 인식(13.4%)가 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3.2%임.
 - 서해안권역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30.3%)이 가장 많았고, 위생에 대한 인식(12.7%),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1.7%), 수면패턴(11.3%)이 변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1.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음.
 - 내륙권역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5.0%),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7.1%), 위생에 대한 인식(16.4%), 수면패턴(12.0%)이 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4.6%였음.

- 남부권역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25.2%), 수면패턴(15.8%), 위생에 대한 인식(14.7%),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13.3%)가 변했다고 인식하였음.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12.2%였음.

<표 3-37>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삶의 변화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수면패턴	84	17.8	32	11.3	87	12.0	57	15.8
식사패턴	28	5.9	20	7.1	33	4.6	12	3.3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136	28.9	85	30.3	181	25.0	94	25.2
위생에 대한 인식	63	13.4	36	12.7	119	16.4	53	14.7
건강에 대한 관심	42	8.9	23	8.1	75	10.4	31	8.6
체력관리 방법	35	7.4	20	7.1	48	6.6	22	6.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17	3.6	15	5.3	25	3.5	9	2.5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	66	14.0	33	11.7	124	17.1	48	13.3
변화없음	62	13.2	60	21.2	106	14.6	44	12.2
기타	11	2.3	4	1.4	20	2.8	5	1.4
합계	471	100.0	283	100.0	724	100.0	361	100.0

5)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

-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심리상담(33.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표 3-38> 참조).
 -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33.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활동참여(18.3%), 학습지원(17.5%), 스마트 기기 지원(11.6%)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코로나 레드(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를 경험하기도 함. 이제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단편적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음 방역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

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충남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건강지원이 요구됨.

<표 3-38>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구분	n	%
학습지원	261	17.5
식사지원	95	6.4
심리상담	495	33.2
다양한 활동 참여	272	18.3
스마트 기기 지원	173	11.6
정보공유 (안전관련 정보, 대면/비대면 활동 기관정보 등)	125	8.4
기타	68	4.6
합계	1,489	100.0



<그림 3-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심리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3-39> 참조).
 - 남자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35.2%)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원(22.5%), 다양한 활동참여(16.8%), 스마트 기

- 기 지원(13.4%), 정보공유(10.8%)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여자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38.8%)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활동참여(22.8%), 학습지원(18.3%), 스마트 기기 지원(13.0%), 정보공유(8.6%)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표 3-39> 성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구분	남자		여자	
	n	%	n	%
학습지원	106	22.5	155	18.3
식사지원	29	6.2	66	7.8
심리상담	166	35.2	328	38.8
다양한 활동 참여	79	16.8	193	22.8
스마트 기기 지원	63	13.4	110	13.0
정보공유	51	10.8	73	8.6
기타	27	5.7	41	4.8
합계	471	100.0	846	100.0

-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심리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표 3-40> 참조).
 - 중학생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39.4%)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원(17.8%), 다양한 활동참여(17.4%), 스마트 기기 지원(11.5%), 정보공유(9.4%)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고등학생은 심리상담(32.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원(23.1%), 다양한 활동참여(22.8%), 스마트 기기 지원(11.9%), 정보공유(9.1%)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3-40> 학교급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학습지원	121	17.8	130	23.1
식사지원	33	4.9	20	3.6
심리상담	267	39.4	180	32.0

다양한 활동 참여	118	17.4	128	22.8
스마트 기기 지원	78	11.5	67	11.9
정보공유	64	9.4	51	9.1
기타	33	4.9	15	2.7
합계	678	100.0	562	100.0

-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권역 모두 심리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서해안권역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표 3-41> 참조).
 - 북부권역은 심리상담(39.1%)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습지원(24.1%), 다양한 활동참여(18.1%), 스마트 기기 지원(12.1%), 정보공유(10.1%) 등이 필요하다고 함.
 - 서해안권역은 심리상담(4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다양한 활동참여(18.5%), 학습지원(16.4%), 스마트 기기 지원(11.8%), 식사지원(10.3%), 정보공유(10.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심리상담(3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활동참여(23.8%), 학습지원(17.4%), 스마트 기기 지원(15.0%), 정보공유(9.6%) 등이 필요하다고 함.
 - 북부권역은 심리상담(34.0%)이 가장 많았고, 학습지원(21.3%), 다양한 활동참여(19.8%), 스마트기기 지원(11.6%), 정보공유(8.2%) 등이 필요함.

<표 3-41>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학습지원	84	24.1	32	16.4	87	17.4	57	21.3
식사지원	28	8.0	20	10.3	33	6.6	12	4.5
심리상담	136	39.1	85	43.6	181	36.1	91	34.0
다양한 활동 참여	63	18.1	36	18.5	119	23.8	53	19.8
스마트 기기 지원	42	12.1	23	11.8	75	15.0	31	11.6
정보공유	35	10.1	20	10.3	48	9.6	22	8.2
기타	17	4.9	15	7.7	25	5.0	9	3.4
합계	348	100.0	195	100.0	501	100.0	268	100.0

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을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3.30(SD=.92)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음(<표 3-42> 참조).
 - 남자청소년은 2.97(SD=.97)이었고, 여자청소년은 3.49(SD=.84)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t=-12.113, p<.001$).
 - 중학생은 3.16(SD=.84)이고 고등학생은 3.46(SD=.9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음($t=-6.702, p<.001$).
 - 북부권역은 3.25(SD=.94), 서해안권역은 3.18(SD=.95), 내륙권역은 3.40(SD=.89), 남부권역은 3.27(SD=.94)로 내륙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F=5.107, p<.001$).

<표 3-4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97	.97	-12.113***	
	여자	3.49	.84		
교급별	중학생	3.16	.89	-6.702***	
	고등학생	3.46	.94		
권역별	북부 A	3.25	.94	5.107**	A<C* B<C**
	서해안 B	3.18	.95		
	내륙 C	3.40	.89		
	남부 D	3.27	.94		
전체		3.30	.92		

*** $p<.001$, ** $p<.01$

7) 코로나19 이후 생활만족도

- 코로나19로 생활만족도를 1점(매우불만족) - 5점(매우만족)으로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2.90(SD=.98)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음(<표 3-43> 참조).
 - 남자청소년은 2.96(SD=1.05)이었고, 여자청소년은 2.86(SD=.94)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t=2.131, p<.05$).
 - 중학생은 2.95(SD=.97)이고 고등학생은 2.79(SD=.97)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t=3.378, p<.01$).
 - 북부권역은 2.95(SD=1.02), 서해안권역은 2.94(SD=.95), 내륙권역은 2.86(SD=.89), 남부권역은 2.90(SD=.99)로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표 3-43> 코로나19 이후 생활만족도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96	1.05	2.131*	
	여자	2.86	.94		
교급별	중학생	2.95	.97	3.378**	
	고등학생	2.79	.97		
권역별	북부 A	2.95	1.02	.792	N.S
	서해안 B	2.94	.95		
	내륙 C	2.86	.97		
	남부 D	2.90	.99		
전체		2.90	.98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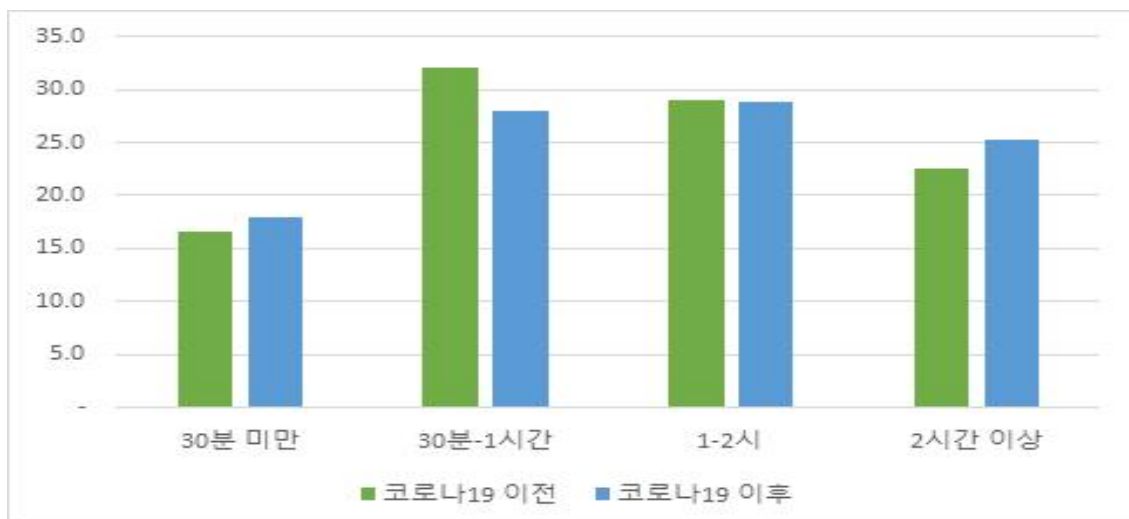
4.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가족관계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30분-1시간이 32.0%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음(<표 3-44> 참조).
- 주목할 점은,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에 30분-1시간, 1-2시간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30분 미만과 2시간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임.

<표 3-4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변화률
	n	%	n	%	
30분 미만	307	16.5	335	18.0	1.5
30분-1시간	594	32.0	522	28.0	-4
1-2시간	540	29.0	539	28.9	-0.1
2시간 이상	418	22.5	470	25.2	2.7
합계	1,859	100.0	1,866	100.0	



<그림 3-7>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45> 참조).
 - 남자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30분-1시간이 36.3%로 가장 많았음.
 - 여자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2시간이 30.3%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음. 주목할 점은,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이 약 4%정도 증가한 것임.

<표 3-45> 성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	후	전	후
30분 미만	124(18.3)	135(19.8)	181(15.4)	200(17.0)
30분-1시간	246(36.3)	215(31.5)	346(29.4)	305(25.9)
1-2시간	183(27.0)	201(29.4)	357(30.3)	336(28.5)
2시간 이상	124(18.3)	132(19.3)	293(24.9)	337(28.6)
전체	677(100.0)	683(100.0)	1,177(100.0)	1,178(100.0)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46> 참조).
 - 중학생은 코로나19 전에는 30-1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화시간이 30분 미만과 2시간 이상인 사례가 증가하였음.
 - 고등학생의 경우,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약 3% 증가하였음.
 - 주목할 점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모와의 대화가 증가한 것임.

<표 3-46> 교급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단위: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후	전	후
30분 미만	174(17.8)	198(20.2)	126(15.8)	125(15.6)
30분-1시간	306(31.3)	270(27.6)	265(33.2)	231(28.9)
1-2시간	270(27.6)	263(26.9)	232(29.1)	243(30.4)
2시간 이상	229(23.4)	248(25.3)	175(21.9)	200(25.0)
전체	979(100.0)	979(100.0)	798(100.0)	799(100.0)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과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을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47> 참조).
 - 북부권역은 30분미만과 30분-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1-2시간, 2시간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음.
 -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은 30분미만과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30분-1시간, 1-2시간이라는 응답은 감소함.

<표 3-47> 권역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권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30분 미만	89 (18.9)	86 (18.2)	40 (13.9)	49 (16.9)	114 (15.6)	123 (16.8)	62 (17.2)	74 (20.6)
30분-1시간	148 (31.4)	132 (27.9)	93 (32.3)	87 (30.0)	241 (33.0)	205 (27.9)	110 (30.5)	97 (26.9)
1-2시간	130 (27.6)	143 (30.2)	97 (33.7)	88 (30.3)	211 (28.9)	209 (28.5)	100 (27.7)	95 (26.4)
2시간 이상	104 (22.1)	112 (23.7)	58 (20.1)	66 (22.8)	164 (22.5)	197 (26.8)	89 (24.7)	94 (26.1)
전체	471 (100.0)	473 (100.0)	288 (100.0)	290 (100.0)	730 (100.0)	734 (100.0)	361 (100.0)	360 (100.0)

2)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 코로나19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족과의 대화내용,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 간의 사랑과 상호존중, 가족의 일상생활, 가족의 친밀도로 구성하여 1점(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 5점(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으로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3.13(SD=.55)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3-48> 참조).
 - 남자청소년은 3.12(SD=.55)이고, 여자청소년은 3.13(SD=.56)으로 성별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중학생은 3.15(SD=.59)이고 고등학생은 3.12(SD=.52)로 중학생이 고등생보다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를 약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북부권역은 3.14(SD=.50), 서해안권역은 3.09(SD=.60), 내륙권역은

3.15(SD=.56), 남부권역은 3.11(SD=.56)로 내륙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권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표 3-48>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3.12	.55	-.407	
	여자	3.13	.56		
교급별	중학생	3.15	.59	1.342	
	고등학생	3.12	.52		
권역별	북부 A	3.14	.50	1.046	N.S
	서해안 B	3.09	.60		
	내륙 C	3.15	.56		
	남부 D	3.11	.56		
전체		3.13	.55		

3) 코로나19 전과 후의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 코로나 전과 후에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원(관심, 칭찬, 대화)을 받고 있는지를 1점(매우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확인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3.68(SD=.95)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3.71(SD=.98)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보호자로부터 관심, 칭찬, 대화 등의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지원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49> 참조).

<표 3-49>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증감률
m	sd	m	sd	
3.68	.95	3.71	.98	+0.03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를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50>

참조).

- 남자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3.53(SD=.94) → 3.56(SD=.97)로 약간 증가하였고, 여자청소년도 3.76(SD=.94) → 3.79(SD=.98)로 약간 증가하였음.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가족의 지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중학생은 3.71(SD=.98) → 3.69(SD=1.02)로 약간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은 3.69(SD=.92) → 3.72(SD=.94)로 약간 증가하였음. 주목할 점은, 중학생이 가족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것임.
- 북부권역은 3.62(SD=.93) → 3.64(SD=0.98)로, 내륙권역은 3.71(SD=.94) → 3.76(SD=.95)로 서해안권역은 3.60(SD=.96) → 3.61(SD=1.02)로 약간 증가하였음. 남부권역은 3.78(SD=.96) → 3.76(SD=1.02)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권역별로 보면 코로나19이전에는 남부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내륙권역과 남부권역이 높았음.

<표 3-5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이전/이후의 정서적 지원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M	SD	M	SD
성별	남자	3.53	.94	3.56	.97
	여자	3.76	.94	3.79	.98
교급별	중학생	3.71	.98	3.69	1.02
	고등학생	3.69	.92	3.72	.94
권역별	북부 A	3.62	.93	3.64	.98
	서해안 B	3.60	.96	3.61	1.02
	내륙 C	3.71	.94	3.76	.95
	남부 D	3.78	.96	3.76	1.00

5.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학업 및 온라인 수업

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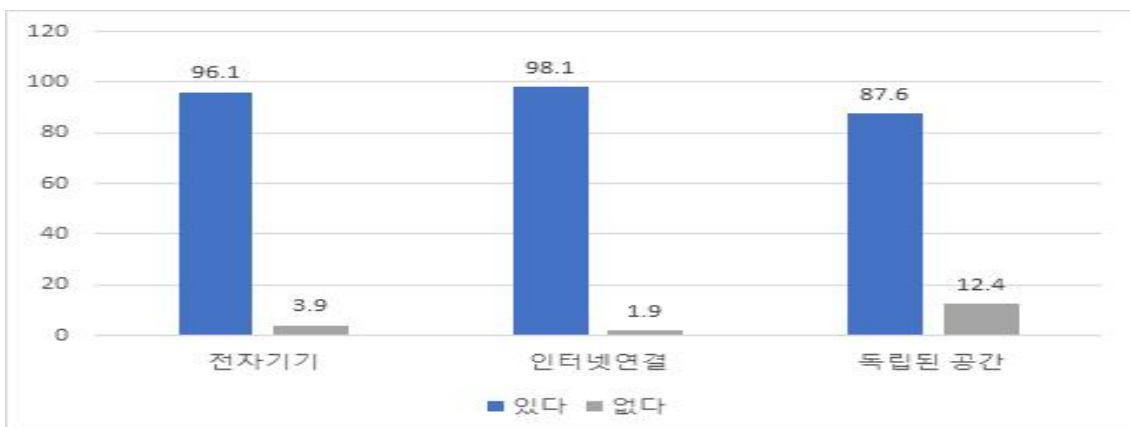
- 비대면(온라인) 사회로의 전환은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여 교육부도 4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수업의 전면 시행을 초래하였음. 온라인 수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습득과 같은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학생들도 갑작스럽게 변화된 새로운 수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이동주, Misook Kim, 2020).

-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51,021명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 기간 동안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음(한재갑, 2020)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확인한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자기기(96.1%), 인터넷 연결(98.1%), 독립된 공간(87.6%) 이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함(<표 3-51> 참조).
 - 전자기기와 인터넷 연결 환경보다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표 3-5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구분	예		아니오	
	N	%	N	%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1,722	96.1	70	3.9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	1,829	98.1	36	1.9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1,632	87.6	231	12.4



<그림 3-8>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표 3-52> 참조).
 - 다만,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음.

<표 3-52> 성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구분	전자기기		인터넷 연결		독립된 공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635(96.2)	1,083(96.1)	662(97.5)	1,162(98.4)	597(87.9)	1,032(87.5)
아니오	25(3.8)	44(3.9)	17(2.5)	19(1.6)	82(12.1)	147(12.5)
전체	660(100.0)	1,127(100.0)	679(100.0)	1,181(100.0)	679(100.0)	1,179(100.0)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학교 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학교 교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표 3-53> 참조).
 - 다만,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와 인터넷 연결, 독립적인 공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53> 교급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단위: 명(%)

구분	전자기기		인터넷 연결		독립된 공간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942(95.8)	770(96.7)	963(98.0)	780(98.1)	844(85.9)	704(88.7)
아니오	41(4.2)	26(3.3)	20(2.0)	15(1.9)	138(14.1)	90(11.3)
전체	983(100.0)	796(100.0)	983(100.0)	795(100.0)	982(100.0)	794(100.0)

- 권역별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비교한 결과, 권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표 3-54> 참조).
 - 다만, 서해안지역은 전자기기와 인터넷 연결의 부족을, 남부권역은 독립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음. 특히,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남부권역이 다른 권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표 3-54> 권역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준비

단위: 명(%)

구분	전자기기				인터넷 연결				독립된 공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예	441 (98.0)	256 (94.1)	673 (96.3)	348 (95.9)	469 (98.9)	280 (97.6)	721 (98.4)	352 (97.0)	431 (91.5)	254 (88.5)	640 (87.4)	300 (82.6)
아니오	9 (2.0)	16 (5.9)	26 (3.7)	15 (4.1)	5 (1.1)	7 (2.4)	12 (1.6)	11 (3.0)	40 (8.5)	33 (11.5)	92 (12.6)	63 (17.4)
전체	450 (100.0)	272 (100.0)	69 (100.0)	363 (100.0)	472 (100.0)	287 (100.0)	733 (100.0)	363 (100.0)	471 (100.0)	287 (100.0)	732 (100.0)	363 (100.0)

2)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만족도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 가
를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으로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
한 청소년들은 3.05(SD=1.16)의 만족도를 보임(<표 3-55> 참조).
 - 남자청소년이 3.09(SD=1.24)이고 여자청소년이 3.02(SD=1.11)로 남자청
소년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중학생이 3.14(SD=1.11)이고 고등학생이 3.12(SD=1.11)로 중학생의 만족
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남부권역이 3.13(SD=1.1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북부권역이
3.07(SD=1.20), 내륙권역 3.01(SD=1.15), 서해안권역이 3.00(SD=1.19)의
순서로 나타남. 권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3-55> 온라인 비대면 수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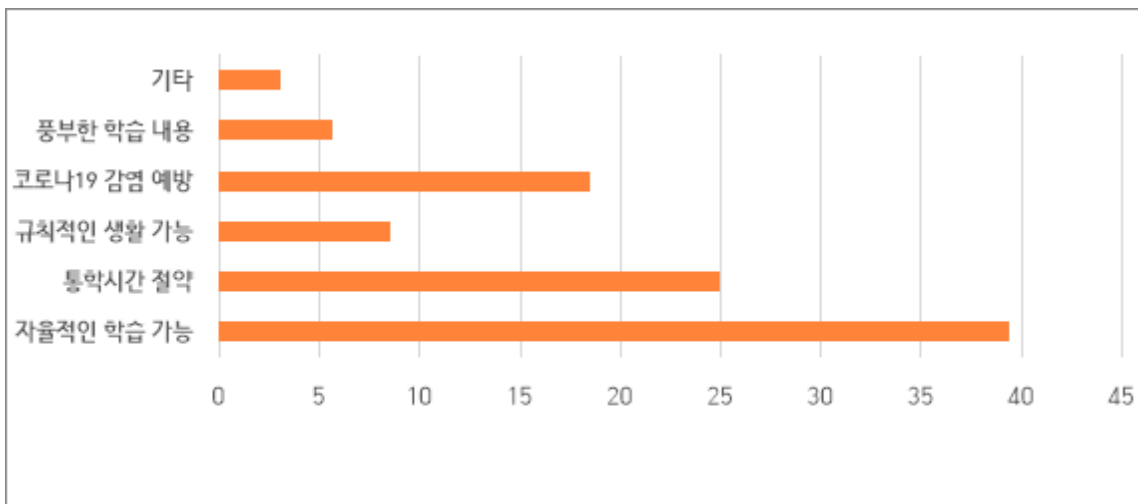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3.09	1.24	1.284	
	여자	3.02	1.11		
교급별	중학생	3.14	1.11	.416	
	고등학생	3.12	1.11		
권역별	북부 A	3.07	1.20	1.091	N.S
	서해안 B	3.00	1.19		
	내륙 C	3.01	1.15		
	남부 D	3.13	1.12		
전체		3.05	1.16		

3)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56>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통학시간 절약이 25%, 코로나19 감염예방 18.5%, 규칙적인 생활 가능 8.5%, 풍부한 학습내용 5.6%, 기타 3.1%였음.

<표 3-56>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n	%
자율적인 학습 가능	268	39.4
통학시간 절약	170	25.0
규칙적인 생활 가능	58	8.5
코로나19 감염 예방	126	18.5
풍부한 학습 내용	38	5.6
기타	21	3.1
합계	681	100.0



<그림 3-9>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57> 참조).
 - 남자청소년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통학시간 절약이 25.3%, 코로나19 감염예방 15.7%, 규칙적인 생활 가능 11.9%, 풍부한 학습내용 8.0%, 기타 3.4%였음.
 - 여자청소년은 자율적인 학습 가능이 41.9%로 가장 많았고, 통학시간 절약이 24.6%, 코로나19 감염예방 20.1%, 규칙적인 생활 가능 6.5%, 풍부한 학습내용 4.1%, 기타 2.9%였음.

<표 3-57> 성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남자		여자	
	n	%	n	%
자율적인 학습 가능	93	35.6	175	41.9
통학시간 절약	66	25.3	103	24.6
규칙적인 생활 가능	31	11.9	27	6.5
코로나19 감염 예방	41	15.7	84	20.1
풍부한 학습 내용	21	8.0	17	4.1
기타	9	3.4	12	2.9
합계	261	100.0	418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표 3-58> 참조).
 - 중학생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21.8%, 통학시간 절약 19.1%, 규칙적인 생활 가능 5.5%, 풍부한 학습내용 5.5%, 기타 3.9%였음.
 - 고등학생도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통학시간 절약이 34.2%, 코로나19 감염예방 10.8%, 규칙적인 생활 가능 5.9%, 풍부한 학습내용 2.6%, 기타 3.0%이었음.
 -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통학시간 절약 때문에 온라인(비대면)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58> 교급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자율적인 학습 가능	146	44.2	117	43.5
통학시간 절약	63	19.1	92	34.2
규칙적인 생활 가능	18	5.5	16	5.9
코로나19 감염 예방	72	21.8	29	10.8
풍부한 학습 내용	18	5.5	7	2.6
기타	13	3.9	8	3.0
합계	330	100.0	269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권역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표 3-59> 참조).
 - 북부권역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통학시간 절약이 30.8%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15.9%, 규칙적인 생활 가능 10.3%, 풍부한 학습내용 6.7%, 기타 5.6%였음.
 - 서해안권역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27.5%, 통학시간 절약 25.5%, 규칙적인 생활 가능 6.9%, 풍부한 학습내용 7.8%, 기타 1.0%이었음.
 - 내륙권역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통학시간 절약 23.1%, 코로나19 감염예방 15.5%, 규칙적인 생활 가능 8.8%, 풍부한 학습내용 5.2%, 기타 0.8%이었음.
 - 남부권역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20.5%, 통학시간 절약 19.7%, 규칙적인 생활 가능 4.79%, 풍부한 학습내용 3.1%, 기타 5.5%였음.

<표 3-59> 권역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자율적인 학습 가능	60	30.8	32	31.4	117	46.6	59	46.5
통학시간 절약	60	30.8	26	25.5	58	23.1	25	19.7
규칙적인 생활 가능	20	10.3	7	6.9	22	8.8	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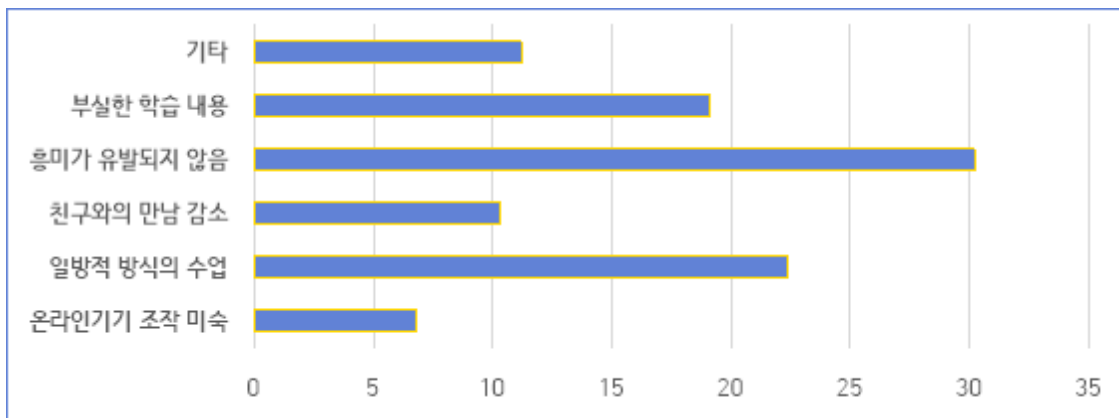
코로나19감염 예방	31	15.9	28	27.5	39	15.5	26	20.5
풍부한 학습 내용	13	6.7	8	7.8	13	5.2	4	3.1
기타	11	5.6	1	1.0	2	0.8	7	5.5
합계	195	100.0	102	100.0	251	100.0	127	100.0

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60> 참조).
 -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방적 방식의 수업 22.4%, 부실한 학습 내용 19.1%, 기타 11.2%, 친구와의 만남 감소 10.3%,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6.8%로 나타남.

<표 3-60>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n	%
온라인기기 조작 미숙	35	6.8
일방적 방식의 수업	116	22.4
친구와의 만남 감소	53	10.3
흥미가 유발되지 않음	156	30.2
부실한 학습 내용	99	19.1
기타	58	11.2
합계	517	100.0



<그림 3-10>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61> 참조).
 - 남자청소년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학습 내용 19.7%, 기타 15.0%, 친구와의 만남 감소 14.0%, 일방적 방식의 수업 13.5%,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5.7%였음.
 - 여자청소년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방식의 수업 27.6%, 부실한 학습 내용 18.9%, 기타 9.0%, 친구와의 만남 감소 7.8%,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7.5%로 나타남.

<표 3-61> 성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남자		여자	
	n	%	n	%
온라인기기 조작 미숙	11	5.7	24	7.5
일방적 방식의 수업	26	13.5	89	27.6
친구와의 만남 감소	27	14.0	25	7.8
흥미가 유발되지 않음	62	32.1	94	29.2
부실한 학습 내용	38	19.7	61	18.9
기타	29	15.0	29	9.0
합계	193	100.0	322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교급에 따라 비교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62> 참조).
 - 중학생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학습 내용 20.9%, 일방적 방식의 수업 18.3%, 기타 11.0%, 친구와의 만남 감소 13.7%,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3.4%로 나타남.
 - 고등학생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고, 일방적 방식의 수업 25.6%, 부실한 학습 내용 20.0%, 기타 13.0%, 친구와의 만남 감소 6.5%,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3.3%로 나타남.

<표 3-62> 학교급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온라인기기 조작 미숙	9	3.4	7	3.3
일방적 방식의 수업	48	18.3	55	25.6
친구와의 만남 감소	36	13.7	14	6.5
흥미가 유발되지 않음	86	32.7	68	31.6
부실한 학습 내용	55	20.9	43	20.0
기타	29	11.0	28	13.0
합계	263	100.0	215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권역에 따라 비교한 결과,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남부권역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륙권역은 일방적 방식의 수업이 가장 많았음(<표 3-63> 참조).

- 북부권역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방식의 수업 21.5%, 부실한 학습 내용 13.9%, 기타 11.8%, 친구와의 만남 감소 12.5%,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6.9%였음.
- 서해안권역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1%였고, 기타 20.2%, 일방적 방식의 수업 15.5%, 부실한 학습 내용 14.3%,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9.5%, 친구와의 만남 감소 8.3%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일방적 방식의 수업이 28.9%로 가장 많았고, 흥미가 유발되지 않음 24.2%, 부실한 학습 내용 23.2%, 기타 8.9%, 친구와의 만남 감소 8.4%,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6.3%였음.
- 남부권역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학습 내용 23.7%, 일방적 방식의 수업 16.2%, 친구와의 만남 감소 12.4%, 기타 7.2%, 온라인 기기 조작 미숙 4.1%로 나타남.

<표 3-63> 권역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온라인기기 조작 미숙	10	6.9	8	9.5	12	6.3	4	4.1
일방적 방식의 수업	31	21.5	13	15.5	55	28.9	16	16.5

친구와의 만남 감소	18	12.5	7	8.3	16	8.4	12	12.4
평가 유발되지 않음	48	33.3	27	32.1	46	24.2	35	36.1
부실한 학습 내용	20	13.9	12	14.3	44	23.2	23	23.7
기타	17	11.8	17	20.2	17	8.9	7	7.2
합계	144	100.0	84	100.0	190	100.0	127	100.0

5)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스트레스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스트레스를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으로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습스트레스는 2.92(SD=.74)였음(<표 3-64> 참조).
 -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남자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는 2.87(SD=.79)이고 여자청소년은 2.96(SD=.71)로 여자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가 약간 높았음($t=-2.460, p<.05$).
 - 중학생이 2.89(SD=.74)이고 고등학생이 2.95(SD=.73)로 고등학생의 학습스트레스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북부권역과 내륙권역이 2.94(SD=.73)로 높은 학습스트레스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남부권역이 2.91(SD=.76), 서해안권역이 2.89(SD=.74)의 순서로 나타남. 권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3-64> 온라인 비대면 수업 스트레스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87	.79	-2.460*	
	여자	2.96	.71		
교급별	중학생	2.89	.74	-1.770	
	고등학생	2.95	.73		
권역별	북부 A	2.94	.73	.419	N.S
	서해안 B	2.89	.74		
	내륙 C	2.94	.73		
	남부 D	2.91	.76		
전체		2.92	.74		

* $p<.05$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로

1) 코로나19로 인한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변했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으로 확인한 결과, 2.33(SD=1.28)으로 나타남(<표 3-65>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2.37(SD=1.29)이고 여자청소년은 2.30(SD=1.28)으로 남자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중학생이 2.39(SD=1.29)이고 고등학생은 2.16(SD=1.24)으로 중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하였음($t=3.852, p<.001$).
 - 내륙권역이 2.37(SD=1.32)로 코로나19로 인해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북부권역이 2.33(SD=1.29), 서해안권역이 2.32(SD=1.17), 남부권역이 2.14(SD=1.28)의 순서로 나타남. 권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3-65> 장래희망 직업의 변화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37	1.29	1.141	
	여자	2.30	1.28		
교급별	중학생	2.39	1.29	3.852***	
	고등학생	2.16	1.24		
권역별	북부 A	2.33	1.29	.728	N.S
	서해안 B	2.32	1.17		
	내륙 C	2.37	1.32		
	남부 D	2.25	1.28		
전체		2.33	1.28		

*** $p<.001$, ** $p<.01$, * $p<.05$

2)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학원,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진로진학 준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으로 확인한 결과, 2.34(SD=1.21)으로 나타남(<표 3-66> 참조).
 -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2.40(SD=1.25)이고 여자청소년은 2.30(SD=1.19)로 남자 청소년이 코로나19 이후 학원,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진로진학 준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중학생이 2.33(SD=1.17)이고 고등학생은 2.35(SD=1.25)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진로진학 준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북부권역이 2.51(SD=1.26)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진로진학 준비에 변화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서해안권역이 2.34(SD=1.14), 내륙권역이 2.29(SD=1.19), 남부권역이 2.25(SD=1.22)의 순서로 나타남 (F=4.112, p<.01).

<표 3-66> 진로진학 준비의 변화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40	1.25	1.668	
	여자	2.30	1.19		
교급별	중학생	2.33	1.17	-.444	
	고등학생	2.35	1.25		
권역별	북부 A	2.51	1.26	4.112**	A>C>D*
	서해안 B	2.34	1.14		
	내륙 C	2.29	1.19		
	남부 D	2.25	1.22		
전체		2.34	1.21		

***p<.001, **p<.01, *p<.05

3) 코로나19가 직업(진로)에 미칠 영향

- 코로나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미칠 것이라는 54.2%, 아니라는 42.1%로 나타남(<표 3-67> 참조).

<표 3-67> 코로나19가 미래 직업(진로)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예	아니오
997(54.2)	842(42.1)

- 코로나 19는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68> 참조).
 - 남자청소년은 “아니오”가 50.1%로 많았고, 여자청소년은 “예”가 57.0%로 많아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가 미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
 -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코로나 19는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 모두 코로나 19는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표 3-68> 코로나19의 미래 직업(진로)의 영향 여부

구분		예		아니오	
		N	%	N	%
성별	남자	336	49.9	338	50.1
	여자	661	57.0	499	43.0
교급별	중학생	500	50.8	485	49.2
	고등학생	467	58.5	331	41.5
권역별	북부	247	53.2	217	46.8
	서해안	149	52.8	133	47.2
	내륙	409	56.6	314	43.4
	남부	190	52.3	173	47.7

- 코로나 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1점(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 5점(매우 긍정적일 것이다)으로 확인한 결과, 2.71(SD=.98)으로 나타남(<표 3-69> 참조).

- 코로나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2.69(SD=1.01)이고 여자청소년은 2.71(SD=.97)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로 미래 직업(진로)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중학생이 2.79(SD=.91)이고 고등학생은 2.80(SD=.9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미래 직업(진로)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남부권역이 2.87(SD=.99)으로 코로나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미칠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내륙권역이 2.72(SD=1.01), 북부권역이 2.68(SD=.98), 서해안권역이 2.52(SD=.88)의 순서로 나타남($F=4.042, p<.01$).

<표 3-69> 미래 직업(진로)의 영향 정도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69	1.01	-.258	
	여자	2.71	.97		
교급별	중학생	2.79	.91	-.151	
	고등학생	2.80	.99		
권역별	북부 A	2.68	.98	4.042**	B<D**
	서해안 B	2.52	.88		
	내륙 C	2.72	1.01		
	남부 D	2.87	.99		
전체		2.71	.98		

*** $p<.01$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활동

1)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둘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70> 참조).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관련 시설의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대면 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20.4%, 둘다 참여 7.9%,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7.3%로 나타남.

<표 3-70>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n	%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327	20.4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117	7.3
둘 다 참여	127	7.9
둘다 참여한 적 없음	1,033	64.4
합계	1,604	100.0



-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 둘 다 참여
- 둘다 참여한 적 없음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71> 참조).
 - 남자청소년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13.7%, 둘다 참여 9.7%,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8.6%였음.
 - 여자청소년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24.9%, 둘다 참여 7.3%,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6.9%였음.
 - 주목할 점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대면프로그램에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71> 성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남자		여자	
	n	%	n	%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76	13.7	249	24.9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48	8.6	69	6.9
둘 다 참여	54	9.7	73	7.3
둘다 참여한 적 없음	399	71.8	631	63.2
합계	556	100.0	998	100.0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진행하는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72> 참조).
 - 중학생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21.7%,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8.9%, 둘다 참여 8.5%였음.
 - 고등학생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21.1%, 둘다 참여 6.4%,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4.0%였음.
 -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프로그램에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72>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176	21.7	147	21.1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72	8.9	28	4.0
둘 다 참여	69	8.5	45	6.4
둘다 참여한 적 없음	524	64.5	494	70.8
합계	812	100.0	698	100.0

- 권역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둘다 참여한 적이 없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73> 참조).

- 북부권역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3.4%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15.2%, 둘다 참여 8.1%,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5.6%였음.
- 서해안권역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17.4%, 둘다 참여 9.7%,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7.2%였음.
- 내륙권역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응답이 32.1%, 둘다 참여 8.4%,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7.4%였음.
- 남부권역은 대면/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10.2%,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 9.6%, 둘다 참여 6.7%%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내륙권역의 청소년들이 대면프로그램만 참여했다는 가장 많았음.

<표 3-73>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에서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60	15.2	41	17.4	196	32.1	30	9.6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22	5.6	17	7.2	45	7.4	32	10.2
둘 다 참여	32	8.1	23	9.7	51	8.4	21	6.7
둘다 참여한 적 없음	290	73.4	158	66.9	347	56.9	234	74.8
합계	395	100.0	236	100.0	610	100.0	3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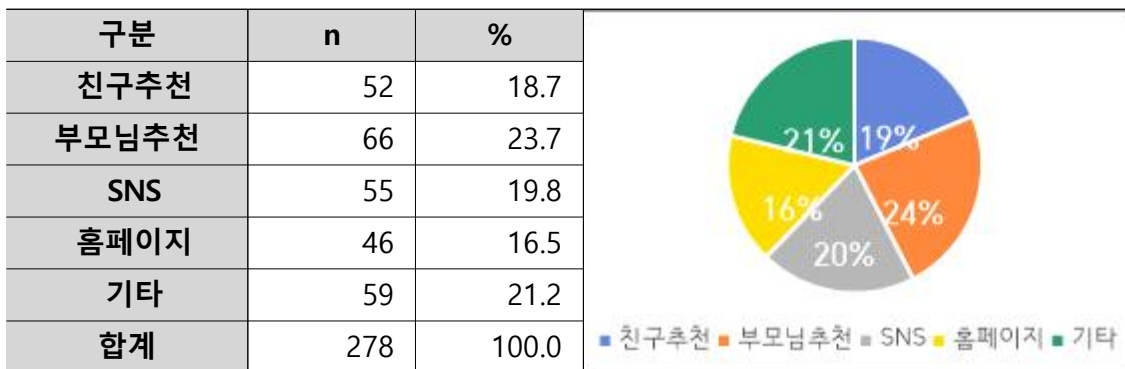
2)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부모님 추천이 가장 많았음(<표 3-74> 참조).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부모님 추천이 23.7%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2%, SNS 19.85, 친구추천 18.7%, 홈페이지 16.5%로 나타남.

- SNS(19.8%)와 홈페이지(16.5%)를 합한 비율이 36.3%로 많으므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기획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
- 기타의견에는 학교, 선생님, 운동부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3-74>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부모님 추천과 기타가 많았고, 여자청소년은 친구추천이 많았음(<표 3-75> 참조).
 - 남자청소년은 부모님 추천과 기타가 각각 24.6%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SNS가 19.5%였음.
 - 여자청소년은 친구추천이 26.4%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추천 23.3%, SNS 20.1%, 홈페이지 11.9%로 나타남.

<표 3-75>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구분	남자		여자	
	n	%	n	%
친구추천	10	8.5	42	26.4
부모님추천	29	24.6	37	23.3
SNS	23	19.5	32	20.1
홈페이지	27	22.9	19	11.9
기타	29	24.6	29	18.2
합계	118	100.0	159	100.0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은 기타가 많았고, 고등학생은 sns가 많았음(<표 3-76> 참조).
 - 중학생은 기타가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20.2%, SNS가 19.5%, 부모님 추천 15.1%, 친구추천 13.4% 였음.
 - 고등학생은 SNS가 35.3%로 가장 많았고, 기타 29.4%, 홈페이지 21.2%로 나타남. 친구나 부모님 추천은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3-76> 학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친구추천	16	13.4	6	7.1
부모님추천	18	15.1	6	7.1
SNS	24	20.2	30	35.3
홈페이지	27	22.7	18	21.2
기타	34	28.6	25	29.4
합계	119	100.0	85	100.0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과 내륙권역은 부모님 추천이 가장 많았고, 서해안권역은 sns와 기타, 남부권역은 기타가 가장 많았음(<표 3-77> 참조).
- 북부권역은 부모님 추천이 가장 많았고, 서해안권역은 sns와 기타가 많았음. 내륙권역은 친구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남부권역은 홈페이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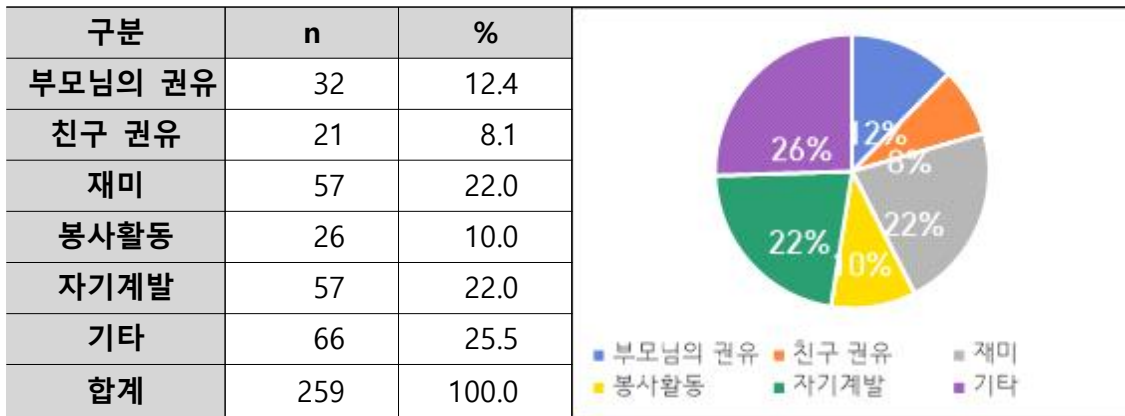
<표 3-77>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경로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친구추천	13	14.9	12	20.0	19	24.7	7	14.3
부모님추천	24	27.6	11	18.3	22	28.6	7	14.3
SNS	16	18.4	15	25.0	18	23.4	6	12.2
홈페이지	14	16.1	7	11.7	8	10.4	16	32.7
기타	20	23.0	15	25.0	10	13.0	13	26.5
합계	87	100.0	60	100.0	77	100.0	49	100.0

3)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타(25.5%)가 가장 많았고, 재미(22.0%), 자기계발(22.0%), 부모님의 권유(12.4%), 봉사활동(10%), 친구 권유(8.1%)의 순서로 나타남(<표 3-78> 참조).

<표 3-78>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은 기타가 가장 많았고, 여자청소년은 재미가 가장 많았음(<표 3-79> 참조).
 - 남자청소년은 기타(28.9%)가 가장 많았고, 자기계발(24.4%), 재미(20.7%), 부모님의 권유(12.6%), 봉사활동(6.7%), 친구 권유(6.7%)의 순이었음.
 - 여자청소년은 재미(23.8%)가 가장 많았고, 기타(20.5%), 자기계발(19.7%), 봉사활동(13.9%), 부모님의 권유(12.3%), 친구 권유(9.8%)의 순이었음.

<표 3-79>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구분	남자		여자	
	n	%	n	%
부모님의 권유	17	12.6	15	12.3
친구 권유	9	6.7	12	9.8
재미	28	20.7	29	23.8
봉사활동	9	6.7	17	13.9
자기계발	33	24.4	24	19.7
기타	39	28.9	25	20.5
합계	135	100.0	122	100.0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기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자기계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음(<표 3-80> 참조).
 - 중학생은 기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재미(23.4%), 자기계발(19.5%)을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고등학생은 자기계발이 26.7%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8%, 재미 19.85, 봉사활동 17.8% 등의 순서를 보임.

<표 3-80> 학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부모님의 권유	25	16.2	6	5.9
친구 권유	13	8.4	8	7.9
재미	36	23.4	20	19.8
봉사활동	8	5.2	18	17.8
자기계발	30	19.5	27	26.7
기타	42	27.3	22	21.8
합계	154	100.0	101	1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역과 서해안권역은 기타가 가장 많았고, 내륙권역과 남부권역은 재미 때문에 비대면(온라인)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3-81> 참조).
 - 북부권역은 기타(3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기계발(21.55), 부모님의 권유(20.3%), 재미(20.3%)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서해안권역은 기타가 33.3%로 많았고, 자기계발 21.1%, 재미 17.5%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재미 때문이라는 응답이 22.4%로 가장 많았고, 자기계발과 기타가 각각 20.7%로 나타남. 주목할 점은 다른 권역에 비해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15.5%로 많았음.
 - 남부권역은 재미를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28.6%로 많았고, 자기계발 25.4%, 기타 17.5%, 친구 권유가 12.7%였음.

<표 3-81>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부모님의 권유	16	20.3	3	5.3	6	10.3	6	9.5
친구 권유	1	1.3	6	10.5	6	10.3	8	12.7
재미	16	20.3	10	17.5	13	22.4	18	28.6
봉사활동	5	6.3	7	12.3	9	15.5	4	6.3
자기계발	17	21.5	12	21.1	12	20.7	16	25.4
기타	24	30.4	19	33.3	12	20.7	11	17.5
합계	79	100.0	57	100.0	58	100.0	63	100.0

4)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1%로 많았음. 다음으로는 대면프로그램이 19.9%, 비대면 프로그램이 13.2%로 나타남(<표 3-82> 참조).

<표 3-82>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구분	n	%
대면프로그램	53	19.9
비대면프로그램	35	13.2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72	27.1
참여한 적 없음	106	39.8
합계	266	100.0

■ 대면프로그램
■ 비대면프로그램
■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 참여한 적 없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대면, 비대면프로그램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러나 남자청소년은 비대면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청소년은 대면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표 3-83> 참조).
 - 남자청소년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9.6%로 많았고,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23.0%, 비대면프로그램 16.3%, 대면프로그램 11.1%임.

- 여자청소년은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31.8%였고, 참여한 적음 29.5%, 대면프로그램 28.7%, 비대면프로그램 10.1%였음.

<표 3-83> 성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구분	남자		여자	
	n	%	n	%
대면프로그램	15	11.1	37	28.7
비대면프로그램	22	16.3	13	10.1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31	23.0	41	31.8
참여한 적 없음	67	49.6	38	29.5
합계	135	100.0	129	100.0

-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대면, 비대면프로그램 둘다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대면프로그램, 비대면프로그램의 순서로 나타남(<표 3-84> 참조).
 - 중학생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26.5%, 대면프로그램 17.3%, 비대면프로그램 11.7%의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3.0%로 많았고,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28.0%, 대면프로그램 24.0%, 비대면프로그램 15.0%였음.

<표 3-84> 학교급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대면프로그램	28	17.3	24	24.0
비대면프로그램	19	11.7	15	15.0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43	26.5	28	28.0
참여한 적 없음	72	44.4	33	33.0
합계	162	100.0	100	100.0

- 권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북부권역은 대면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서해안권역과 내륙권역, 남부권역은 대면과 비대면이 둘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85> 참조).
 - 북부권역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5.0%로 많았고, 대면프로그램

- 26.3%,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23.8%, 비대면프로그램 5.0%였음.
- 서해안권역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고,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22.8%, 대면프로그램 21.1%, 비대면프로그램 10.5%의 순으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30.0%였고,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3%, 대면프로그램 26.7%, 비대면프로그램 15.0%였음.
 - 남부권역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8.8%로 많았고,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31.3%,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프로그램이 각각 14.9%였음.

<표 3-85> 권역별 도움이 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대면프로그램	21	26.3	6	10.5	16	26.7	10	14.9
비대면프로그램	4	5.0	12	21.1	9	15.0	10	14.9
대면, 비대면 둘다 비슷함	19	23.8	13	22.8	18	30.0	21	31.3
참여한 적 없음	36	45.0	26	45.6	17	28.3	26	38.8
합계	80	100.0	57	100.0	60	100.0	67	100.0

5)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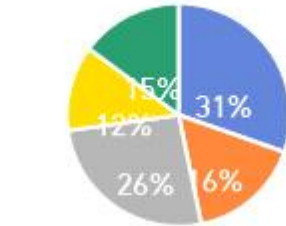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에서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수업이 감염병에 대한 노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임. 더불어 온라인 수업에서는 영상매체 등의 다양한 매개 도구를 활용한 과업 중심의 수업과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들도 온라인 수업의 또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이 대면활동보다 좋았던

이유를 확인한 결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표 3-86> 참조).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은 대면활동보다 어떤 점이 더 좋았는지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이 30.5%로 가장 많았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이 26.1%,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16.4%, 기타 14.9%, 다양한 활동가능 12.4%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6>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구분	n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69	30.5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37	16.4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59	26.1
다양한 활동가능	28	12.4
기타	33	14.9
합계	226	100.0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 다양한 활동가능
- 기타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이 다음 순서 였음. 그러나 남자청소년은 기타가 많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다양한 활동 가능이라는 응답이 많았음(<표 3-87> 참조).

- 남자청소년은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29.7%)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3.7%),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9.5%), 다양한 활동가능(10.2%)의 순이었음. 기타도 16.9%였음.

- 여자청소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32.1%)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9.2%), 다양한 활동가능(14.2%),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3.2%)의 순이었음. 기타도 11.3%였음.

<표 3-87>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구분	남자		여자	
	n	%	n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35	29.7	34	32.1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23	19.5	14	13.2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28	23.7	31	29.2
다양한 활동가능	12	10.2	15	14.2
기타	20	16.9	12	11.3
합계	118	100.0	106	100.0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이 많았음(<표 3-88> 참조).
 - 중학생은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27.5%)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1.7%),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6.7%), 다양한 활동가능(16.7%)의 순이었음. 기타도 17.4%였음.
 - 고등학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35.3%)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32.9%),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6.5%), 다양한 활동가능(4.7%)의 순이었음. 기타는 10.6%임.

<표 3-88> 학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38	27.5	30	35.3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23	16.7	14	16.5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30	21.7	28	32.9
다양한 활동가능	23	16.7	4	4.7
기타	24	17.4	9	10.6
합계	138		85	

- 권역에 따라서는 북부권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이 가장 많

왔고, 서해안권역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과 기타가 많았음. 내륙권역과 남부권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이 많았음(<표 3-89> 참조).

- 북부권역은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28.6%)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4.3%), 다양한 활동가능(15.7%),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4.3%)의 순이었음. 기타도 17.1%였음.
- 서해안권역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7.7%)과 기타(27.7%)가 가장 많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21.3%),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9.1%), 다양한 활동가능(4.3%)의 순이었음.
- 내륙권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각각 29.4%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활동가능과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이 17.6%으로 나타남. 기타는 5.9%였음.
- 남부권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41.1%)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25.0%),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16.1%), 다양한 활동가능(10.7%)의 순이었음. 기타는 7.1%였음.

<표 3-89>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좋은 점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20	28.6	10	21.3	15	29.4	23	41.1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10	14.3	9	19.1	9	17.6	9	16.1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17	24.3	13	27.7	15	29.4	14	25.0
다양한 활동가능	11	15.7	2	4.3	9	17.6	6	10.7
기타	12	17.1	13	27.7	3	5.9	4	7.1
합계	70		47		51		56	

6)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집중력 저하와 사회성 결핍이

43.5%라는 높은 수치와 기억력 저하의 부작용도 함께 보고되고 있음.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해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표 3-90> 참조).
 -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9.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기타가 21.1%, 네트워크 문제 17.2%, 참여하는 느낌 부족 16.7%, 쌍방향 소통 부족 10.3%임.

<표 3-90>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구분	n	%
네트워크 문제(데이터, 와이파이 등)	35	17.2
기기나 여건의 부족	11	5.4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34	16.7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60	29.4
쌍방향 소통 부족	21	10.3
기타	43	21.1
합계	204	100.0

■ 네트워크 문제
■ 기기나 여건의 부족
■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 쌍방향 소통 부족
■ 기타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반면 남자청소년은 기타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여자청소년은 네트워크 문제가 장애가 된다고 응답함(<표 3-91> 참조).
 - 남자청소년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9.2%였고, 네트워크 문제와 참여하는 느낌 부족이 각각 15.1%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11.3%,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6.6%로 나타남. 기타는 22.6%였음.
 - 여자청소년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0.2%고, 네트워크 문제가 19.8%, 참여하는 느낌 부족이 각각 17.7%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9.43%,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4.2%로 나타남. 기타는 18.8%임.

<표 3-91> 성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구분	남자		여자	
	n	%	n	%
네트워크 문제	16	15.1	19	19.8
기기나 여건의 부족	7	6.6	4	4.2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16	15.1	17	17.7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31	29.2	29	30.2
쌍방향 소통 부족	12	11.3	9	9.4
기타	24	22.6	18	18.8
합계	106		96	

-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3-92> 참조).
 - 중학생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9.9%였고, 네트워크 문제 19.7%, 참여하는 느낌 부족 15.0%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8.7%,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4.7%로 나타남. 기타는 20.5%였음.
 - 고등학생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부족이 27.4%였고, 참여하는 느낌 부족 19.2%, 네트워크 문제 12.3%,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13.7%,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6.8%로 나타남. 기타는 20.5%였음.

<표 3-92> 교급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네트워크 문제	25	19.7	9	12.3
기기나 여건의 부족	6	4.7	5	6.8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19	15.0	14	19.2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38	29.9	20	27.4
쌍방향 소통 부족	11	8.7	10	13.7
기타	28	22.0	15	20.5
합계	127	100.0	73	100.0

-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표 3-93> 참조).

- 북부권역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네트워크 문제 20.0%, 참여하는 느낌 부족 18.5%였음. 기기나 여건의 부족 6.2%, 쌍방향 소통부족 4.6%의 순이었음. 기타는 23.1%임.
- 서해안권역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1.7%였고, 네트워크 문제 9.8%, 참여하는 느낌 부족 14.6%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0.0%,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4.9%로 나타남. 기타는 39.0%였음.
- 내륙권역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쌍방향 소통부족 20.0%, 네트워크 문제 17.8%, 참여하는 느낌 부족 15.6%,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2.2%로 나타남. 기타는 8.9%였음.
- 남부권역은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5.0%였고, 네트워크 문제 19.2%, 참여하는 느낌 부족 17.3%였음. 쌍방향 소통부족 15.4%, 기기나 여건의 부족은 7.7%로 나타남. 기타는 15.4%였음.

<표 3-93> 권역별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네트워크 문제	13	20.0	4	9.8	8	17.8	10	19.2
기기나 여건의 부족	4	6.2	2	4.9	1	2.2	4	7.7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12	18.5	6	14.6	7	15.6	9	17.3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18	27.7	13	31.7	16	35.6	13	25.0
쌍방향 소통 부족	3	4.6	-	-	9	20.0	8	15.4
기타	15	23.1	16	39.0	4	8.9	8	15.4
합계	65	100.0	41	100.0	45	100.0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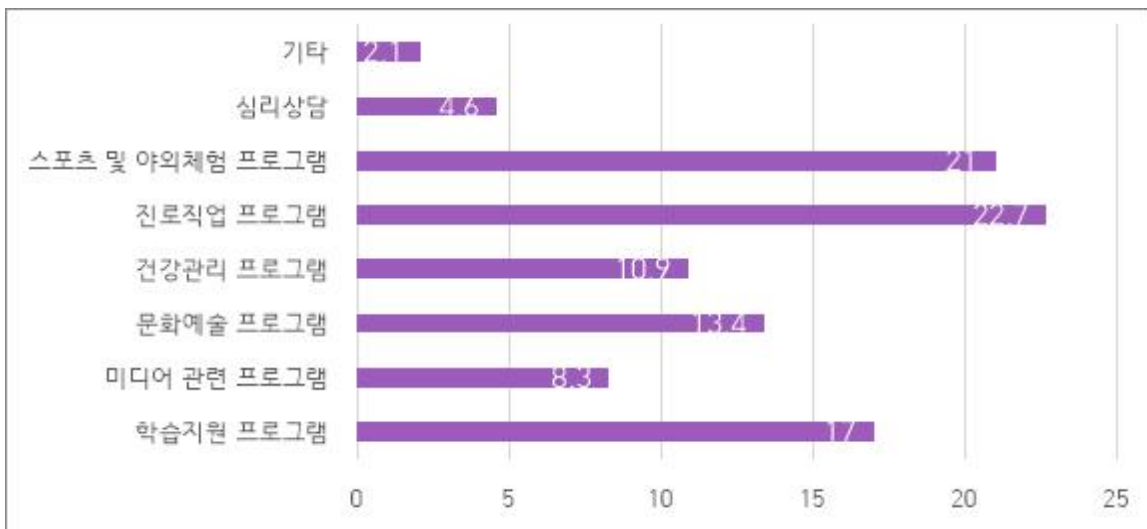
7)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 포스트19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은 진로직업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94> 참조).
 - 진로직업 프로그램 22.7%,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1.0%, 학습지원프로그램 17.0%, 문화예술 프로그램 13.4%, 건강관리 프로그램

10.9%,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8.3%, 심리상담 4.6%였음.

<표 3-94>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구분	n	%
학습지원 프로그램	287	17.0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139	8.3
문화예술 프로그램	225	13.4
건강관리 프로그램	183	10.9
진로직업 프로그램	383	22.7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353	21.0
심리상담	78	4.6
기타	36	2.1
합계	1,684	100.0



<그림 3-11>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 성별에 따라 포스트19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을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청소년은 진로직업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95> 참조).

- 남자청소년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32.1%, 진로직업 프로그램 16.8%, 학습지원프로그램 16.1%, 문화예술 프로그램 6.7%, 건강관리 프

- 로그램 11.6%,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9.8%, 심리상담 4.8%의 순이었음.
- 여자청소년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28.0%, 학습지원프로그램 19.2%, 문화예술 프로그램 18.3%,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16.5%, 건강관리 프로그램 11.5%,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7.9%, 심리상담 5.0%이었음.

<표 3-95> 성별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구분	남자		여자	
	n	%	n	%
학습지원 프로그램	93	16.1	194	19.2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57	9.8	80	7.9
문화예술 프로그램	39	6.7	185	18.3
건강관리 프로그램	67	11.6	116	11.5
진로직업 프로그램	97	16.8	283	28.0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186	32.1	166	16.5
심리상담	28	4.8	50	5.0
기타	24	4.1	11	1.1
합계	579	100.0	1,009	100.0

- 학교급에 따라 포스트19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함(<표 3-96> 참조).
 - 중학생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5.6%, 진로직업 프로그램 25.2%, 학습지원프로그램 14.4%, 문화예술 프로그램 12.0%, 건강관리 프로그램 12.5%,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7.5%, 심리상담 4.5%의 순임.
 - 고등학생은 학습지원프로그램 22.7%, 진로직업 프로그램 22.4%, 문화예술 프로그램 16.4%,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17.6%, 건강관리 프로그램 10.3%,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10.0%, 심리상담 5.5%이었음.
 - 고등학생은 입시와 진학으로 인해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표 3-96> 교급별 포스트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학습지원 프로그램	128	14.4	158	22.7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67	7.5	70	10.0
문화예술 프로그램	107	12.0	114	16.4
건강관리 프로그램	111	12.5	72	10.3
진로직업 프로그램	224	25.2	156	22.4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27	25.6	123	17.6
심리상담	40	4.5	38	5.5
기타	30	3.4	6	0.9
합계	888	100.0	697	100.0

- 권역에 따라 포스트19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은 진로직업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해안권역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표 3-97> 참조).
 - 북부권역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24.2%,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3.1%, 학습지원프로그램 16.4%, 문화예술 프로그램 13.2%, 건강관리 프로그램 11.9%,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9.1%, 심리상담 6.0%였음.
 - 서해안권역은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3.1%, 문화예술 프로그램 18.8%, 진로직업 프로그램 18.4%, 학습지원프로그램 15.3%, 건강관리 프로그램 13.3%,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9.0%, 심리상담 3.5%였음.
 - 내륙권역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25.1%,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1.2%, 학습지원프로그램 19.6%, 문화예술 프로그램 14.4%, 건강관리 프로그램 11.0%,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8.3%, 심리상담 4.7%의 순임.
 - 남부권역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26.3%,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22.4%, 학습지원프로그램 19.0%, 문화예술 프로그램 11.2%, 건강관리 프로그램 10.6%,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9.1%, 심리상담 4.8%이었음.

<표 3-97> 권역별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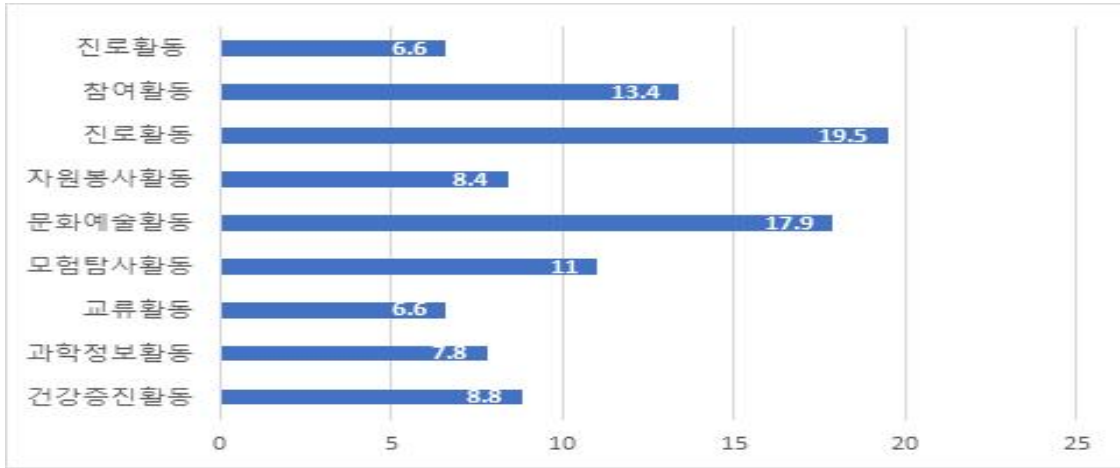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학습지원 프로그램	63	16.4	39	15.3	121	19.6	63	19.0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35	9.1	23	9.0	51	8.3	30	9.1
문화예술 프로그램	51	13.2	48	18.8	89	14.4	37	11.2
건강관리 프로그램	46	11.9	34	13.3	68	11.0	35	10.6
진로직업 프로그램	93	24.2	47	18.4	155	25.1	87	26.3
스포츠 및 야유회 프로그램	89	23.1	59	23.1	131	21.2	74	22.4
심리상담	23	6.0	9	3.5	29	4.7	16	4.8
기타	8	2.1	13	5.1	9	1.5	5	1.5
합계	385	100.0	255	100.0	618	100.0	331	100.0

8) 포스트19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유형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진로활동이라고 응답함(<표 3-99> 참조).
 - 진로활동(19.5%), 문화예술활동(17.9%), 참여활동(13.4%), 모험탐사활동(11.0%)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남.

<표 3-98>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구분	n	%
건강증진활동	253	8.8
과학정보활동	225	7.8
교류활동	191	6.6
모험탐사활동	317	11.0
문화예술활동	515	17.9
자원봉사활동	243	8.4
진로활동	560	19.5
참여활동	385	13.4
진로활동	189	6.6
합계	2,878	100.0



<그림 3-12>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진로활동, 여자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표 3-100> 참조).
 - 남자청소년은 진로활동(19.5%), 모험탐사활동(14.2%), 참여활동(14.1%), 과학정보활동(12.4%), 건강증진활동(12.1%)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여자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21.5%), 진로활동(19.5%), 참여활동(13.0%)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표 3-99> 성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구분	남자		여자	
	n	%	n	%
건강증진활동	104	12.1	148	7.4
과학정보활동	107	12.4	116	5.8
교류활동	46	5.3	144	7.2
모험탐사활동	122	14.2	192	9.6
문화예술활동	82	9.5	431	21.5
자원봉사활동	47	5.5	194	9.7
진로활동	168	19.5	390	19.5
참여활동	121	14.1	261	13.0
진로활동	63	7.3	125	6.2
합계	860	100.0	2,001	100.0

- 학교급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표 3-101> 참조).
 - 중학생은 진로활동(20.7%), 문화예술활동(17.7%), 참여활동(16.2%), 모험탐사활동(11.3%)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고등학생은 진로활동(19.2%), 문화예술활동(17.1%), 참여활동(10.9%), 모험탐사활동(10.8%)에 대한 요구가 컸음.

<표 3-100> 교급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건강증진활동	119	7.9	123	9.8
과학정보활동	113	7.5	99	7.9
교류활동	70	4.6	107	8.5
모험탐사활동	171	11.3	136	10.8
문화예술활동	268	17.7	215	17.1
자원봉사활동	103	6.8	125	9.9
진로활동	314	20.7	242	19.2
참여활동	245	16.2	137	10.9
진로활동	112	7.4	75	6.0
합계	882	100.0	1,259	100.0

- 권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북부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은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서해안권역은 문화예술활동이 많았음(<표 3-102> 참조).
 - 북부권역은 진로활동(21.6%), 문화예술활동(17.1%), 참여활동(11.9%), 모험탐사활동(11.2%)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서해안권역은 문화예술활동(18.6%), 진로활동(17.0%), 참여활동(13.5%), 모험탐사활동(11.3%)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내륙권역은 진로활동(19.1%), 문화예술활동(18.6%), 참여활동(13.4%), 모

- 험탐사활동(10.9%)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남부권역은 진로활동(19.9%), 문화예술활동(17.1%), 참여활동(14.7%), 모험탐사활동(11.0%), 건강증진활동(10.15)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표 3-101> 권역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중복응답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건강증진활동	48	7.4	39	8.6	107	9.0	59	10.1
과학정보활동	53	8.2	36	8.0	85	7.1	50	8.6
교류활동	37	5.7	39	8.6	86	7.2	29	5.0
모험탐사활동	72	11.2	51	11.3	130	10.9	64	11.0
문화예술활동	110	17.1	84	18.6	219	18.4	100	17.1
자원봉사활동	54	8.4	37	8.2	103	8.7	49	8.4
진로활동	139	21.6	77	17.0	227	19.1	116	19.9
참여활동	77	11.9	61	13.5	160	13.4	86	14.7
진로활동	55	8.5	28	6.2	73	6.1	31	5.3
합계	645		452		1,190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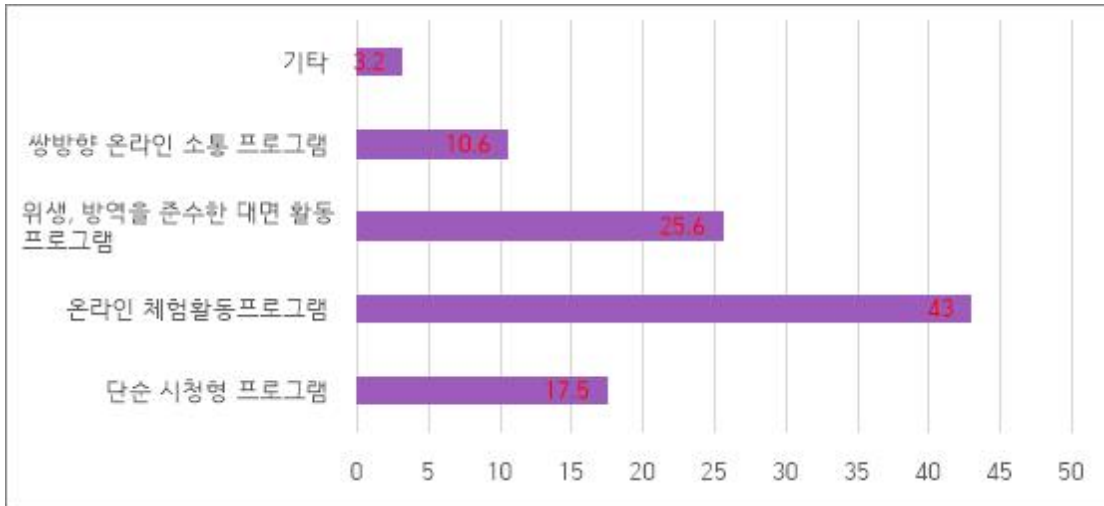
9)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식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03> 참조).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3.0%),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5.6%),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7.5%),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0.6%)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2>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구분	n	%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327	17.5
온라인 체험활동(키트제공) 프로그램	804	43.0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479	25.6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라이브방송, 스트리밍, Zoom 등)	199	10.6
기타	60	3.2
합계	1,869	100.0



<그림 3-13>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 성별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식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04> 참조).
 - 남자청소년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38.5%),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24.3%),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19.1%),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4.2%)의 순으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5.4%),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9.0%),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4.0%),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8.7%)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3> 성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구분	남자		여자	
	n	%	n	%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154	24.3	172	14.0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244	38.5	558	45.4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121	19.1	357	29.0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90	14.2	107	8.7
기타	25	3.9	35	2.8
합계	634		1,229	

○ 학교급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함(<표 3-105> 참조).

- 중학생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1.7%),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6.1%),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8.0%),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0.9%)의 순이었음.

- 고등학생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6.0%),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5.6%),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7.4%),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0.0%)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4> 교급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177	18.0	141	17.4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410	41.7	373	46.0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257	26.1	208	25.6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107	10.9	81	10.0
기타	33	3.4	8	1.0
합계		100.0		100.0

○ 권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방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함.

- 북부권역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3.9%),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9.7%),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19.5%),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3.6%)의 순이었음(<표 3-106> 참조).

- 서해안권역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5.3%),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3.6%),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5.5%),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10.4%)의 순으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0.5%),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30.0%),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6.9%),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9.5%)의 순이었음.
- 남부권역은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45.8%),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25.7%),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17.7%),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9.4%)의 순이었음.

<표 3-105> 권역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87	19.7	48	15.5	125	16.9	66	17.7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194	43.9	140	45.3	299	40.5	171	45.8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86	19.5	73	23.6	222	30.0	96	25.7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60	13.6	32	10.4	70	9.5	35	9.4
기타	15	3.4	16	5.2	23	3.1	5	1.3
합계	442	100.0	309	100.0	739	100.0	373	100.0

10)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주말(오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07> 참조).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주말(오후)가 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평일(오후) 26.7%, 평일(오전) 22.1%, 주말(오전) 20.5%로 응답하였음.

<표 3-106>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구분	n	%
평일(오전)	370	22.1
평일(오후)	446	26.7
주말(오전)	343	20.5
주말(오후)	492	29.4
기타	20	1.2
합계	1,671	100.0

- 성별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주말(오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08> 참조).
 - 남자청소년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평일(오전)이 29.6%, 평일(오후) 26.6%, 주말(오전) 23.2%, 주말(오후)가 18.7%의 순으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은 주말(오후) 35.3%, 평일(오후) 26.8%, 평일(오전) 18.0%, 주말(오전) 19.1%로 응답하였음.

<표 3-107> 성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구분	남자		여자	
	n	%	n	%
평일(오전)	177	29.6	192	18.0
평일(오후)	159	26.6	286	26.8
주말(오전)	139	23.2	204	19.1
주말(오후)	112	18.7	377	35.3
기타	11	1.8	9	0.8
합계	598	100.0	1,068	100.0

- 학교급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주말(오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09> 참조).
 - 중학생은 주말(오후) 30.6%, 평일(오전) 24.5%, 평일(오후) 24.2%, 주말

(오전) 18.8%의 순이었음.

- 고등학생은 주말(오후) 30.5%, 평일(오후) 27.4%, 주말(오전) 22.5%, 평일(오전) 19.2%로 응답하였음.

<표 3-108> 교급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평일(오전)	220	24.5	133	19.2
평일(오후)	218	24.2	190	27.4
주말(오전)	169	18.8	156	22.5
주말(오후)	275	30.6	212	30.5
기타	17	1.9	3	0.4
합계	899	100.0	694	100.0

- 권역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모든 권역에서 주말(오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10> 참조).
 - 북부권역은 주말(오후) 25.3%, 평일(오후) 25.1%, 평일(오전) 21.3%, 주말(오전) 20.4%의 순이었음.
 - 서해안권역은 주말(오후) 31.9%, 평일(오후) 27.2%, 평일(오전) 23.4%, 주말(오전) 17.5%로 응답하였음.
 - 내륙권역은 주말(오후) 31.9%, 평일(오후) 27.2%, 주말(오전) 20.3%, 평일(오전) 19.6%이었음.
 - 남부권역은 주말(오후) 27.4%, 평일(오전) 27.3%, 평일(오후) 25.0%, 주말(오전) 19.1%로 나타남.

<표 3-109> 권역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참여 시간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평일(오전)	86	21.3	62	23.4	129	19.6	92	27.3
평일(오후)	111	25.1	70	22.7	179	27.2	84	25.0
주말(오전)	90	20.4	54	17.5	134	20.3	64	19.1
주말(오후)	112	25.3	75	24.3	210	31.9	92	27.4

기타	5	1.1	4	1.3	7	1.1	4	1.2
합계	404	100.0	265	100.0	659	100.0	336	100.0

11)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 당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는 1-2시간이 가장 많았음(<표 3-111> 참조).
 - 1-2시간이 40.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0.3%, 30분 미만 20.7%, 2-3시간 7.1%로 나타남.

<표 3-110>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 당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에 대한 응답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1-2시간이 가장 많았음(<표 3-112> 참조).
 - 남자청소년은 1-2시간이 37.9%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0.0%, 30분 미만 24.3%, 2-3시간 6.2%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은 1-2시간이 42.3%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0.5%, 30분 미만 18.7%, 2-3시간 8.0%로 나타남.

<표 3-111> 성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n	%	n	%
30분 미만	146	24.3	200	18.7
1시간 미만	180	30.0	326	30.5
1-2시간	228	37.9	452	42.3
2-3시간	37	6.2	85	8.0
기타	10	1.7	6	0.6
합계	601	100.0	1,069	100.0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 당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에 대한 응답을 학교급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2시간이 가장 많았음(<표 3-113> 참조).
 - 중학생은 1-2시간이 39.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9.1%, 30분 미만 23.0%, 2-3시간 7.1%였음.
 - 고등학생은 1-2시간이 44.9%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3.2%, 30분 미만 17.5%, 2-3시간 4.1%로 나타남.

<표 3-112> 교급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30분 미만	206	23.0	123	17.5
1시간 미만	261	29.1	233	33.2
1-2시간	351	39.1	315	44.9
2-3시간	64	7.1	29	4.1
기타	15	1.7	1	0.1
합계	897	100.0	701	100.0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 당 참여할 적절한 시간대에 대한 응답을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1-2시간이 많았음(<표 3-114> 참조).
 - 북부권역은 1-2시간이 40.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2.7%, 30분 미만 17.9%, 2-3시간 7.9%로 응답함.

- 서해안권역은 1-2시간이 41.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9.1%, 30분 미만 22.4%, 2-3시간 4.5%로 나타남.
- 내륙권역은 1-2시간이 41.5%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7.6%, 30분 미만 20.8%, 2-3시간 9.3%로 응답함.
- 남부권역은 1-2시간이 39.3%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32.8%, 30분 미만 22.5%, 2-3시간 5.0%로 응답함.

<표 3-113> 권역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의 적절한 1회 운영시간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n	%	n	%	n	%	n	%
30분 미만	73	17.9	60	22.4	136	20.8	76	22.5
1시간 미만	133	32.7	78	29.1	181	27.6	111	32.8
1-2시간	166	40.8	112	41.8	272	41.5	133	39.3
2-3시간	32	7.9	12	4.5	61	9.3	17	5.0
기타	3	0.7	6	2.2	5	0.8	1	0.3
합계	407	100.0	268	100.0	655	100.0	338	100.0

8.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인식

1)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을 알고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반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3-115> 참조).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의 인지도는 청소년수련관(49.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43.2%), 청소년문화의집(35.9%), 청소년성문화센터(33.7%),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33.6%),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33.1%)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3-114>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안다		모른다	
	명	%	명	%
(1) 청소년수련관	845	49.9	847	50.1
(2) 청소년문화의집	637	35.9	1,137	64.1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61	43.2	1,000	56.8
(4) 청소년성문화센터	514	33.7	1,013	66.3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583	33.1	1,176	66.9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82	21.7	1,380	78.3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3	26.4	1,293	73.6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591	33.6	1,169	66.4
(9) 정신건강복지센터	386	21.9	1,373	78.1
(10) 교육복지센터	524	29.8	1,237	70.2
(11) 지역아동센터	694	29.8	1,237	70.2

- 성별에 따라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을 알고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16> 참조).
 - 남자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36.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32.9%), 청소년상담복지센터(31.1%), 지역아동센터(30.9%),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30.5%), 청소년성문화센터(29.8%) 등의 순이었음.
 - 여자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5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50.2%), 지역아동센터(44.5%), 청소년문화의집(40.5%), 청소년성문화센터(35.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3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5> 성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청소년관련시설	남자				여자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명	%	명	%	명	%	명	%
(1) 청소년수련관	223	36.2	393	63.8	621	58.0	450	42.0
(2) 청소년문화의집	184	28.3	467	71.7	452	40.5	665	59.5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	31.1	446	68.9	557	50.2	552	49.8
(4) 청소년성문화센터	158	29.8	373	70.2	352	35.5	639	64.5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12	32.9	432	67.1	367	33.1	743	66.9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7	21.1	511	78.9	244	22.0	865	78.0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	21.6	505	78.4	323	29.2	784	70.8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97	30.5	449	69.5	392	35.3	717	64.7
(9) 정신건강복지센터	139	21.6	506	78.4	244	22.0	865	78.0
(10) 교육복지센터	181	28.0	465	72.0	341	30.7	769	69.3
(11) 지역아동센터	200	30.9	448	49.1	493	44.5	616	55.5

- 학교급에 따라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을 알고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17> 참조).
- 중학생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각 4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39.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35.8%),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35.6%)의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은 청소년수련관이 57.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42.0%), 지역아동센터(40.1%), 청소년문화의집(3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6>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청소년관련시설	중등				고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명	%	명	%	명	%	명	%
(1) 청소년수련관	395	43.6	510	56.4	446	57.5	330	42.5
(2) 청소년문화의집	317	34.8	593	65.2	305	39.1	476	60.9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5	43.6	511	56.4	325	42.0	449	58.0
(4) 청소년성문화센터	258	31.2	569	68.8	213	34.5	405	65.5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322	35.6	583	64.4	249	32.2	524	67.8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91	21.1	716	78.9	172	22.2	602	77.8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39	26.5	663	73.5	214	27.7	559	72.3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25	35.8	582	64.2	247	32.0	525	68.0
(9) 정신건강복지센터	213	23.5	692	76.5	149	19.3	625	80.7

(10) 교육복지센터	314	34.7	592	65.3	199	25.7	575	74.3
(11) 지역아동센터	356	39.2	552	60.8	310	40.1	463	59.9

○ 권역에 따라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을 알고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서해안권역과 내륙권역은 청소년수련관이었고, 북부권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남부권역은 지역아동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표 3-118〉 참조).

- 북부권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42.9%)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38.1%), 청소년수련관(37.8%), 지역아동센터(3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해안권역은 청소년수련관(69.2%)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44.7%), 지역아동센터(43.8%), 청소년성문화센터(41.7%) 등의 순이었음.
- 내륙권역은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46.5%), 청소년문화의집(45.6%), 지역아동센터(40.4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남부권역은 지역아동센터(39.1%)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37.5%), 청소년수련관(33.4%) 등으로 나타남.

<표 3-117>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단위: 명(%)

청소년관련시설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청소년수련관	182	37.8	300	62.2	175	69.2	78	30.8	372	61.1	237	38.9	115	33.4	229	20.4
(2) 청소년문화의집	188	34.5	357	65.5	80	29.4	192	70.6	276	45.6	329	54.4	93	27.2	249	72.8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1	42.9	308	57.1	119	44.7	147	55.3	282	46.5	325	53.5	128	37.5	213	62.5
(4) 청소년성문화센터	146	31.5	318	68.5	86	41.7	120	58.3	192	33.0	389	67.0	89	33.1	180	66.9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5	38.1	333	61.9	90	33.7	177	66.3	197	32.5	409	67.5	90	26.5	250	73.5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28	23.7	412	76.3	53	19.9	214	80.1	142	23.4	466	76.6	58	17.1	281	82.9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	26.4	396	73.6	70	15.2	197	73.8	166	27.4	439	72.6	84	24.9	254	75.1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87	34.8	351	65.2	73	27.2	195	72.8	219	36.1	388	63.9	111	32.7	228	67.3
(9) 정신건강복지센터	137	25.5	401	74.5	49	18.4	219	81.6	130	21.4	477	78.6	69	20.3	271	79.7
(10) 교육복지센터	163	30.2	376	69.8	79	29.6	188	70.4	183	30.1	424	69.9	98	28.8	242	71.2
(11) 지역아동센터	195	36.1	345	63.9	117	43.8	150	56.2	245	40.4	362	59.6	133	39.1	207	60.9

2)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의 방문(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활동에 참여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3-119> 참조).
 - 방문(대면)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수련관(3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17.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7.9%), 교육복지센터(7.9%), 지역아동센터(7.9%), 청소년상담복지센터(7.82%)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방문(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이용 만족도를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기관의 이용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았음. 특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참여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에서 이용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3.74(SD=.89)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문화의집(M= 3.67, SD=.77), 청소년수련관(M=3.66, SD=.81), 지역아동센터(M=3.60, SD=.83)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활동에 참여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문화의집(3.2%)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수련관(3.1%) 등이 많았음.
-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이용 만족도를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한 결과, 모든 기관의 온라인(비대면)이용경험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음.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낮은 만족도로 확인되었음.
 - 지역아동센터가 3.80(SD=.92)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M=3.65, SD=.9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M=3.63, SD=.92), 정신건강복지센터(M=3.61, SD=.91)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3-118>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단위: 명(%)

청소년관련시설	방문(대면)		만족도	온라인(비대면)		만족도
	이용 경험			이용 경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1) 청소년수련관	1,104 (65.9)	570 (34.1)	3.66(.81)	1,576 (96.9)	51 (3.1)	3.04(.72)
(2) 청소년문화의집	1,431 (82.2)	309 (17.8)	3.67(.77)	1,669 (96.8)	55 (3.2)	3.39(.87)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15 (92.2)	137 (7.8)	3.51(.800)	1,714 (98.4)	27 (1.6)	3.44(.87)
(4) 청소년성문화센터	1,468 (96.5)	69 (3.5)	3.41(.80)	1,494 (98.9)	16 (1.1)	3.65(.93)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665 (96.0)	69 (4.0)	3.36(.98)	1,649 (97.5)	41 (2.4)	3.45(.87)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673 (95.8)	74 (4.2)	3.53(.950)	1,683 (97.9)	36 (2.1)	3.61(.930)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76 (95.9)	71 (4.1)	3.55(.99)	1,706 (98.4)	27 (1.6)	3.54(.83)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598 (92.1)	137 (7.9)	3.74(.83)	1,681 (97.6)	42 (2.4)	3.63(.92)
(9) 정신건강복지센터	1,700 (97.5)	44 (2.5)	3.44(.89)	1,706 (98.3)	30 (1.7)	3.61(.91)
(10) 교육복지센터	1,699 (92.1)	138 (7.9)	3.34(.93)	1,705 (98.0)	35 (2.0)	3.59(.89)
(11) 지역아동센터	1,612 (92.1)	138 (7.9)	3.60(.83)	1,718 (98.5)	27 (1.5)	3.80(.92)

- 성별에 따른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20> 참조).
- 성별에 따른 방문(대면)프로그램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여자청소년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었음.
- 성별에 따른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여자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의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3-120> 성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방문 (대면)		만족도	온라인 (비대면)		만족도	방문 (대면)		만족도	온라인 (비대면)		만족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1)	488 (79.6)	125 (20.4)	3.50 (.95)	571 (95.8)	25 (4.2)	3.11 .78	612 (58.0)	444 (42.0)	3.70 .76	1,000 (97.5)	26 (2.5)	2.97 .66
(2)	566 (88.3)	75 (11.7)	3.50 .90	619 (96.9)	20 (3.1)	3.37 .96	860 (78.7)	233 (21.3)	3.73 .72	1,044 (96.8)	35 (3.2)	3.40 .81
(3)	603 (93.5)	42 (6.5)	3.34 .93	626 (97.5)	16 (2.5)	3.60 1.05	1,007 (91.4)	95 (8.6)	3.58 .72	1,083 (99.0)	11 (1.0)	3.20 .42
(4)	506 (95.5)	24 (4.5)	3.50 .96	520 (98.3)	9 (1.7)	4.00 1.00	958 (97.2)	28 (2.8)	3.31 .64	969 (99.3)	7 (0.7)	3.25 .70
(5)	602 (94.4)	36 (5.6)	3.53 1.03	604 (96.3)	23 (3.7)	3.59 1.00	1,058 (97.0)	33 (3.0)	3.19 .90	1,040 (98.3)	18 (1.7)	3.28 .66
(6)	609 (94.4)	36 (5.6)	3.51 1.12	616 (96.6)	22 (3.4)	3.77 1.06	1,059 (96.5)	38 (3.5)	3.54 .77	1,062 (98.7)	14 (1.3)	3.36 .63
(7)	611 (95.2)	31 (4.8)	3.45 1.06	622 (97.3)	17 (2.7)	3.61 .91	1,060 (96.4)	40 (3.6)	3.63 .94	1,079 (99.1)	10 (0.9)	3.40 .69
(8)	593 (92.8)	46 (7.2)	3.62 .94	615 (96.2)	24 (3.8)	3.75 1.11	1,001 (91.8)	90 (8.2)	3.80 .75	1,061 (98.3)	18 (1.7)	3.44 .51
(9)	619 (96.4)	23 (3.6)	3.54 1.10	622 (96.9)	20 (3.1)	3.76 1.04	1,077 (98.2)	20 (1.8)	3.35 .58	1,079 (99.1)	10 (0.9)	3.30 .48
(10)	622 (96.7)	21 (3.3)	3.52 1.25	617 (96.0)	26 (4.0)	3.72 .98	1,072 (97.4)	29 (2.6)	3.21 .62	1,083 (99.2)	9 (0.8)	3.22 .44
(11)	601 (93.0)	45 (7.0)	3.74 1.00	630 (97.5)	16 (2.5)	4.00 1.00	1,006 (91.5)	93 (8.5)	3.53 .74	1,083 (99.0)	11 (1.0)	3.45 .68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청소년성문화센터,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9) 청신건강복지센터, (10) 교육복지센터, (11) 지역아동센터

- 학교급에 따른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의 방문(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었음(<표 3-121> 참조).
- 학교급별 방문(대면)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낮

있음. 고등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중학생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음.
- 성별에 따른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은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고등학생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3-121> 학교급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단위: 명(%)

청소년 관련시설	중학생						고등학생					
	방문 (대면)		만족도	온라인 (비대면)		만족도	방문 (대면)		만족도	온라인 (비대면)		만족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1)	640 71.3	258 28.7	3.68 .86	849 97.3	24 2.7	3.15 .77	458 59.7	309 40.3	3.64 .77	718 96.4	27 3.6	2.91 .64
(2)	734 81.9	162 18.1	3.62 .80	854 96.3	33 3.7	3.46 .98	619 81.3	142 18.7	3.73 .75	733 97.2	21 2.8	3.25 .67
(3)	809 90.1	89 9.9	3.48 .84	871 97.8	20 2.2	3.63 .89	736 95.2	37 4.8	3.49 .69	763 99.2	6 0.8	2.80 .44
(4)	784 95.5	37 4.5	3.39 .84	804 98.8	10 1.2	3.82 .98	604 97.7	14 2.3	3.33 .61	608 99.0	6 1.0	3.33 .81
(5)	837 93.7	56 6.3	3.33 .95	839 96.7	29 3.3	3.55 .87	747 98.3	13 1.7	3.50 1.16	730 98.5	11 1.5	3.20 .91
(6)	844 94.4	50 5.6	3.42 .99	857 97.3	24 2.7	3.72 .89	748 96.9	24 3.1	3.76 .83	745 98.4	12 1.6	3.36 1.02
(7)	849 94.9	46 5.1	3.46 1.05	867 97.9	19 2.1	3.67 .91	746 96.8	25 3.2	3.75 .84	758 99.0	8 1.0	3.14 .37
(8)	795 88.9	99 11.1	3.73 .83	857 96.6	30 3.4	3.79 .81	724 95.3	36 4.7	3.73 .83	743 98.4	12 1.6	3.18 1.07
(9)	865 96.8	29 3.2	3.48 1.02	870 97.8	20 2.2	3.81 .92	860 95.9	37 4.1	3.46 .66	757 98.8	9 1.2	3.22 .83
(10)	860 95.9	37 4.1	3.28 1.01	868 97.3	24 2.7	3.71 .90	758 98.3	13 1.7	3.50 1.01	757 98.7	10 1.3	3.33 .86
(11)	811 90.1	89 9.9	3.54 .85	876 97.9	19 2.1	4.00 .89	721 93.8	48 6.2	3.71 .81	761 99.0	8 1.0	3.33 .86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청소년성문화센터,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9) 청신건강복지센터, (10) 교육복지센터, (11) 지역아동센터

- 권역에 따른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방문(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의 청소년들은 모두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22> 참조).
- 권역에 따른 방문(대면)프로그램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은 지역 아동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서해안권역은 교육복지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내륙권역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남부권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가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부권역과 서해안권역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륙권역과 남부권역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 만족도를 권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가 가장 낮았음. 서해안권역은 교육복지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가장 낮았음. 내륙권역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마지막으로 남부권역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표 3-121 > 권역별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경험과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북부				서해안				내륙				남부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방문 (대면)	방문 (비대면)										
(1)	378 792	99 208	365 388	444 96.3	17 3.7	304 .93	116 462	135 538	366 .81	233 95.1	12 4.9	306 .55	325 542	275 458	371 .80	567 97.4	15 2.6	319 .75	281 82.2	61 17.8	347 .72	328 97.9	7 2.1	285 .37
(2)	459 85.3	79 14.7	364 .83	526 98.7	7 1.3	350 1.16	228 85.7	38 14.3	346 .63	256 96.2	10 3.8	355 .82	433 73.1	159 26.9	380 .79	553 95.2	28 4.8	348 .89	302 90.1	33 9.9	342 .64	326 97.3	9 2.7	292 .28
(3)	503 93.3	36 6.7	359 .82	533 99.3	4 0.7	350 1.00	241 90.9	24 9.1	348 .66	260 98.5	4 1.5	350 1.00	551 91.8	49 8.2	356 .94	578 97.6	14 2.4	358 .90	312 91.8	28 8.2	334 .55	335 98.5	5 1.5	300 .70
(4)	449 96.8	15 3.2	359 .79	461 99.6	2 0.4	367 1.15	200 97.6	5 2.4	300 .00	204 99.5	1 0.5	300 -	551 95.7	25 4.3	337 .92	556 98.2	10 1.8	389 .50	261 97.0	8 3.0	344 .52	266 98.9	3 1.1	325 .50
(5)	498 93.4	35 6.6	335 1.09	508 97.9	11 2.1	340 .96	258 97.0	8 11.6	350 .75	252 96.9	8 3.1	350 .92	569 96.4	21 3.6	333 .75	555 97.2	16 2.8	373 .88	332 98.5	5 1.5	338 .51	327 98.2	6 1.8	286 .37
(6)	506 94.6	29 5.4	354 .83	524 99.1	5 0.9	367 1.21	257 97.3	7 2.7	357 .97	252 96.9	8 3.1	350 .92	574 95.3	28 4.7	350 1.16	568 97.1	17 2.9	393 .88	328 97.0	10 3.0	355 .52	331 98.2	6 1.8	300 .57
(7)	508 95.1	26 4.9	360 1.04	527 99.2	4 0.8	380 1.09	260 97.7	6 2.3	360 .97	258 97.0	8 3.0	350 .92	571 95.2	29 4.8	360 1.10	577 98.0	12 2.0	345 .82	329 97.1	10 2.9	350 .52	336 99.1	3 0.9	350 1.00
(8)	489 92.4	40 7.6	374 .82	518 98.3	9 1.7	422 .66	251 94.7	14 5.3	346 .89	259 97.7	6 2.3	367 .81	541 90.8	55 9.2	395 .90	569 97.1	17 2.9	363 1.08	309 91.7	28 8.3	346 .63	327 97.0	10 3.0	300 .50
(9)	517 97.2	15 2.9	340 .98	527 99.1	5 0.9	420 1.09	258 97.4	7 2.6	350 .83	259 97.7	6 2.3	367 .81	584 97.2	17 2.8	350 .98	578 97.5	15 2.5	360 .91	334 98.5	5 1.5	333 .51	335 98.8	4 1.2	300 .70
(10)	523 97.9	11 2.1	290 .99	527 98.7	7 1.3	400 1.09	259 97.7	6 12.0	380 1.09	259 97.4	7 2.6	371 .75	579 96.0	24 4.0	348 .42	577 97.3	16 2.7	280 .44	330 97.3	9 2.7	320 .42	334 98.5	5 1.5	280 .44
(11)	506 94.6	29 5.4	375 1.04	531 99.3	4 0.7	450 1.00	252 95.1	13 4.9	338 .96	259 97.4	7 2.6	388 .83	546 90.5	57 9.5	367 .78	584 97.8	13 2.2	379 .89	301 88.8	38 11.2	344 .69	336 99.1	3 0.9	300 .81

IV

제언



제4장 제언

제1절. 충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충남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교육과 활동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특히,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커졌지만 팬데믹상황에서 익숙해지면서 위기 상황에 무감각해지기도 했음.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질 실태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1. 정책 및 서비스 제언

1)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함,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감염병의 확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중보건, 정신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데,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김홍중, 2020). 전통적 사회 공간들(학교, 학원, 극장, 교회, 병원, 군대, 공연장, 피트니스 클럽, 술집, 스포츠 경기장, 식당 등)이 부분적으로 섯다운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면대면 상호작용이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되면서 언컨택트(uncontact) 문화가 확산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정부와 관련 부처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극대화되었음. 대인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지침은 개인의 지각된 고립 및 사회적 단절감이 증대되어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킴(Quach & Burr, 2020; Smith et al., 2020).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우울증인 이른바 '코로나 블

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음(연합뉴스, 2020)³⁾.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레드 또는 코로나 블랙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최근 생겨난 신조어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데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등으로 인해 분노 또는 암담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임.

- 본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짜증/분노(30.6%), 불안/두려움/초조함(14.72%), 우울/슬픔/무기력함(14.62%), 고립감/외로움(5.4%)을 느끼고 있었음. 전체 응답자의 65.3%가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고 있었음. 반면, 긍정적인 정서인 침착함/평온/차분함, 안심,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9.4%에 그쳤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거리낌없음/아무렇지 않음이라는 응답도 25.4%로 나타났음.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기임.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이 시기는 발달 특징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부모, 성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기존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함. 특히, 자기정체(self-identity)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성세대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고 스스로 심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함.
-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자칫 소외감에 젖기도 함.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청소년의 발달에 가정과 청소년기관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 과도한 불안과 무기력한 마음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소진시킬 수 있음.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시간을 늘려야 하고, 청소년기관에서는

3) 연합뉴스(2021. 1. 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056600017?input=1195m>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상태, 상호작용 모습을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인지상황, 염려상황 등을 확인하여 불안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부정적 감정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무기력함, 불안 및 우울등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것임.

2)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위원회 구성과 시스템 마련

-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가장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남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스크포스(TF)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OECD, 2020).
- 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충남 코로나19 운영위원회는 교육 및 청소년활동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차원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목록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온라인 상에 안내하거나,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함.

3)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공습 이후 급속히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비대면 시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교육과 활동’ 임.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학교와 청소년기관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학교와 청소년기관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새로운 일상(뉴노멀, New Normal)으로 받아들이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함.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람을 가지는 것 보다는 변화된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생활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는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역할의 다각화 추진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준수하여 대면으로 진행되는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감정과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제안함. 뉴노멀 시대에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효율성보다는 회복탄력성을 강조하고 있음. 회복탄력성은 생산성을 강조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심리적인 면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재난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진다. 충청남도과 충청남도 내 청소년기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청소년 정서조절 (Emotion regul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임.

4)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충남 청소년활동 정책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청소년활동의 변화 양상과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을 토대로 기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청소년활동의 개념 확장이 요구됨.

구분	기존	확장과 혁신
목적	균형 있는 성장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지향점 (목표)	교육을 보완하는 수단	청소년 주도성 강화
지향점 (목표)	비교과 영역, 보조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을 실천(수련활동) • 공동체 의식 함양(교류활동) •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문화활동) 	적극적인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체험-활동을 넘나들 • 비 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 • 청소년 중심(youth-focused)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제공 방식	공급자 중심(수동적)	청소년 중심(능동적)
사업 방식	정형화된 프로그램 중심	청소년 중심(능동적)
지도자 속성	지시자(Director) 시범(Initiatives)	비정형의 프로젝트 중심
청소년과 지도자 관계	지시-과업 수행	안내자(Guidance) 촉진자(Facilitator) 협력자(Collaborator)
수단	아날로그, 대면, 시설 중심	디지털, 온택트(블렌디드), 지역 중심

자료: 여성가족부(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추출

- 또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유공간 등 충남의 다양한 청소년 현장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실행과 체계 등이 충청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이는 일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확립해 정책을 따르는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와 관련한 충남의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전달체계를 재편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의 기능분화와 전문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같은 신종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충남 청소년 관련 기관의 맞춤형 전염병 예방정책을 확립해야 함. 충남 청소년을 위한 전염병 예방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종전염병 발생 시 올바른 대응을 위해 청소년기관의 예방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대응정책과 지침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함. 또한 긴급 상황에서 가정,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전염병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정,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같이 대응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5)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교류 활동·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임.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충남청소년들은 코로나19이후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활동에서 ‘청소년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활동과 같은 단체활동과 기관활동이 중단되었지만 비대면(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임.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효율성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도와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는 청소년활동도 변화시켰음.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발생 시 집단 감염 등의 문제 발생으로 대규모 단체활동이 중단되었고 소규모 활동도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상태의 대면활동으로 진행되어 운영방법 및 청소년기관의 좁은 면적 등 운영환경의 문제가 드러났음.
- 2021년 12월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청소년시설은 다시 활동축소에 들어갔고, 청소년활동도 잠정적으로 멈추었음. 다만, 일부 기관에서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지만 단체/모둠활동, 체험활동,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함.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간, 청소년과 지도자간에 원활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가 큼.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것은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만나는 초기 라포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행하고자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정확한 설명과 전달이 어려움. 청소년활동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공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대면해서 진행하기 어려워 청소년들이 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쌍방 소통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들은 코로나19이후 청소년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64.4% 참여한적 없음.), 참여한 유형별에 따른 효과성은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비대면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뽑았음. 반면,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없거나 네트워크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상황의 종료를 예측할 수 없는 현재, 기존의 청소년활동방식만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 생활은 물론 많은 시스템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이 상생하는 신개념 시스템의 한 가지 형태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

- 충남에서도 포스트코로나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면 방식의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는 언택트(Untact)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활동도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비대면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비대면 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활동에 필요한 체험키트를 상호 배송하여 활동이 진행되는 딜리버리 모델,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 스스로 활동주제 맞는 활동과 결과를 공유하는 비접촉 랜선 모델, 대면 활동의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활동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스말로그(Smart+Analogue)모델,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의 장점만을 결합한 블렌디드(Blended)모델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⁴⁾.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지도의 과정 중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취와 효과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활동내용과 방법은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활동 내용과 방법 등에 욕구와 흥미를 반영할수록 청소년은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활동 효과도 높음(Alliger et al., 1997; 장운정, 2002; 현영섭, 2009).
- 본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진로직업프로그램(22.7%)과 스포츠 및 양외체험프로그램(21.0%), 학습지원프로그램(17.0%)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이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단순한 재미위주가 아닌 흥미와 교육까지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키

4) 고양시청소년재단(2020). 고양시청소년재단 2020년 하반기 운영방향 및 전략.

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은 자발적이지 않은 청소년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청소년 활동에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떤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의 만족과 함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남의 청소년시설 홍보 방안

-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충남 청소년들 대부분이 청소년시설을 잘 알지 못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대사회는 ‘PR의 시대’임. 과거에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또 개인이나 기업이 좋은 인품이나 자원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제품과 사람, 서비스 속에서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실제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충남의 청소년시설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소년,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도 충남의 청소년시설을 홍보하여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신문, 공공기관홍보지, 청소년시설 홍보 책자, 홍보 리플렛, 청소년 TV 프로그램 편성 등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충남 내 학교 홈페이지에 충남의 청소년관련 기관을 소개하는 글과 진행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둘째, 홍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 또한 청소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유관기관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졌음. 사람들은 외출 자제, 행사·모임 참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에 대해 초반에는 낯설어하고 불편해 했으나 시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음. 언택트는 현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청소년의 성향에 적합함. 밀레니얼 세대는 소위 ‘SNS세대’로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함.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세대’로 디지털 기기·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며 특히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해 영상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자란 세대임.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하 MZ세대)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연결이 돼있는 상태임.. 현재와 미래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되는 MZ세대에게 ‘언택트’ 소통이란 전혀 낯선 것이 아닌 이미 그들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것임.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홍보를 현수막, 팸플릿 제작 등에 한정하지 않고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단순 SNS에 홍보글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 언택트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함. 유튜브(YouTube)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서,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업로드·공유할 수 있음. 유튜브의 월 사용자 수는 19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인이 매일 유튜브에서 10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며,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동영상이 추가되고 있으며 91개 국가에 80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 중임. 유튜브는 국내에서 모든 연령층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전 세대를 합쳐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한 달 평균 317억 분을 이용하였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며, 특히 10대는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세대임. 유튜브는 음악, 뉴스 검색 등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충남 청소년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제2절 전문가 제언

작성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남화성

1. 지역 청소년정책·사업의 관점과 목표 재설정

1)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 인구감소, 저성장 고착 등의 사회환경 변화의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더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지속 상황은 결혼·출산의 연기와 지연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인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증가시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당사자의 일자리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보호자)의 실직 등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여 현재의 청소년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큼.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는 청소년 당사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외출(여행) 제한, 친구와 만나기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상황의 부정적 인식이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외부 활동 제약이나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에 따른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들을 축소 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함.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내, 소규모 지역 사회(동네)에서의 생활 시간이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기존의 청소년

정책이 학교에서 학업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성장 터전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짐.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활동, 교육, 복지, 돌봄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접근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변화 필요성을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과 소속 학교, 지역사회에 관한 애착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청소년 개개인에게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과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가정, 지역사회 단위까지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임.

2)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충남도민으로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미래 진로에 대한 영향 인식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청소년 미래 진로의 형태는 삶의 방식, 진입 가능한 일자리의 유형과 분야, 진로·직업 선택의 기준 등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인재 육성, 역량 강화 등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삶과 복지, 행복, 흥미와 관심, 개인적 가치관의 형성 등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음
- 2021년 발표된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종합계획(2021~2023)의 비전과 정책 목표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지역의 청소년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음



[그림 39] 충남 청소년정책 비전전략체계도

※ 출처 : 충청남도(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종합계획(2021~2023) 수립연구. p.110

- 충청남도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방향은 현재의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성장한 청소년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충청남도에서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표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청남도의 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가되어야 함.

- 또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의 일자리를 따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신규유입 청소년 등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2. 지역 간 생활·성장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1) 온라인·비대면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상황에서 가정 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여가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몰입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음
 - 청소년이 스스로 장시간의 여가, 스마트폰 활용 시간을 건강한 휴식과 의미있는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비대면 청소년사업은 기존 지역 청소년사업(활동, 상담복지, 보호 등)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
 - 그러나 온라인·비대면 여건에서의 청소년의 여가, 학습, 활동, 상담 등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비대면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15% 수준이며, 64.4%의 청소년은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환경에서 온라인·비대면 기반의 여가, 학습, 활동, 상담을 지원하고 주거, 식사, 지역환경, 건강·보건 등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활동 참여, 학습, 상담·지원 등이 가능한 지역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필요(참고: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 시설·센터 내방형 청소년사업에서 플립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Project-Based Learning) 등을 활용한 청소년 주도적 활동·학습 활성화로의 전환 기회임을 주지하여 도내 관련 활동정보 취합·제공

등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참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비대면 청소년활동 찾기-충남지역 검색)6)

2) 청소년재단 등 공공분야 청소년사업 지원·전달체계 구축 강화

- 온라인·비대면 청소년사업만으로는 모든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사업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 지원 체계의 안정적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사업들은 시청각적·간접적·단기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용이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대인관계, 공동체·모임에서의 상호작용 등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5) <http://cheum.hi1318.or.kr/base/main/view>

6) <https://www.youth.go.kr/youth/act/actOper/allActSearchLst.yt?sCrtfcText=&sStemntText=&sort=&order=&page=1&rows=&kCrtfcSn=&kFcitySn=&kSnOne=&kPrgrmseCode=&kSnTwo=&kStemntManageNo=&kStemntSn=&kCrtfcAt=&kStemntAt=&kStemntNo=&kExclncrtfcAtchmfnlId=&searchDt1=&search=&sActRelmcode=&sActRelmcode1=&sActRelmcode2=&sActRelmcode3=&sActRelmcode4=&sActRelmcode5=&sActRelmcode6=&sActRelmcode7=&sActRelmcode8=&sActRelmcode9=&sActRelmcode10=&sActRelmcode11=&sActRelmcode12=&sCurSearchFlag=Y&nas.cmm.token.html.TOKEN=782f74c5a44fb1b012ffa4033df554f4&sKeyword=&sActCptrvnCode1=020011&sActSignguCode1=&sActCptrvnCode2=&sActSignguCode2=&sActCptrvnCode3=&sActSignguCode3=&sInstTyCode=&sInstTyCode2=&sTrget=&sAge=&sTayng=&pc=&acteraDe=on&sActeraBeginDe=&sActeraEndDe=&sCurSearchFlag=Y&sChkSearchFlag=Y&curMenuSn=1859>

- 온라인·비대면 청소년사업을 개발·추진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현장 청소년사업 분야가 해당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환경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는 시·군·구 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등의 인구변화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고비용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향후에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시설 건립외에 청소년재단의 설립이나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등 청소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시·군 단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청소년사업의 효과적·효율적인 대안 전달체계로 작용할 수 있음

 <p>청양군청소년재단 (2021년 4월 출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p>	 <p>당진시 청소년재단 이사·감사 공개모집 (2022년 1월 출범 예정)</p>
--	---

- 청소년재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역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

7) <http://www.newssesang.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91>

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음.

3.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의 ‘(가칭)충청남도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

- 환경분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15건의 지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 2021년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청소년의 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세분화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은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각 영역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하는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기금, 기관(청소년진흥원), 단체(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대상 등 일부의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
 - 지역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충청남도 및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항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 대전, 광주 등의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청소년기본법’에 대응하는 ‘청소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음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시장의 책임, 지원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

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97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기본법과 유사)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기본법과 유사)

제6조(시장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청소년의 날)

제10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1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광주광역시 청소년기본조례에서는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사업의 추진과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1. 3.] [광주광역시조례 제5808호, 2021.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청소년의 달)

제2절 청소년육성위원회

제8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제4절 청소년지도자 등

제14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및 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절 청소년 전담기구 등

제1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

2.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절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제18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20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21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22조(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②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 ④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24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25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제27조(기금의 조성)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9조(지원대상)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1조(기금운용계획) 제32조(기금운용 심의) 제33조(회계공무원) 제34조(결산 및 보고)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5장 광주광역시 청소년대상 제36조(청소년대상) 제3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8조(심사위원회)
제6장 보칙	
제39조(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40조(지도·감독 등) 제41조(포상) 제42조(시행규칙)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세부 조례 별로 분절적으로 마련된 다양한 조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전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필요

- 권역, 지방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범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청소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사업의 추진 목표, 기본원칙, 가치를 제시하여 청소년정책 변화의 방향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역할 설정
- 충청남도 청소년의 성장 지원에 대한 투자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내기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강조하고, 타 부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유도
- 충청남도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

1. 정서상태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서상태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느끼는 감정 중 ‘짜증/분노, 우울/슬픔/무기력감, 고립감/외로움’ 등 부정적 응답 비율이 65.3%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코로나 19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심리상담’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0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우울·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청소년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음. 그러나 단기적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개별적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에 따른 심리검사와 이에 따른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상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이를 온라인 공간 또는 오프라인 공간에 유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내용이 유출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자가검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소년용 정신건강 선별척도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필요시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1> 정신건강 선별척도

다음의 각 문항에는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이 적혀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2주일 동안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하나 골라 주십시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하나 골라서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다 소 그 렇 다	분 명 히 그 렇 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안절부절 못 하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나는 자주 머리카락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함께 나눈다. (예, 음식, 게임 또는 연필 등)			
나는 매우 화가 나고 자주 불같이 성질을 낸다.			
나는 일반적으로 홀로 놀거나 혼자 있으려고 한다.			
나는 주로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속상해 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나는 언제나 꿈틀거리고 꿈지락거린다.			
나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좋은 친구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자주 불행하고, 낙담하며, 눈물이 난다.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나는 쉽게 주위가 분산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낯선 상황에서 불안해진다. 나는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나는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다.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는 비난을 받는다.			
다른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괴롭힌다.			
나는 자주 사람들을 자진해서 돕는다.(예, 부모님, 선생님, 아이들)			
나는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나는 집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온다.			
나는 내 나이의 사람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나는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마친다.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반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에서 ‘침착함/평온/차분함, 안심,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9.4%에 불과함.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순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보내던 코로나 19 이전 생활 패턴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겨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살펴보고 긍정적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아인식과 자존감 함양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자아인식과 자존감 함양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격려→타인이해·수용·격려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존중 및 타인존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자기이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임. 자기의 신체, 가족, 능력, 가치관, 교우관계, 감정 등의 인식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의 기초가 됨. 자기수용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임.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또한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하는 가식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함. 자기격려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주입하고 용기를 주는 것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내적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됨. 타인이해·수용·격려 활동은 자기를 이해하는 활동과 자기개방의 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임. 자기수용을 통해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됨(조은파, 2012: 45). 이러한 자아인식과 자존감 함양 프로그램은 긍정적 자아인식 함양과 위기 상황에서도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균형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생활실태

- 조사 결과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이후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코로나 19에 따른 고립감/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코로나 19로 인해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1순위 개인관리 위생(33.0%), 2순위 외부활동 제한 (23.95)으로 나타남. 코로나 19의 감염 우려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이후 충청남도 청소년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이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으로 게임, 채팅, 인터넷 서핑 등 스마트폰 사용과 PC 사용이 74.9%로 나타남.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PC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코로나 19로 인하여 관계의 단절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사이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정서행동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방식이 전환되어야함. 미국은 「학업·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를 제정하여 사회정서학습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마음챙김은 의도적으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마음챙김 교육은 호흡과 명상, 신체 동작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지속적인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

소, 불면증 감소, 만성적인 육체적 고통 감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 면역 체계 강화, 집중력 향상, 행복감 향상, 변화나 어려운 삶의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 등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김우리·배현순, 2020: 3-4). 마음챙김은 청소년에게도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마음챙김 교육 효과

<p style="text-align: center;">스트레스 및 불안관리</p> <p>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향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줌</p>	<p style="text-align: center;">인지건강 및 주의력 강화</p> <p>마음챙김은 선택, 의사결정, 건강한 인지 기능에 있어 보다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초점을 되돌려 놓기 위한 정신 근육을 강화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성 함양</p> <p>마음챙김이 깊어짐에 따라 자기돌봄과 자기연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인식 및 균형 강화</p> <p>마음챙김은 감정, 특히 어려운 감정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줌</p>
<p style="text-align: center;">공감 및 연결 촉진</p> <p>마음챙김은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더 깊은 연결감을 발달시킴. 공감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에 도움을 줄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회복력 향상</p> <p>마음챙김은 인내, 유연성, 평정 같은 능력을 제공해 역경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줌. 안정, 휴식, 평화 등 긍정적인 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일상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줌</p>

(김우리·배현순, 2020: 19-20).

- 구체적으로 영국의 애버딘 대학(University of Aberdeen)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마음챙김 교육과정을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함.

<표 4-3> 마음챙김 교육 내용

마음챙김 교육 내용
<평생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야심차고 능력 있는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과 초점 선택 • 호기심, 관심, 탐구와 같은 지지적 태도 • 자아에 대한 인식(신체와 마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관계기술 • 메타인지 인식(모든 내부 및 외부 경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 두뇌에 대한 지식과 두뇌 기능이 학습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법 •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학습 가치 • 독립성과 자율성 • 변화와 긍정적인 관계
<삶과 일에 온전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순간을 통한 삶의 참여와 감각 인식 • 기술과 강점을 인식하기 위한 자기인식 및 지식 • 상황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모두 평가하고 사용가능한 대안과 유연성 확장 • 자기관리 전략 • 경험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 자신과 타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
<세계적인 윤리적 지식을 가진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자 개인으로서의 자아인식 • 어려운 상황에 습관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에 반응 • 자신, 타인 및 장소와의 연결 • 연민, 친절, 공감 및 감사는 인류 번영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신감 있고 건강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감정 및 신체감각 간의 상호 연결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완전한 참여 강화 • 현재의 순간 인식과 신체적, 정서적 경험에 존재하는 개발된 자기 지식에서 구축된 자기 관리 전략 • 경험을 '진실'하고, 가치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확신 • 호기심과 긍정적이고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려는 의지와 태도 •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 기술 •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감정과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

-
- 고통에 대한 내성 및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 선택 능력 향상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 친절 및 연민의 개발
 - 자기 주도적 전략을 통한 수완과 회복력
-

(<https://mindfulnessinschools.org/mindfulness-in-schools-project-misp-and-the-new-curriculum-for-wales/>).

3. 가족관계

- 코로나 19이전과 이후 충청남도 청소년들과 부모님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30분 미만’ 과 ‘2시간 이상’ 이라는 응답이 각각 증가함. 이를 통해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정서를 전달받음. 또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주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나눌 수 있어 상호 간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따라서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필수적임. 대화시간은 의사소통의 양적 변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은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임. 부모와 자녀 대화시간은 자녀의 성장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줌.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진로 태도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남.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상호 간의 이해와 당면한 문제 상황 및 갈등 극복에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개인화 경향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모 자녀 대화시간의 부족이나 부재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대화시간 자체의 양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태도로 서로 간의 대화에 임하여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개설될 필요가 있음.

4. 학업 및 온라인 수업

-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를 선택하였음. 따라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이 협업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그림 4-1>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학습자료

<p>초기 화면</p>	<p>전체 메뉴</p>
<p>스쿨포유 초등학교용</p>	<p>스쿨포유 중학교용</p>

(충청남도 교육청연구정보원: <http://smart.edus.or.kr>)

5. 진로

-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코로나 19 이후에 가장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며, 코로나 19 상황 종료 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진로활동’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 탐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는 이전의 사회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임. 코로나 19로 인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직업 탐험 기회, 현장 실습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충청남도에는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음. 이러한 대학과 협력을 통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질 높은 다양한 진로체험 과정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진로교육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와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개발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직업선택 및 진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지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업체험 및 실습을 통해 진로비전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의 가치를 정립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표 4-4>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교육과목	교육내용
현장직업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상점,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직업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 공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

	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 ※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 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교육부 진로체험망 꿈길: www.ggoomgil.go.kr)

6. 청소년 활동

- 조사결과 코로나 19 이후에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진행하는 대면 혹은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64.4%로 나타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함.
-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코로나 19 상황 종료 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온라인 체험활동(키트제공) 프로그램을 선택함. 따라서 정서 발달, 생활 개선, 가족 관계 개선,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음.
- 대구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dge.go.kr)에 프로그램 자원, 온라인 프로그램 자원, 학습 자료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요리, 경제, 4차 산업혁명과 로봇, 4차 산업혁명과 3D펜, 4차 산업혁명과 드론, 멘토링, 청소년 역사크리에이터 양성교실, 게임개발, 소프트웨어 참여교실, SW 교육 아카데미, 독도 교육 등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들이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 대면과 비대면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우리·배현순(2020). 코로나19 이후의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조은파(2012). 초등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자존감 함양 방안 연구, 서울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2021). 202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과정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부 진로체험망 꿈길: www.ggoomgil.go.kr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대구광역시교육청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www.dge.go.kr

충청남도 교육청연구정보원: <http://smart.edus.or.kr/index.do>

Misp School Project:

<https://mindfulnessinschools.org/mindfulness-in-schools-project-misp-and-the-new-curriculum-for-wales/>

작성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노자은

조사영역 중 ‘정서상태’, ‘가족관계’, ‘학업 및 온라인 수업’, ‘진로’, ‘청소년활동’ 분석결과에 관해 제언하고자 함.

1. 정서상태

-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청소년 중 42.8%가 코로나19로 인해 “짜증/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로 외부활동 제한, 감염 위험으로 인한 대면 만남 감소 등 사회적 행위의 제약인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관련 정보제공이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서비스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상태와 그 해소에 있어 현재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합한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즉,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상태에 관한 다각도의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급별, 성별 심리적 어려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유래없는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새롭게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인 만큼, 기존의 정서상태 판단 도구나 기준, 상담방식을 고수하기보다 현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입 효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의 변형 및 개발 노력이 요구됨.

2. 가족관계

- 응답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전후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대체로 증가하였고, 가족과의 대화내용, 함께 보내는 시간, 친밀도와 같은 상호작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냄. 또한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함.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중심의 생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 학교 미등교, 온라인 수업 대체 비율이 높고 수업일수를 체험학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 학교에서도 출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는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는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부모 역할 필요
- 청소년현장에서는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 세대는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회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 이에 새롭게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궁극적으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자녀의 개인화된 욕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지자체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것 또한 청소년현장의 의무라 할 수 있음.

※참고 : 지자체의 가족 지원 정책 사례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음. 해당 기본계획에는 '상호존중 기반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강화', '지역돌봄체계 질적 강화', '지역사회 일상돌봄 지원' 과 같이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반 가족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의 가족 지원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라 볼 수 있음.

- 또한 취약한 가족구조에 놓인 아동, 청소년이 균형적 성장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 활동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형성 기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됨. 가족여행, 캠핑 등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경험 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임.

3. 학업 및 온라인 수업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확인됨.
 -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통학시간의 절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꼽음.
 - 반면 만족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일방적인 수업 방식, 부실한 학습 내용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됨.

- 청소년현장은 공적 돌봄 기능 또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체계로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습 격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현장은 지역 청소년의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적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 때 교육지원 서비스는 교과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로 구성하기보다 청소년활동과의 접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온택트 시대는 학습의 장인 학교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하였고,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도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권순정, 2020⁸).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⁹)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특히 초·중·고 학부모의 90%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하는 학습 격차의 원인으로는 학생의 학습 능력 차이(20%), 부모의 학습 지원 차이(17%),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의 한계(17%),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차이(16%),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적응력의 차이(14%) 순으로 조사됨.
 - 즉, 개인 학습 능력이나 적응력 차이, 부모의 학습 지원과 같은 개인적, 가정 배경의 특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의사소통 및 피드백의 한계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 정보사회를 지나 지능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본격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였음(주윤경, 2018¹⁰). 정보 불평등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이기호, 2020¹¹), 특히 취약계층*은 삶의 면면에서 복합적인 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취약성이 증침됨.

8) 권순정 (2020).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과제: 재조명되는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학교의 역할.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239.

9) 한국일보(2021.03.11.)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10) 주윤경 (2018). 지능정보사회와 정보불평등. KISO Journal, (33), 33-37.

11) 이기호 (2019).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74, 16-28.

※참고 : 취약계층의 정의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고(질병, 산업재해, 실업·실직 등) 또는 생애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험(학교 졸업 후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 조기 퇴직 이후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층 등)에 맞닥뜨렸을 때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계층을 가리킴(김현수, 2014¹²⁾).

-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음.

※참고 :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포용 정책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은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 모두가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함. 여기에는 공공기관을 정보화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 지능정보역량 교육 강화와 같은 디지털 포용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¹³⁾.

12) 김현수 (2014).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1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4. 진로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19가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본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직업프로그램이 꼽힘.
-
- 코로나19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계층의 진로 계획을 심각하게 지연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신정아, 김장희, 2021¹⁴).
 - 기업의 신규 채용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자체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음. 청년층의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취업난은 해당 계층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가중되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게 됨. 이를 목도하는 청소년 세대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폐쇄 여파를 회복하기 위해 '진로지도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Career Guid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교육플러스, 2021.07.26.¹⁵).
 -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진로교육법에 의거, 31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같이 마을과 연계한 배움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 중임.
 - 청소년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그 흐름에 맞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제공 노력 필요.

14) 신정아, 김장희 (2021).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진로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8(3), 139-158.

15) 교육플러스 (2021.07.26.). 청소년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면?... "진로지도에 투자하라".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

5. 청소년활동

-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관련 시설의 대면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대면(온라인)활동이 대면활동보다 좋았던 가장 큰 이유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청소년현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참여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외출을 위한 준비 시간 등 소요 시간 절약 측면이 큼.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재미없으면 집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참여 수준의 자유로움이 있으며, 어디서든, 어디서 하는 것이든, 어떤 것에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보호자는 자녀의 활동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 가능.
 - 기관 측면에서는 물리적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고,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 제약, 공간 제약이 덜하며, 거리가 먼 지역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어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홍보포스터, 현수막 대신 카드뉴스와 같은 웹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 최소화 가능
- 반면 비대면 방식 청소년활동의 단점 또한 존재
 - 참여자 측면에서 집중하기 어렵고, 운영방식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 정보전달이 일방향적이라는 점, 간접적인 학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임.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혼자 참여한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음.
 - 운영기관 측면에서는 비대면 방식에 적합한 활동 주제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실제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녹화 등) 시 적용할 보편적 기준(저작권 포함 계약 문제, 반복 사용 시 수당 문제 등)이 없다는 점 또한 비대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제

- 약 요인이 됨.
- 청소년지도자는 프로그램 전·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케어(예. 안부, 고민상담 등)가 어렵고, 비대면 활동 툴 활용 역량 개발이 새롭게 요구됨. 나아가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량 더욱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 활동은 주된 교육 및 활동 방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이에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온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비대면 활동 주제 개발을 위해 청소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점점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디딤터가 가능한 장치(활동요소),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는 활동요소가 무엇인지 고민 필요
 - 활동 재료 사전 전달 등 촘촘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자 간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네트워킹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대면 활동 기획 및 운영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고, 비대면 운영 환경 조성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지역 내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는 노력을 들 수 있음.
- 사실상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가 지닌 공간적, 방법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공교육현장에서는 연이은 등교 연기와 온라인 학습으로의 급격한 대체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이 온전한 공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청소년현장에서는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이용시설 또한 장기간 휴관하여 청소년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교류가 급감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불안과 불신 수준이 점차 높아짐
 -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교육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온라인교수법 활용 자원과 훈련 부족,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의 어려움, 학부모 지원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 청소년 발달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기능은 서구에서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 : CYD)’모델로 구축되어 왔음.
 - 이 모델은 지역의 역사성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역의 발달적 맥락을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배움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음.

※참고 : 지역사회청소년개발 모델의 원칙

- 청소년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포함한 사회적 기본 권리를 가져야 함
- 청소년은 학교와 같은 기구나 제도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음

-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상호작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임. 반면 경험적 혜택 측면에서는 여전히 물리적인, 대면적인 방식이 중요함.
 - 디지털화 경향, 개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 옴니채널 전략, 로컬 비즈니스 등 사회적 변화와 각 분야에서의 대응을 감지하고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무엇이 변화하고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2020년 4월 1일을 기준, 전국적으로 총 52,261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20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20], 충청남도의 경우 2020년 총 2,006명이 학교를 그만둠. 2017년 약 1,800명, 2018년 약 1,850명, 2019년 약 2,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실시: 현재 본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충남지역 14개 Wee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초기부터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사업이 필요함.
-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 시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직업,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2. 후기 청소년 관련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함. 따라서 해당하는 모든 연령대에 청소년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초, 중, 고등학교급 청소년인 19세 이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각종 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교 졸업을 유예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고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는 후기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후기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천안, 아산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대학진학 및 취업에 의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음.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후기 청소년 중 취업준비생, 취업자, 무직 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이 필요함.
- 충청남도의 경우 캠퍼스 및 사이버대학교, 대학원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39개의 대학교(4년제, 2/3년제 포함)가 있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아산, 천안과 같이 대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의 경우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함.

3. 다문화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2017년 13,021명, 2018년 13,868명, 2019년 14,590명). 2019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교 11,824명, 중학교 2,856명, 고등학교 743명으로 매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등교중지, 온라인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며 소통의 부재를 가져옴. 얼굴과 표정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데 마스크 착용은 얼굴과 표정을 가림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알기 어렵게 함.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또래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학습, 의사소통, 또래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및 상담 사업을 구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충남지역 총 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ex. 대학생 후기 청소년과의 멘토-멘티 사업 등)
-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4. 청소년 '정서' 관련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비율(65.3%)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비율(8.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특히 우울감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와 정서적인 부분에서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을 더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는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본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큰 부정적 감정 유발 요인이었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들간 상호작용 경험을 늘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부정적인 감정과 무기력의 경우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과 같은 부정정서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음. 하지만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도움으로 심리상담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청소년 시기의 경우 또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 하였을 때 자해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구분에 중점을 두기보다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과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5.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자기조절 관련 프로그램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을 응답함(23.9%). 이는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코로나19 이후 주로 하는 활동 1순위로 스마트폰 사용과 PC사용이 1, 2위로 나타나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상 속에서 필수가 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스마트 기기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함.
- 코로나19 이전,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아동의 경우 학교 및 부모의 통제, 학습에서 스마트 기기의 낮은 활용도 등 다른 청소년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 기기 사용빈도가 낮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기기 활용 빈도를 높임. 따라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자기조절 측면에서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음.

6. 부모-자녀 의사소통 관련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부모 또한 자택근무의 빈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은 부모와 자녀로 하여금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림. 이에 따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갈등이 증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부모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자녀와의 대화법,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위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어야 함.

참고문헌

- 고양시청소년재단(2020). 코로나19,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김은희 · 김병 · 김미연 · 이용환 · 이우언 · 이정남 · 임동빈 · 전대성 · 주철현 (2009). 정신건강론, 서울: 창지사.
- 김현우(2020). 코로나19상황에서 중 · 고등학교 온라인 체육수업 활용 실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3), 41-53.
- 김홍중(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54(3), 163-187.
- 박한선(2015).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생명윤리포럼 4(3).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5. [http://nibp.kr/news/2015_03/3.pdf]
- _____ (2020).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Future Horizon Plus. 44. 34-41.
- 손현일 · 김기욱 · 허종배 · 박충훈(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BDI 정책포커스, 1-12.
- 수원청소년재단(2020). 2020년도 코로나19대비 청소년실태 및 요구도 조사.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이동훈 · 김예진 · 이덕희 · 황희훈 · 남슬기 ·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미정(2020).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실행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상 · 신동광(2020).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3(4), 39-57.
- 조현정(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좌현숙(2014).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2). 334-366.
- 질병관리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지자체용)
- _____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7-3판)

(2021). <http://ncov.mohw.go.kr>. 국내발생 현황 자료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2021). **충남청소년정책3개년계획안**. 충남:연구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Post-코로나19시대,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 내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3. 1). 한국 아동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학교생활 만족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 6. 18). ‘코로나19 2차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발표. http://kstss.kr/wp-content/uploads/2020/06/20200618_KSTSS_press-1.pdf (검색일: 2020. 1. 1)

Bagcchi, 2020; Pappas, et al., 2009; Ramalingaswami,2001

Main, A., Zhou, Q., Ma, Y., Luecken, L. J., & Liu, X.(2011). Relations of SARS-related stressors and coping to Chinese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the 2003 Beijing SARS epidemic.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410-423.

Smith, L., Jacob, L., Yakkundi, A., McDermott, D., Armstrong, N. C., Barnett, Y., & Tully, M. A.(2020). Correlates of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and mental wellbeing associated with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of UK-based respondents. *Psychiatry Research*, 291, 113138

Roger M., David D. (2004).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 Portfolio Hardcover

부록 1.

Code번호:		-			
---------	--	---	--	--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조사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자료들은 향후 청소년종합지원체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설문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

위 내용을 읽었으며, 본 설문에 대한 참가는 자발적이라는 것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설문 참여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8월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 설문지 작성 중 문의사항

© 연락처 : 041)562-9003

2. 코로나19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해주세요.

코로나 19 이후 삶의 이슈에 ① 변화가 있다 ② 변화가 없다

2-1 (① 변화가 있다에 체크한 경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이슈는 어떤 부분인가요?

코로나 전	①학업 및 성적	② 건강관리	③ 친구관계	④ 가족관계	⑤ 기타()
코로나 후	①학업 및 성적	② 건강관리	③ 또래관계	④ 가족관계	⑤ 기타()

3. 코로나19로 인한 느낌과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내가 감염될까봐 두렵다.						
2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될까봐 두렵다.						
3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부정적인 감정(절망, 불안, 우울 감 등)을 느꼈다.						
4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5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청소년 생활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4. 코로나19이후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그렇지않다 1 2 3 4 5 매우그렇다

5. 코로나19이후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많이 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1	2	3
---	---	---

① PC(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	② 스마트폰(게임, 채팅, 인터넷서핑 등)	③ TV시청
④ 운동	⑤ 영화 및 공연관람	⑥ 독서
⑦ 청소년활동	⑧ 거리구경 및 쇼핑	⑨ 낮잠
⑩ 아르바이트	⑪ 노래방	⑫ 자원봉사
⑬ 친구들과 대화	⑭ 종교활동	⑮ 온라인 학습
⑯ 가족과 보내는 시간	⑰ 취미활동	⑱ 기타

6.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1		2		3	
---	--	---	--	---	--

- ① 온라인 비대면 교육 ②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등) ③ 외부활동 제한
 ④ 친구를 만나지 못함 ⑤ 생활패턴 불규칙화 ⑥ 막연한 걱정과 불안
 ⑦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성 및 경계 ⑧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⑧ 학업/진로의 불확실성 ⑨ 가정내 갈등 ⑩ 없음 ⑪기타 ()

7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수면패턴 ② 식사패턴 ③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④ 위생에 대한 인식 ⑤ 건강에 대한 관심
 ⑥ 체력관리 방법 ⑦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⑧ 친구, 동아리 등 모임시간과 형태 ⑨ 변화없음 ⑩ 기타

8. 코로나19기간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 ① 학습지원 ② 식사지원 ③심리상담 ④ 다양한 활동 참여
 ⑤ 스마트 기기 지원 ⑥ 정보공유(안전관련 정보, 대면/비대면 활동 기관정보 등) ⑦ 기타()

9.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등하교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했다.					
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출(외식, 영화, 쇼핑 등)에 지장이 있었다.					
3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인 일정 및 계획(친구만나기, 가족여행 등)에 지장을 받았다.					
4	코로나19로 인해 공적인 일정 및 계획(수업과 시험 등)에 지장을 받았다.					

10. 코로나19이후 여러분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2	3	4	5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3. 가족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코로나19 이전의 부모님과 하루평균 대화시간은 어떠했나요?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④ 2시간 이상

12. 코로나19 이후의 부모님과 하루평균 대화시간은 어떠한가요?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④ 2시간 이상

13.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해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변화없다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1	가족과의 대화 내용					
2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					
3	가족 간의 사랑과 상호존중					
4	가족의 일상생활					
5	가족의 친밀도					

14. 코로나 전과 후의 문항을 구분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원(관심, 칭찬, 대화)을 받고 있나요?

		1	2	3	4	5	
코로나 전	매우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코로나 후	매우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4. 청소년 학업 및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5. 자신의 집에 다음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2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		
3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16. 학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고 있나요?

	1	2	3	4	5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16-1. (16번 문항에서 ④ 또는 ⑤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자율적인 학습 가능 ② 통학시간 절약 ③ 규칙적인 생활 가능
 ④ 코로나19 감염 예방 ⑤ 풍부한 학습 내용 ⑥기타()

16-2. (16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 ① 온라인기기 조작 미숙 ② 일방적 방식의 수업 ③ 친구와의 만남 감소
 ④ 흥미가 유발되지 않음 ⑤ 부실한 학습 내용 ⑥ 기타

17.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고르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2	학교숙제가 많고 따로 학원이나 과외공부까지 해야 한다.					
3	각 과목에 따라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르겠다.					
4	공부 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빼앗긴다.					
5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6	수업시간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다.					
7	수업시간 중에 지적을 받는다.					
8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9	수업시간 중에 친구가 장난이나 말을 건다.					
10	온라인 수업이 재미없다					

5.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8. 코로나 19 이후 장래희망 직업이 변하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 □ □ □

19. 코로나 19로 인해 진로진학 준비(예: 학원, 자격증 취득 준비 등)에 변화가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 □ □ □

20. 코로나 19는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0-1 ① 예(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코로나19는 미래 자신의 직업(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1 2 3 4 5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 □ □ □ □

6.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1.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 ① 대면프로그램만 참여 ② 비대면프로그램만 참여 ③ 둘 다 참여 ④ 둘 다 참여한 적 없음

22. 충청남도의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관련시설	인지도		방문(대면) 이용 경험		방문(대면)이용 만족도 (이용경험이 '②있다'인 경우에만 응답)					온라인(비대면) 이용 경험		온라인(비대면)만족도 (이용경험이 '②있다'인 경우에만 응답)				
	안다	모른다	없다	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없다	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활동·수련거리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정보·문화·예술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상담·치료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성상담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중독상담·예방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전교육·예방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직업탐색·진로검사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복지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아동센터 (기초학습지원·방과후지도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3번-27번 문항은 청소년관련시설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세요>

23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나요?

- ① 친구추천 ② 부모님추천 ③ SNS ④ 홈페이지 ⑤ 기타()

24.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 ① 부모님의 권유 ② 친구 권유 ③ 재미 ④ 봉사활동 ⑤ 자기계발 ⑥ 기타()

25.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활동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대면프로그램 ② 비대면프로그램 ③ 대면, 비대면 둘 다 비슷함 ④ 참여한 적 없음

26.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은 대면활동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중복선택)

-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②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 ③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
④ 다양한 활동가능 ⑤ 기타 ()

27.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온라인)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 ① 네트워크 문제(데이터, 와이파이 등) ② 기기나 여건(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부족
③ 참여하는 느낌이 부족 ④ 대면활동에 비해 재미가 부족
⑤ 쌍방향 소통 부족 ⑥ 기타

28. 포스트19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은 무엇인가요?

- ① 학습지원 프로그램 ②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③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건강관리 프로그램
⑤ 진로직업 프로그램 ⑥ 스포츠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⑦ 심리상담 ⑧ 기타()

29.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중복선택)

- ① 건강증진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탐사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자원봉사활동 ⑦ 진로활동 ⑧ 참여활동 ⑨ 진로활동

30.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청소년 프로그램 중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중복선택)

- ① 단순 시청형 프로그램 ② 온라인 체험활동(키트제공) 프로그램
③ 위생, 방역을 준수한 대면 활동프로그램 ④ 쌍방향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라이브방송, 스트리밍, Zoom 등)
⑤ 기타()

31.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평일(오전) ② 평일(오후) ③ 주말(오전) ④ 주말(오후) ⑤ 기타()

32.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1회 당 참여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30분 미만 ② 1시간 미만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기타()

33.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2021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연구진

성명	소속	비고
최현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김민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손진희	송실사이버대학교	책임연구원
남화성	군포시청소년재단	
노자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임현수	경희대학교	

2021 코로나 19 이후 충청남도 청소년 삶의 질 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발 행 2021년 12월
 발 행 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TEL 041-562-9003 FAX 041-552-1984
 홈페이지 www.cnyouth.or.kr 페이스북 /cnyouth08